

둔암 조규양선생 유고집
『鈍巖先生逸稿』

『둔암 조규양선생 유고집』 소개

이 책은 조선 후기 문인 조규양(趙葵陽, 호 둔암 鈍巖) 선생의 시문과 산문, 그리고 생애 관련 글을 모은 유고집 『鈍巖先生逸稿』 번역본입니다. 선생은 1706 년(숙종 32)에 태어나 1776 년(영조 52)에 세상을 떠났으며, 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과 시를 벗삼아 살아갔습니다. 그의 글에는 겸허하고 올곧은 삶의 태도, 시대를 향한 성찰, 그리고 후학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번역본은 누구나 읽기 쉽게 원문의 분위기를 살려 현대어로 옮긴 것으로, 조선 선비의 정신과 문학을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목 차

서(序)

제 1 권

시(詩) _ 7

서(書) _ 74

잡저(雜著) _87

제 2 권

상량문(上樑文) _ 120

애사(哀辭) _ 126

제문(祭文) _ 134

서(序) _ 139

기(記) _ 144

발(跋) _ 156

부록(附錄) _ 159

序

凡入世濟其美者固難矣世濟其美而兄弟並美者尤難矣兄弟並美而文章之綺
범입세제기미자고난의세제기미이형제병미자우난의형제병미이문장지기
麗科甲之燁赫震耀一世者又難乎難矣維漢陽氏遠有代序至檜溪公以文學篤
려과갑지천혁진요일세자우난호난의유한양씨원유대서지회계공이문학독
行見推於時繼以竹林公之文雅幽溪公之雋望而式至于鈍巖公之世益大以昌
행견추어시계이죽림공지문아유계공지준망이식지우둔암공지세익대이창
兄弟五人聯芳襲武四蓮一桂輝映一堂蓋我朝當元陵健陵之際奎運再回文教
형제오인연방습무사련일계휘영일당개아조당원릉건릉지제규운재회문교
大振環嶠以南最稱多彬彬而公之家又值一遭文明之會以故當時之治公車決
대진환교이남최칭다빈빈이공지가우치일조문명지회이고당시지치공거결
科第者莫不以公家爲標準而公乃高陽之應門馬氏之白眉也幼有異質步趨不
과제자막불이공가위표준이공내고양지응문마씨지백미야유유이질보추불
凡甫免黜陪隨王考公鐵城任所鐵濱海也見溟濤之盪漾日月之吞吐烟雲之變
범보면천배수왕고공철성임소철빈해야견명도지탕양일월지탄토연운지변
態鯨鯢之出沒已有司馬氏助氣爲文之意而自是不煩師督文思日進藝游輒居
태경예지출몰이유사마씨조기위문지의이자시불번사독문사일진예유첩거
前列晚陞蓮庠名聲大噪而薄於進取隱居養親王家爲政則不出君陳之孝友安
전렬만승련상명성대조이박어진취은거양친왕가위정즉불출군진지효우안
貧養志則躬執董生之漁想每於定省之暇與仲季諸公聯床講討怡愉之歡征邁
빈양지즉궁집동생지어상매어정성지하여중계제공연상강토이유지환정매
之樂彤洩乎庭幃外至榮櫟不啻浮雲之無有也一時名流如金九思樂行柳三山
지락용설호정위외지영거불시부운지무유야일시명류여김구사악행유삼산
正源李下枝象辰李鏡潭守貞金渴睡瑋李鈞隱世澤諸公皆許以心友李尙書性
정원이하지상진이경담수정김갈수위이조은세택제공개허이심우이상서성
源一見許以國士以公所製六義稿遍示諸友曰不可使此文湮沒於世如始電義
원일견허이국사이공소제육의고편시제우왈불가사차문연몰어세여시전의
洪範賦白棗篇等諸作膾炙一代傳誦者多而公益自韜晦不求人知七旬韋布漢
홍범부백조편등제작회자일대전송자다이공분자도회불구인지칠순위포확
落嵌巖晦翁所謂蘊經綸事業怎麼死了底何限者也每三復斯言爲公惜之日公
락감암해옹소위온경륜사업임마사료저하한자야매삼복사언위공석지왈공
之五代孫周遠希遠氏使其族叔泰舜甫以書來層不佞世洛曰吾祖遺文舊有淨
지오대손주원희원씨사기족숙태순보이서래층불녕세락왈오조유문구유정

寫本八局而嫡嗣中替殘孫散處不知佚於何時而近才收拾斷爛殆不成卷帙而
 사본팔국이적사중체잔손산처불지일어하시이근재수습단란태불성권질이
 懼夫愈久而愈湮沒方謀入于梓子其丁乙且要卷首一言世洛以非其人辭又責
 구부유구이유연물방모입우재자기정을차요권수일언세락이비기인사우책
 以世契之重有不敢固拒乃不揆僭妄畧加刪整釐之爲二卷九苞一羽可知全體
 이세계지중유불감고거내불규참망략가산정리지위이권구포일우가지전체
 文章又何恨其不多也謹按公之四弟梧竹翁狀敘曰公之識鑑如戴容州獎誘如
 문장우하한기부다야근안공지사제오죽옹장서왈공지식감여대용주장유여
 蘇長公所居而化者雖不如楊同業之薰陶因文而悟者不下於鄭康成之書帶一
 소장공소거이화자수불여양동업지훈도인문이오자불하여정강성지서대일
 洗鄉鄰膚淺之文反之百年正始之音其功不少矣斯乃天倫之知己家庭之信筆
 세향린부친지문반지백년정시지음기공불소의사내천륜지지이가정지신필
 不佞何庸贅焉且念公之第八友軒遺集公之胤一峯遺稿已壽于傳而竹翁遺卷
 불녕하용책언차념공지제팔우헌유집공지윤일봉유고이수우전이죽옹유권
 行將刊布一家文獻之盛世罕其化世濟之美足令斯世鐵步家子弟楊然而知所
 행장간포일가문헌지성세한기화세제지미죽령사세철보가지제양연이지소
 勸矣是稿之行不亦有補於世教也哉爲之拊卷而三歎也
 권의시고지행불역유보어세교야재위지부권이삼탄야
 乙卯孟秋上澣豐山後人金世洛謹序
 을묘맹추상한풍산후인김세락근서

서문

세상에 나아가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 본래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고 형제들이 함께 훌륭해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형제들이 함께 뛰어나면서도 문장의 아름다움과 과거 시험에서의 빛나는 성취로 한 시대를 빛낸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양(漢陽) 씨족은 대대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 왔다. 그중 회계공(檜溪公)은 문학과 독실한 실천으로 당대에 추앙받았으며, 이후 죽림공(竹林公)의 문장과 우아함, 유계공(幽溪公)의 뛰어난 명망이 이를 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둔암공(鈍巖公)에 이르러 가문이 더욱 크게 번영하였다. 형제 다섯이 함께 빛을 발하며, 무과에 합격한 네 형제와 문과에 합격한 한 형제가 한 집안에서 함께 빛나니, 이는 참으로 드문 일이라 하겠다.

우리 조선 왕조는 원릉(元陵)과 건릉(健陵)의 시기를 맞아 학문과 문교(文教)가 크게 흥성하였다. 특히 강남 지역(環嶠以南)에서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공(公)의 집안 또한 이러한 문명의 번성기에 놓여 있었다.

그 때문에 당시 과거 시험(科第)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公)의 집안을 하나의 기준(標準)으로 삼았으며, 공은 바로 고양(高陽)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이자, 마씨(馬氏) 가문의 뛰어난 인재(白眉,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였다.

공은 남다른 자질을 타고났으며, 그 행보 또한 평범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남들처럼 일반적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부친(王考公)께서는 철성(鐵城)의 책임을 맡은 분이었으며, 그 임무는 해안(濱海)을 지키는 일이었다.

거센 바닷물결이 넘실거리고, 해와 달이 솟아오르며 가라앉고, 연기와 구름이 시시각각 변화하며, 거대한 고래가 출몰하는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이는 마치 사마천(司馬遷)의 웅장한 문장을 읽는 듯한 장관이다.

이와 같은 기질을 타고난 그는 어려서부터 스승의 엄격한 지도 없이도 문장을 익히는 데 뛰어났으며, 학문을 익히는 나날마다 언제나 앞자리에 있었다. 훗날 연향(蓮庠, 향교)에 올라 명성이 크게 퍼졌으나, 벼슬을 얻는 데에는 뜻이 적어 부모를 모시며 은거하였다.

왕실에서 정치를 펼칠 때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집안에서는 효성과 우애를 실천하며,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뜻을 지키고 학문을 닦았다. 그는 직접 동생(董生)의 어부 생활을 몸소 실천하듯 소박한 삶을 살았으며, 항상 아침저녁 부모님께 문안을 드린 뒤 틈틈이 아우 및 여러 선비들과 나란히 앉아 학문을 토론하고, 함께 즐기는 기쁨과 여행길에 오르는 즐거움을 누렸다.

그러나 그에게 영예와 관직은 마치 뜬구름과도 같은 것이었으니, 결코 그것을 탐내지 않았다.

그 시대의 명망 있는 인사들인 김구사(金九思), 악행(樂行), 유삼산(柳三山), 정원(正源), 이하지(李下枝), 상진(象辰), 이경담(李鏡潭), 수정(守貞), 김갈수(金渴睡), 위(瑋), 이조은(李鈞隱), 세택(世澤) 등 여러 선비들이 모두 마음을 나누는 벗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 이 상서(李尙書) 성원(性源)은 공을 처음 보자마자 국사(國史, 나라에서 인정하는 뛰어난 인재)로서 대우하였다. 공이 지은 『육의고(六義稿)』를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이 글이 세상에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과거에도 『시전의(始電義)』, 『홍범부(洪範賦)』, 『백조편(白棗篇)』 등의 작품이 당대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애송했던 것처럼, 공의 글 역시 시대를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공은 스스로 몸을 감추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일흔이 넘도록 평범한 옷을 입고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험준한 산속에 묻혀 지냈다. 이는 곧 '세상의 경륜과 큰 뜻을 품고도 끝내 묻혀버린다면 그 아까움이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한 해옹(晦翁)의 말과도 같았다.

나는 이 말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공(公)을 안타깝게 여겼다.

공의 5대 손인 주원(周遠)과 희원(希遠) 형제가 그들의 종친인 권태순(權泰舜)에게 부탁하여 서신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조상의 유고(遺文)는 예전부터 정서된 본(淨寫本) 8책이 있었으나, 대를 이어 내려오는 동안 후손들이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면서 일부가 유실되어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가까스로 흠어진 조각들을 모아 보았으나, 그 상태가 심히 훼손되어 하나의 온전한 책으로 엮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사라질 것이 두려워, 이제 이를 목판으로 인쇄하여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서문(卷首)의 한마디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세락(世洛)은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후손들이 선조의 문집을 정리하는 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거듭 간청하자, 끝내 거절하지 못하였다. 감히 자신의 부족함을 헤아리지 않고 문장을 다듬고 정리하여 두 권으로 만들고, 9개 부분(菑)과 1개의 부록(羽)으로 편성하였다. 비록 원문의 전체적인 체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리했으나, 남아 있는 글이 많지 않음을 어찌 한탄하지 않겠는가?"

삼가 살펴보건대, 공(公)의 『사오죽옹장서(四梧竹翁狀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公)의 식견과 감식안(識鑑)은 마치 대릉주(戴齊州)의 뛰어난 통찰력과 같았으며, 후학을 격려하고 이끄는 것은 소장공(蘇長公)과도 같았다. 그 덕화(德化)를 직접 받아들인 자들은 비록 양동업(楊同業)의 깊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처럼 많지는 않았으나, 문장을 통해 깨우침을 얻은 자들은 정강성(鄭康成)의 학문을 익힌 사람들 못지않았다.

공(公)은 향리(鄉里)에서 알팍한 문풍(文風)을 바로잡고, 이를 되돌려 백 년 전 정시(正始) 시기의 올바른 학문적 전통으로 회복시켰으니, 그 공적이 적지 않다. 이는 천륜(天倫)의 정을 나눈 절친한 지기(知己)이며 가문에서 신뢰받던 인물이었기에 내가 굳이 덧붙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공(公)의 후손들이 남긴 문집인 『제팔우헌유집(第八友軒遺集)』과 『일봉유고(一峯遺稿)』는 이미 세상에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제 『죽옹유권(竹翁遺卷)』 또한 간행될 예정이다. 한 가문의 문헌이 이처럼 번성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세상을 위해 학문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일이니, 마땅히 그 후손들은 이를 본받아 더욱 학문에 정진할 것이다.

이 원고가 출간되어 세상에 전해진다면, 어찌 후학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책을 어루만지며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을묘년 늦가을 풍산사람 김세락 씀.

제 1 권

시(詩)

서(書)

잡저(雜著)

詩 시



勉學 면학

爲學必須先立基 古來繩墨自成規
위학필수선립기 고래승묵자성규
透關縱似千重隔 下手初從一路知
투관종사천중격 하수초종일로지
却怕此心無定住 莫教新得更遷移
각파차심무정주 막교신득경천이
無情歲月不相待 雖悔其如鬢髮絲
무정세월불상대 수회기여빈발사

학문하는 자세

학문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를 먼저 세워야 한다.
예로부터 법도는 스스로 규범을 이루어 왔네.
관문을 통과하려 해도 천 겹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공부에 착수하려면 한 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리.
다만 두려운 것은 이 마음이 머물지 못할까 함이니,
새롭게 깨달은 바를 또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무정한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으니,
비록 후회하더라도 어느새 귀밑머리는 희어져 가리라.

題仁同四義士錄 并小序
제인동사의사록 병소서

余嘗過晉陽上蠶石樓得見三壯士實記 讀未半俯臨前江悲風起而江波立
여상과진양상촉석루득견삼장사실기 독미반부림전강비풍기이강파립

使人像想其氣節貞忠 意謂東國只有此三壯士而已 今從金君啓鍊得四義士事蹟
사인상상기기절정충 의위동국지유차삼장사이이 금중김군계련득사의사사적

與三壯士同時而並殉者也 仁善之於晉陽相距不數百里 是何天地間正大磅礴之氣
여삼장사동시이병순자야 인선지어진양상거불수백리 시하천지간정대방박지기

融結蜿蜒至於三而四也 以唐宋之大只聞張巡許遠李侍郎數人而已
융결원연지어삼이사야 이당송지대지문장순허원이시랑수인이이

一隅褊邦乃有作者七人 三百年元氣其將閱萬劫而不磨也 豈不偉哉
일우편방내유작자칠인 삼백년원기기장열만겁이불마야 기불위재

然四義士之隱卒崇終猶不如三壯士之彰明較著 其亦有幸不幸而感耶
연사의사지은졸승종유불여삼장사지창명교저 기억유행불행이감야

後必有卞之者 余感而識于卷末 且和諸君子詩律
후필유변지자 여감이식우권말 차화제군자시율

殉國愍身四節全英風千古壬辰年 眼前耿元無賊頭上堂堂獨有天
순국망신사절전영풍천고임진년 안전경원무적두상당당독유천

氣壯山河留往蹟名垂塵劫 吊遺篇至今淚滿英雄袖 洛水殘花咽杜鵑
기장산하유왕적명수진겁 적유편지금루만영웅수 낙수잔화연두견

인동 네 의사록(仁同四義士錄)에 부쳐 - 작은 서문과 함께

나는 예전에 진양(晉陽, 지금의 진주)을 지나며 '촉석루(蠶石樓)'에 올라, 세
장사(三壯士)의 실기를 직접 읽어 본 적이 있었다. 아직 절반도 채 읽지 못했을
때, 문득 앞으로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니, 슬픈 바람이 일어나고 강물은 거센

물결을 이루었다. 마치 그들의 굳건한 절개와 충성스러운 뜻이 다시금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순간, 우리 동국(東國, 조선)에는 오직 이 세 장사만이 존재했던 것인가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김 군(金君)께서 보내준 글을 통해, 네 의사(義士)의 행적을 접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바로 세 장사와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함께 순절한 분들이었다.

진양과 인동(仁同, 지금의 구미)은 불과 수백 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어찌하여 이 광대한 천지 사이에서 정대하고(正大), 호탕하며(磅礪) 거대한 기운이 응결하여, 셋이 넷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말인가?

당(唐)과 송(宋)과 같은 큰 나라에서도 오직 장순(張巡), 허원(許遠), 이사랑(李侍郞) 몇 사람만이 충절을 남겼다고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만 일곱 명이나 되는 의로운 인물이 나타났으니, 이는 하늘의 기운이 수천 년을 지나도록 이어진 것이며, 비록 무한한 세월이 흐른다 해도 그 충절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네 의사의 이름은 숨겨지고, 세 장사는 널리 알려졌으니, 이 또한 운명의 다행과 불행이 엇갈린 것인가. 후일 반드시 이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세상에 알릴 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에 감격하여 이 책의 마지막에 글을 남기며, 여러 군자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한 수를 화답하고자 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사(四)절을 굳건히 지키며 전적으로 영웅의 기풍을 발휘한 그의 모습은, 천고(千古)한 임진(壬辰)년부터 오늘날까지, 눈앞에 있어도 그와 같이 충직한 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적의 두목 위에서 그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오직 천(天)의 기운과 산천(山河)의 장엄함을 지니고 있어, 그가 남긴 발자취와 그의 이름이 먼지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음을 증명한다.

또, 그를 기리는 유편(遺篇)은 오늘날까지도 영웅들의 소매를 눈물로 적시며, 洛水(낙수) 강가의 시든 꽃잎과 두드러지게 울부짖는 두견(杜鵑)의 울음소리마저 애통하게 만든다네."



次李敬裕 孝甲 霞巖亭 韻
차이경유 효갑 하암정 운



霞巖形勝稱寒廬
하암형승칭한려
公擇山房事亦虛
공택산방사역허
滿室琴基閒事業
만실금기한사업
一階花竹自簫疎
일계화죽자소소
能成結構牛川志
능성결구우천지
偏繼漁樵愚叟居
편계어초우수거
我亦近來無世味
아역근래무세미
不妨隨意共看書
불방수의공간서

이경유(李敬裕) 효갑(孝甲)의 하암정(霞巖亭)을 읊는다

하암의 경치는 빼어나니, 한적한 살림집이라 불릴 만하네.

그대는 산방을 택하였지만, 그 일 또한 허무할 따름이네.

방 안엔 거문고와 기틀이 가득하고, 한가롭게 살아가는 일이 삶의 바탕이 되었네.

층계 아래 꽃과 대나무는 저절로 드문드문 자라며, 퉁소 소리처럼 은근하네.

이 정자를 이루게 된 것은 우천(牛川)의 뜻을 이은 것이니, 편히 살아가는 어부와
나무꾼 늙은이들의 삶을 이은 것이로다.

나 또한 요사이 세상살이에 맛을 느끼지 못하니, 마음 가는 대로 함께 책을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네.

又次十二詠
우차십이영

‘십이영(十二詠)’ 을 다시 차운하다



霞巖
하암

奇巖霞已老 紫氣四時天
기암하이로 자기사지천

濃濕主人百不妨 你洞仙
농습주인백불방 니동선

하암(霞巖) (노을진 바위)

기묘한 바위에 비낀 노을은 이미 깊어가고,
사방 하늘에 자줏빛 기운이 사시사철 가득하네.

촉촉한 습기는 이곳 주인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으니,
이곳은 신선이 거하는 동굴과도 같구나.

牛峯
우봉

平地黎然起 遙看疊石屏
평지려연기 요간첩석병

山名知不偶 峯似老牛青
산명지불우 봉사로우청

우봉(牛峯) (소의 형상을 한 봉우리)

평탄한 대지 위에 우뚝 솟아나,
멀리서 바라보니 바위층이 병풍처럼 펼쳐졌네.

산의 이름도 예사롭지 않거니와,
그 봉우리 푸른빛 머금은 노쇠한 소 같구나.



玄鶴窟 현학굴

何時玄鶴住 餘窟尙山崖
하시현학주 여굴상산애
客到如聞笛 白雲霽皓沙
객도여문적 백운명호사



현학굴(玄鶴窟) (검은 학이 깃든 동굴)

어느 때부터인가 검은 학이 머물렀을까,
그 자취만 남은 동굴이 여전히 산 절벽에 있구나.
나그네 찾아와 귀 기울이면 피리 소리 들리는 듯,
흰 구름은 하얀 모래를 덮으며 아득히 퍼지네.





紫芝山 자지산

歌関紫芝曲 療飢適鍊蔬
가결자지곡 요기적련소

獨採成一樂 四老亦煩多
독채성일락 사로역번다

자지산(紫芝山) (자줏빛 지초가 자라는 산)

자줏빛 지초 노래가 끝나니,
허기진 마음마저도 맑아지는구나.

홀로 지초를 캐어 즐거움을 이루니,
옛 네 성현도 번뇌가 많았을 뿐이네.

赤壁 적벽

韶川猶赤壁 何處不宜舟
소천유적벽 하처불의주

壬戌千秋興 吾徒無盡遊
임술천추흥 오도무진유



적벽(赤壁) (붉은 절벽)

소강의 물결 여전히 적벽을 감돌고,
배를 띄우기에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천 년이 지나도 흥취는 여전히,
우리 무리는 끝없이 이곳을 유람하네.



彈琴臺 탄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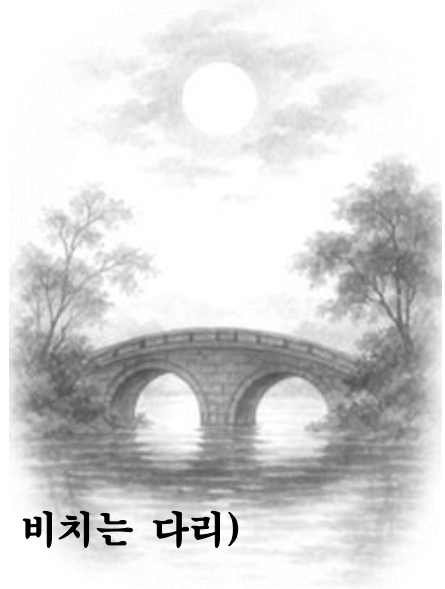
三壘琴臺上 臺虛發古音
삼루금대상 대허발고음
天機誰領解 山水自高深
천기수영해 산수자고돌

탄금대(彈琴臺)

세 겹으로 둘러싼 탄금대 위에서,
텅 빈 공간에 옛 거문고 소리 울리네.
하늘의 이치를 누가 깨우칠 수 있으랴,
산과 물이 스스로 높고 맑을 뿐이니.

霽月橋 제월교

兩橋西南峙 分月影婆娑
양교서남치 분월영파사
霽景清如許 光風兒漾波
제경청여허 광풍아양파



제월교(霽月橋) (비 갠 뒤 달빛이 비치는 다리)

두 개의 다리가 서남쪽에 우뚝 솟아,
달 그림자가 흔들리며 춤추는구나.
비 갠 하늘은 이토록 맑고 깨끗한데,
산들바람이 살며시 물결을 흔드네.

溪心基
계심기

石枉溪心處 溪流石不傾
석왕계심처 계류석불경
此中寓動至理 恐難明
차중우동지리 공난명



계심기(溪心基) (시냇물 한가운데의 바위)

시냇물 한가운데 휘어진 바위 놓였으나,
물줄기가 흘러도 바위는 기울지 않네.

그 안에 담긴 변화의 이치, 두려워하건대 깨닫기는 어려우리.

砥柱石
지주석

龍門千丈石 能鬪黃河激
용문천장석 능투황하격

大小雖云異 屹然亦一壁
대소수운이 흘연역일벽

지주석(砥柱石) (흐름을 거스르는 바위)

용문(龍門)에 솟은 천 길 바위, 황하의 거센 물살에도 굳건하네.

크고 작음이 비록 다를지라도, 우뚝 선 모습은 한결같도다.

秋月潭 추월담

秋潭浚徹底
추담발철저

天入水中碧
천입수중벽

俯看得明月
부간득명월

遊魚戲白璧
유어희백벽



추월담(秋月潭) (가을 달빛 비치는 연못)

가을 연못은 맑고 투명하여,

푸른 하늘은 물속으로 스며들어와 있네.

몸 굽혀 내려다보니 달 빛 비치고,

노니는 물고기는 흰 구슬을 희롱하네.

洗心臺
세심대

行到水回處 清風習習來
행도수회처 청풍습습래
自然無俗慮 千古洗心臺
자연무속려 천고세심대

세심대(洗心臺) (마음을 씻는 대)

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이르니,
맑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네.
자연 속에 있으니 세속의 걱정 사라지고,
천년 동안 마음을 씻는 곳이라네.



超然臺
초연대

出身遊物外 臺上一蒼穹
출신유물외 대상일창궁
萬古看俄頃 飄然御冷風
만고간아부 표연어냉풍

초연대(超然臺) (속세를 초월한 대)

속세를 떠나 자연을 거니니,
대 위엔 끝없이 푸른 하늘 펼쳐지네.
만고의 세월을 내려다보며,
하늘 바람 타고 유유히 떠도네.

詠星 영성

春鳥秋虛好饑迎 循環天道與時丙
 춘조추허호전영 순환천도여시병
 咎徵暗動灾愆見 景貺潛周瑞色明
 구징암동재망견 경황잠주서색명
 薰殿已聞虞史賀 紫宮曾覩漢官驚
 훈전이문우사하 자궁증도한관경
 靑臺七曜今調軌 肯遣旄頭照塞旋
 청대칠요금조궤 긍견모두조새선



영성(詠星) (별을 읊다)

봄새가 지저귀고 가을 허공이 허무하도다.
 이별과 환영을 즐겁게 주고받는 것은,
 하늘의 도리가 순환함에 따라 시절에 맞게 흐르는 것이라.

잘못과 징조가 어둠 속에서 몰래 움직여 재난의 조짐을 보이듯,
 밝은 축복은 은밀히 주변을 감돌며 길조의 빛깔을 또렷이 드러낸다.

향정(薰殿)에서는 이미 우(虞) 역사의 축하 소리가 들렸고,
 자궁(紫宮)에서는 한나라 관리들이 경악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도다.

푸른 누각 위에 일곱 천체가 오늘 그 궤적을 조율하는 가운데,
 누가 감히 기(旄) 머리를 보내어 국경을 비추며 회전시키겠으리오?

燈 등

每向黃昏與爾期 明暗相推理耦奇
 매향황혼여이기 명암상추리우기
 一炷能分蟾影白 五空猶照漏聲遲
 일주능분섬영백 오공유조루성지
 城南好趁稍親夜 楚國那堪伴夢時
 성남호진초친야 초국나감반몽시
 把酒論文渾樂事 呼兒復進九魚枝
 파주논문혼락사 호아복진구어지



등(燈) (등불을 읊다)

매일 황혼이 깃들 무렵, 너와의 만남을 기약하니,
 어둠과 밝음이 번갈아 밀려드는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구나.

한 줄기 불빛이 달 그림자를 나누어 비추고,
 허공에 떠 있으나 누각의 시계 소리는 여전히 느리게 울린다.

성 남쪽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초나라의 외로운 등불을 벗 삼기엔 더욱 애달프구나.

때때로 술을 나누고 글을 논하며 온전히 즐거움을 누리니,
 아이를 불러 다시금 물고기 모양의 등잔에 기름을 붓게 하네.



舍弟義卿 宜陽 雨中歸家
사제의경 의양 우중귀가

三日連牀客愁歡 情無異奏宮商
삼일연상객수환 정무이주궁상

蜂鬚尋藥歸應懶 鷺鶩泥銜泥濕不妨
봉수심벽귀응나 연자니함니습불방

尚有詞章輸暮景 猶將菽水慰高堂
상유사장수모경 유장숙수위고당

百年如此真堪樂 分外功名漢水陽
백년여차진감락 분외공명한수양

아우 의경(義卿)이 의양(宜陽)에서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네

사흘 동안 침상 나란히 기대어 객지의 시름과 기쁨 함께 나누니,
우리 마음 어찌 궁상각치우의 조화와 다르랴.

별은 췌기풀 찾아 날갯짓 멈추고 돌아가기 싫어하고,
제비는 젖은 진흙 부리에 물고 등지 지으니 젖어도 괜찮으리.

저물녘에도 여전히 시 짓는 즐거움 나누고,
콩잎국으로나마 어머니 봉양하니 이 또한 기쁨이네.

이렇듯 백년 함께한다면 참으로 즐거울 텐데,
분수에 넘치는 공명은 한수 남쪽 땅에 두고 오세나.



偶吟
우음

四十年前意自雄 居然白髮一衰慵
사십년전의자웅 거연백발일쇠용

遺愁負杖看流水 乘興吟詩對碧峯
전수부장간류수 승흥음시대벽봉

落落功名雲外事 匆匆歲月貶前風
 락락공명운외사 충충세월핍전풍
 無端四月家鄉隔 歸夢頻驚北去鴻
 무단사월가향격 귀몽빈경북거홍

우연히 읊조리다 (偶吟)

40 년 전, 내 마음은 당당하고 힘차게 뛰어났으나,
 이제는 하얀 머리칼이 그 쇠락과 게으름을 드러내네.

나는 근심을 떨쳐버리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마음을 달랜다.

기쁨을 타고 시를 읊조리며 푸른 봉우리를 마주하면,
 공적과 명예는 구름 너머의 일처럼 덧없음을 느낀다.

세월은 급하게 흘러가 옛 정취를 희석시키고,
 어찌할 바엔, 이유 없이 4월에 고향에서 귀향의 꿈을 꾸면,
 북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가 자주 내 마음을 놀라게 하네.



塞上曲 새상곡

燕山從古老英雄 刁斗聲高夜月空
 연산종고노영웅 조두성고야월공
 沙水冰堅應百尺 戍樓弦撥正千弓
 사수빙견응백척 술루현발정천궁
 十年漢塞知無敵 一夜甘泉莫遣烽
 십년한새지무적 일야감천막견봉
 王事已成歸去早 城南思婦夢秋鴻
 왕사이성귀거조 성남사부몽추홍

변방의 노래

연산은 예로부터 영웅호걸 배출한 땅,
밤하늘엔 징과 북소리 드높고 달빛만 외롭네.

모래 강 얼어붙어 백 척이나 두꺼우니,
변방 누각에선 천 개의 활 당기는 소리 울려 퍼지네.

십 년 변방 생활에 적수 없음을 알았건만,
단 하룻밤의 감천 땅 봉화도 피우지 않으리.

나라 일 이미 이루었으니 일찍 돌아가리라,
성 남쪽 고향 그리워하는 아내는 가을 기러기 꿈꾸네.



懶拙齋李先生 山斗 挽 난졸재이선생 산두 만

曾從門下往來頻 玉暖冰清久久新
증종문하왕래빈 옥난빙청구구신

南極百年卿月色 春風一榻塑泥人
남극백년경월색 춘풍일답소니인

山河鍾得元淳氣 天地分留繪素身
산하종득원순기 천지분류회소신

吾嶺卽今無宿學 公私涕淚暮江濱
오령즉금무숙학 공사체루모강빈

나졸재(懶拙齋) 이산두 선생을 기리며

한때 나는 스승의 문하에서 자주 오고 가던 적이 있었으니,
마치 따스한 옥처럼 온기 있고,
맑은 얼음처럼 깨끗한 그 본질이 오랫동안 새로움을 간직하던 때였다.

백 년 동안 남쪽 하늘에 비치는 그윽한 달빛은 여전히 빛나며,
봄바람이 한 누각 위에 앉아 있는 틈새에서 흙으로 된 인형을 빚어내듯,

산과 강은 원초적 순수한 기운(元淳氣)을 품고,
천지조차도 나누어 그 소박한 자태(素身)를 그려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嶺’에는 더 이상 머물며 배울 이들이 없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두가 황혼의 강가에 서서 눈물로 슬픔을 나눈다.



水島會話韻 수도회화운

偶逐諸君到水濱
우축제군도수빈

坐來清興一般新
좌래청흥일반신

主人與世無求意
주인여세무구의

谷口誰尋鄭子真
곡구수심정자진

수도(水島)에서의 대화에 운을 맞추어

우연히 여러 벗들과 함께 물가에 이르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맑은 정취가 새롭게 느껴지네.

이곳 주인은 세상과 더불어 구하는 바 없으니,
마치 골짜기에서 은거하던 정자진(鄭子真)을 누가 찾아올까 싶구나.



再會韻
재회운

沙白風輕午景清 諸君今又自龜城
사백풍경오경청 제군금우자귀성
登盤細脰從何出 解渴茶盃滿意傾
등반세회종하출 해갈다배만의경
天地有心容我輩 江山無盡助詩情
천지유심용아배 강산무진조시정
留連永夕忘歸去 坐待林梢新月生
유련영석망귀거 좌대림초신월생

다시 만남을 노래하네

모래는 희고 바람은 가벼워, 한낮의 경치마저 맑고 고요하네.
벗들이여, 오늘도 다시 귀성(龜城)에 올라 함께하니 반갑구나.

가늘게 썬 고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갈증을 풀어 줄 차잔은 가득 차 마음껏 기울이네.

하늘은 넓고 넉넉하여 우리 같은 이들도 품어 주고,
강산은 끝이 없어 시심을 돋우네.

저녁이 깊도록 떠나기를 잊고,
숲 끝에 신월(新月)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네.

臨別次沈穩戾韻留贈主人朴士綱
임별차심온려운유증주인박사망

偶來成一會 驚喜若相期
우래성일회 경희약상기
白髮蕭蕭日 綠陰澹澹時
백발소소일 록음담담시

古人先我獲 樽酒更難持
고인선아획 준주경난지

臨席慙勸意 秋天見月思
임석은근의 추천견월사

이별을 앞두고 심온려(沈穩戾)의 운을 따르며
주인 박사망(朴士綱)에게 남기는 시

우연히 찾아와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니
기쁨이 놀라울 따름이오, 마치 오래 전부터 약속한 듯하오.
머리는 어느덧 희어지고, 햇살은 푸르고 그들은 열은 때,
옛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술잔을 얻었고
나는 지금 그 술잔조차 들기 어려운 마음이로다.
자리에 앉으니 정이 간절하고,
가을밤 달을 바라보니 떠오르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네.



挽李稷山仁仲 萬宏
만이직산인중 만홍

依微顏色夢中清 不復東城見笑迎
의미안색몽중청 불복동성견소영
十世光榮瞻北斗 一時風味聳南庚
십세광영침북두 일시풍미용남경
出言幾艷無塵態 處事常看盡物情
출언기염무진태 처사상간진물정
病臥窮廬違執拂 思君終夜淚沾纓
병와궁려위집불 사군종야루점영

이직산(李穰山) 인증(仁仲) 만홍(萬宏)을 애도하며

희미한 얼굴빛이 꿈속에서도 아련하건만,
더는 동쪽 성에서 웃으며 맞이할 수 없네.

열 대(代)의 영화로움은 북두성을 바라보듯 빛났고,
한 시대의 풍모는 남쪽 산마루처럼 우뚝했네.

말 한마디도 고상하여 먼지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을 대함에 있어 언제나 이치에 통달하였네.

병든 몸으로 원려(冤廬)에 누운 채 누구를 기다리셨는가?
그대를 생각하며 밤새도록 눈물에 갓끈을 적시네.

和曹梅溪調文丞相廟 화조매계알문승상묘

丞相祠堂何處尋 蒼藤古木日陰陰
승상사당하처심 창등고목일음음

千年英氣山河壯 一片丹忠竹帛滾
천년영기산하장 일편단충죽백곤

崖海尙流憂國淚 燕天不變坐樓心
애해상류우국루 연천불변좌루심

同調又有梅溪筆 三復遺篇吊古今
동조우유매계필 삼복유편적고금

雨何咽咽風何飆 餘憤依稀陣馬奔
우하인인풍하번 여분의희진마분

毅魄不過悲緣草 廢祠無主欲黃昏
의백불과비연초 폐사무주욕황혼

天心已去忠臣死 元氣誰扶大義存
천심이거충신사 원기수부대의존

拜奠荔枝垂老淚 山高水逝節逾尊
배전려초수로루 산고수서시유존

何日先生薦苾芬 詩中心事最堪聞
하일선생천필분 시중심사최감문

錦官古栢黃鸝語 睢水殘碑碧蘚紋
금관고백황리어 수수잔비벽선문

忠魂入地鳴寒水 元氣干天逗暮雲
충혼입지명한수 원기간천두모운

至今小子偏多感 敢爲三賢作誄文
지금소자편다감 감위삼현작뢰문

조매계와 함께 문승상 사당을 찾아

승상(丞相)의 사당이 어디 있는가 찾으려 하니,
푸른 덩굴 얹힌 고목 아래, 날은 흐릿하고 그들이 깊도다.

천 년의 호절다운 기개는 강산을 더욱 장엄하게 하고,
오롯한 붉은 충정은 역사책마다 빛나고 있다.

절벽과 바다에도 여전히 그분의 나라 걱정의 눈물이 흐르고,
북녘 하늘은 변하지 않으며, 그 뜻은 누각에 앉은 심정 속에 남아 있다.

그와 뜻을 같이한 자들 중에, 매계(梅溪)의 붓 또한 있었으니,
그가 남긴 글을 거듭 읽으며, 옛사람들을 함께 추모하게 된다.

비는 애처롭게 내리고, 바람은 뒤엎듯 불어오며,
남은 분노는 어렴풋이, 전장의 말들이 달리는 소리로 되살아난다.

굳센 녀은 결국 이름 없는 들풀로 남았고,
버려진 사당엔 주인도 없고, 해는 저물어간다.

하늘의 뜻이 이미 멀어지고 충신은 죽었으니,
이 나라의 정기와 대의명분을 이제 누가 지켜낼 것인가.

예를 갖추 제사를 올리며, 늙은 눈엔 다시금 눈물이 흐르고,
높은 산, 흐르는 물 속에, 슬픔은 술보다 깊게 배어난다.

그대 선생께서 향기로운 공덕을 바치게 될 날은 언제일까.
그 마음 깊은 속사정은 오직 시(詩)에서만 제대로 들을 수 있구나.

금관성(錦官城)의 오래된 측백 사이, 뾰꼬리 지저귀는 소리,
수이수(睢水) 언저리의 닳은 비석엔 푸른 이끼가 스며 있다.

그 충직한 영혼은 땅에 들어가 찬 물 속에서 울리고,
나라의 정기(元氣)는 하늘을 치며 저녁 구름과 맞부딪친다.

오늘날 나 같은 미친한 자도 깊이 감동하였기에,
감히 이 세 충신을 위해 애도하는 글을 지어 바친다.



劉先主風雪訪孔明 유선주풍설방공명

風雪蕭蕭滿橋林 此間王佐隱居溪
풍설소소만굴림 차간왕좌은거들
吾家正值中衰運 隻手猶存再造心
오가정치중쇠운 척수유존재조심
元直一言寧不記 草廬三顧誓相尋
원직일언녕불기 초려삼고서상심
魚水半堂神契合 白頭皇叔作殷霖
어수반당신계합 백두황숙작은림

유비(劉備), 풍설 속에 공명(孔明)을 찾아가다

바람은 쓸쓸히 불고 굴나무 숲 사이 눈은 흩날리네,
이곳에 왕을 도울 인재가 숨었도다.

우리 집안은 마침 쇠락의 운명을 맞았으나,
이 한 손으로도 나라를 다시 세울 마음이 있네.

원직(元直)의 한마디를 어찌 잊으랴?
초려(草廬)를 세 번 찾아 맹세하며 공명을 구했노라.

군신의 인연은 마치 물과 물고기 같으니,
반쯤 열린 당 안에서 신령한 뜻이 서로 맞았도다.
백발이 된 황숙(皇叔)은 마침내 단비를 만났으니,
이제 천하는 평안해지리라.



王導新亭責周顗 왕도신정책주의

中原文物付東夷 南渡乾坤異昔時
중원문물부동이 남도건곤이석시
天下安危惟我責 眼前光景更誰知
천하안위유아책 안전광경갱수지
方當戮力同心日 肯作愁睂麗淚悲
방당륙력동심일 긍작수미려루비
吾友伯仁猶此態 不能鎮物復何爲
오우백인유차태 불능진물복하위

왕도(王導)의 신정(新亭)에서 주의(周顗)를 꾸짖다

중원의 문화와 법도가 동이(東夷)에게 맡겨지고,
남쪽으로 피난하니 하늘과 땅이 예전과 달라졌구나.

천하의 안위는 오직 우리에게 달렸거늘,
눈앞의 정세를 또 누가 제대로 알고 있단 말인가?

마침내 힘을 합쳐 한마음이 되어야 할 때에,
어찌하여 시름겨운 눈물로 벼슬 슬퍼하는가?

백인(伯仁)이 아직 이처럼 애통해하고 있으니,
세상을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挽任重徵 必大
만임중징 필대

學識文章遠近傳 如君無愧古人賢
학식문장원근전 여군무괴고인현

出遊京洛流聲大 晚好丘園見理專
출유경락류성대 만호구원견리전

吾嶺不曾留善士 舊交那復得
오령불증류선사 구교나복득

眞天自憐老病違 相送南望梧山涕淚漣
진천자련노병위 상송남망오산체루련

임중징(任重徵) 필대(必大)에게 바치는 만사(輓詞)

학문과 문장이 널리 전해졌으니,
그대야말로 옛 성현들께 부끄러움이 없도다.

경도와 낙양에 드나들며 명성이 높았고,
말년엔 산수와 전원에서 도를 닦는 데 뜻을 두었네.

우리 고을에 어진 선비 머문 적 드물거늘,
그대 같은 옛 벗을 어이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참으로 하늘조차 노병을 불쌍히 여겨 데려간 듯,
남녘 오산을 바라보며 보내니 눈물이 줄줄 흐르도다.

舍弟義卿 宜陽 寓梧香洞
사제의경 의양 우오향동

山中風味自來馨 於此君能老一生
산중풍미자래형 어차군능로일생
洞號梧香誰命意 臺名覽德欲爲亭
동호오향수명의 대명람덕욕위정
北高罕見輪蹄過 東壑先看日月明
북고한견윤제과 동탁선간일월명
得失蚤知元有數 區區何必買虛名
득실조지원유수 구구하필매허명

아우 의경(義卿)의 이양(宜陽)에서의 거처, 오향동(梧香洞)을 기리며

산중의 정취는 본래부터 그윽하니,
이곳에서 한평생을 늙어가려는 그대라네.
동굴의 이름을 오향(梧香)이라 누가 지었는가?
대(臺)를 세워 덕을 기리고자 함이로다.
북쪽은 높아 수레와 발길이 드물고,
동쪽은 트여 해와 달이 먼저 밝도다.
득실(得失)은 본래 정해진 것이니,
하찮은 허명을 굳이 탐할 필요 있으랴?

避痘寓金持憲虎卿 埴家 피두우김지헌호경 위가

槐前松下是君居 野服山巾隱者如
괴전송하시군거 야복산건은자여
榜檻欲抽新砌菊 引泉能活小池魚
방함욕추신체국 인천능활소지어
詩傷得酒春同藹 夜室生明月共虛
시상득주춘동애 야실생명월공허

浮世團圓真勝事 文章莫問五車書
 부세단원진승사 문장막문오거서
 春逐詩人昨夜回 誰將消息報庭梅
 춘축시인작야회 수장소식보정매
 把盃共惜霜侵鬢 分韻還教月上臺
 파매공석상침빈 분운환교월상대
 三宿多時衰病苦 百年今日好懷開
 삼숙다시쇠병고 백년금일호회개
 知心海內惟吾輩 從此源源去復來
 지심해내유오매 종차원원거복래

천연두를 피하여 김치헌(金持憲) 호경(虎卿)의 촌가(村家)에 머물며

회나무 앞, 소나무 아래가 그대의 거처이니,
 소박한 옷차림에 산샷갓을 쓴 은자의 모습이다.

난간 곁 새로 돋은 국화를 꺾고,
 샘물을 끌어 작은 연못 속 물고기를 살리네.

시를 읊으면 술 한 잔 얻을 수 있으니,
 봄날의 따뜻함이 밤에도 그윽하구나.

달빛은 방 안에 가득한데,
 덧없는 세상의 풍파를 멀리하며 평온함을 누리네.

문장(文章)이야말로 다섯 수레의 책을 읽었는지 묻지 않으리라.

봄이 시인과 함께 어제 밤 돌아왔구나.
 누가 트랙의 매화에 이 소식을 전할 것인가?

잔을 들고 서리 내린 머리를 함께 아끼며,
 운을 나누어 달빛 아래 대에 올라 시를 읊네.

삼 일 동안 지내며 병고를 잊었고,
 백 년을 사는 동안 오늘날만큼 좋은 날이 또 있을까?

마음이 통하는 이들은 세상에 오직 우리뿐이니,
 이 물줄기처럼 끝없이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리라.

聯句
연구

主客俱非俗 方知彼此安 (向卿)
주객구비속 방지피차안 (향경)

樽前春色煖 燈下劍光寒 (虎卿)
준전춘색난 등하검광한 (호경)

淡托百年契 聊爲十日歡 (向卿)
돌탁백년계 료위십일환 (향경)

分離無限恨 雲樹暮江干 (虎卿)
분리무한한 운수모강간 (호경)

향경과 호경이 한 구절씩 주고받은 시

향경, 주객이 모두 속되지 않으니, 비로소 서로가 편안함을 알겠네.

호경, 술잔 앞, 봄빛은 따뜻한데, 등불 아래, 칼날은 차갑구나.

향경, 백년의 인연을 의탁하여, 잠시 열흘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

호경, 이별의 한은 끝이 없고, 저녁 강가엔 구름과 나무가 우울하게 서 있네.

이어서 지은 시

君行挽不得 天雨故淹雷 (巨卿)
군행만불득 천우고엄뢰 (거경)

그대 떠남을 막을 수 없고,
하늘마저 비 내려 말길을 붙드네.

好托金蘭契 如登李郭舟 (向卿)
호탁금란계 여등이곽주 (향경)

좋은 인연 금란지교로 맡기니,
마치 이곽(李郭)의 배에 오르는 듯하네.

青眸真勝事 白髮亦風流 (虎卿)

청모진승사 백발역풍류 (호경)

청명한 눈빛이야말로 진정한 경사요,
백발이라 해도 역시 멋스럽구나.

燈盡呼兒炷 壺乾與婦謀 (幼精)

등진호아주 혼건여부모 (유정)

등불이 다하면 아이를 불러 심지를 돋우고,
주전자가 마르면 아내와 다시 물을 끓이네.

笑談消日月 基局送春秋 (巨卿)

소담소일월 기국송춘추 (거경)

웃으며 담소 나누니 해와 달이 흘러가고,
근심과 기쁨도 봄과 가을을 함께 보내네.

諧似東方朔 詩憐沈隱肉 (向卿)

해사동방삭 시련심은육 (향경)

즐거움이 마치 동방삭(東方朔)과 같고,
시를 읊으니 심은(沈隱)의 문장이 떠오르네.

從容酬綵筆 枕藉錯花籌 (虎卿)

종용수채필 침자착화주 (호경)

속세의 욕심이야 넉넉히 감당할 만하고,
꽃잔을 기울이며 시를 주고받네.

春色歸田野 疎烟隱暮洲 (幼精)

춘색귀전야 소연은모주 (유정)

봄빛은 들판으로 돌아가고,
성긴 안개가 저녁 물가에 깔리는구나.

清貧非我病 窮約豈人尤 (巨卿)
청빈비아병 궁약기인우 (거경)

청빈이 내 탓이 아니니,
가난하다고 어찌 남을 원망하랴.

天地嗟吾老 江湖孰爾籌 (向卿)
천지차오로 강호숙이주 (향경)

하늘과 땅도 나의 늙음을 탄식하니,
세상의 큰일을 그 누가 자네만큼 도모할 수 있으리.

花明天氣暖 鳥轉樹陰稠 (虎卿)
화명천기난 조전수음주 (호경)

꽃은 피어나고 날씨는 따뜻하며,
새들은 나무 그늘 속에서 지저귀네.

豪興詩中酒 高調律裏謳 (幼精)
호흥시중주 고조율리구 (유정)

호기로운 시정엔 술이 따르고,
높은 곡조 속에서 노래가 울리네.

有書藏腹裏 無物到心頭 (巨卿)
유서장복리 무물도심두 (거경)

배움은 배속에 쌓였지만,
가슴을 울리는 것은 하나도 없다.

此夜詩情好 前川淑氣浮 (向卿)
차야시정호 전천숙기부 (향경)

이 밤, 시심이 참으로 아름답고 앞 시내에 맑은 기운이 감도네.

有懷頻拊劍 無事謾吟鷗 (虎卿)
유회빈부검 무사만음구(호경)

마음속에 그리움이 가득해 자주 칼을 어루만지고,
아무 일 없이 그저 갈매기 노래만 읊조리네.

逸翮連霄漢 清光射斗牛 (幼精)
일핵연소한 청광사두우(유정)

자유로운 날개는 하늘 높이 은하수를 잇고,
맑은 달빛은 북두와 견우별을 환히 비추네.

意中惟自適 分外更何求 (巨卿)
의중유자적 분외경하구(거경)

내 뜻대로 하면 그저 스스로 만족할 뿐,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구나.

且解相如渴 須開阮籍幹 (向卿)
차해상여갈 수개완적간(향경)

사마상여(司馬相如)의 갈증을 풀어주고,
阮籍처럼 통쾌히 취하고 싶구나.

豪情同偃仰 別意兩綢繆 (虎卿)
호정동언앙 별의양주무(호경)

호방한 기개로 앉고 서며 시를 나누니,
이별의 정이 더욱 애뜻하구나.

且莫催征馬 留連更唱酬 (幼精)
차막취정마 유련경창수(유정)

부디 떠나는 말을 재촉하지 마오,
머물러 더불어 노래와 시를 주고받고 싶소.



和李進士期應 壽天
화이진사기응 수천

天地英雄困春風
천지영웅곤춘풍

一短卻何人能我識
일단각하인능아식

今世與君同年已
금세여군동년이

里中老詩非吳下蒙
리중로시비오하몽

莫愁離別苦 無處更相逢
막수이별고 무처경상봉



이진사(李進士)에게 화답하며 기응(期應)에게 바치다

천지 간의 영웅도 봄바람 속에 시달리고,
한 번 꺾이면 누가 나를 제대로 알아보랴?

지금 세상에 그대와 나는 동갑이 되었고,
마을 속의 늙은 시인이지만, 오하몽(吳下蒙)과는 다르네.

이별의 고통을 근심하지 말지니,
다시 만날 날이 분명 있으리라.



次金幼精 若鍊 感先曆韻
차김유정 약련 감선역운

遺事人間字字愁 披來不覺淚先流
유사인간자자수 피래불각루선류

王春不改紅羅後 手澤尙新白馬秋
왕춘불개홍라후 수택상신백마추

蘭玉過庭孤露感 江山古宅寶編畱
난옥과정고로감 강산고택보편류

當時獎許吾偏荷 悅襲風儀前戚遊
당시장허오편하 황습풍의전척유

금유정(金幼精) 약련(若鍊)의 감회를 따라 선력(先曆)의 운에 화답하다

세상에 남겨진 옛일, 글자마다 서린 근심,
책장을 넘기니 절로 흐르는 눈물.

봄은 여전히 돌아와 봄은 비단은 곱건만,
손길 지나간 자취 새롭고, 흰 말은 가을 속에 사라졌네.

난옥(蘭玉)이 뜰을 지나가듯이 외로운 감회를 남기고,
강산의 옛 집에는 보배로운 기록이 남겨지네.

당시 칭찬과 격려를 내가 편중되게 입었고,
아득한 옛날, 풍채와 품격을 지닌 모습으로 친밀하게 어울려 지냈었지.



和山甫律 화산보율

君詩吟罷轉悽然 萬事推來總彼天
군시음파전처연 만사추래총피천

壯志騰騰騎竹日 流光丹丹懸車年
장지등등기죽일 유광임단현차년

心期自是同膠漆 花甲何曾較後先
 심기자시동교칠 화갑하증교후선
 沈約千秋先獲意 不堪分手柳陰邊
 심약천추선회의 불감분수유음변

산보(山甫)의 율시에 화답하다

그대의 시를 읊고 나니 더욱 서글퍼라,
 세상만사 밀려오는 것 모두 하늘의 뜻이로다.
 의기는 드높아 대나무 말을 타듯 솟구쳤고,
 세월은 붉게 타오르며 인생의 해를 매달았네.
 우리의 마음은 애초에 아교처럼 끈끈하거늘,
 예순이 되었어도 누가 먼저고 늦은들 어떠랴?
 진나라의 沈約도 천년 앞서 그 뜻을 얻었거늘,
 이별 앞에 선 내 마음, 버드나무 그늘 아래 애달프네.



贈幼精感舊懷 증유정감구회

主人迎我小溪亭 言笑依依有典刑
 주인영아소계정 언소의의유전형
 岸柳盆梅猶不改 談今話昔一燈青
 안류분매유불개 담금화석일등청
 終宵肝膽兩相傾 君我溪情異世情
 종소간담양상경 군아돌정이세정
 欲識此間奇絕處 試看明月印潭清
 욕식차간기절처 시간명월인담청

유정(幼精)에게 감회를 담아 보내다

작은 시내의 정자에서 주인이 나를 맞이하니,
담소 나누며 예의 바름이 본받을 만하구나.

강변의 버드나무와 화분 속 매화는 여전한데,
오늘을 이야기하고 옛날을 회고하니 등불만 푸르다.

온밤을 함께하며 간담을 터놓고 기울였으니,
그대와 나는 세상 정에 구애되지 않노라.

이곳의 절경을 정말 알고 싶다면,
그저 맑은 못에 비친 밝은 달을 보라.



李內兄 敏龜 回甲韻 이내형 민구 회갑운

蟠桃東海幾番春 今世惟君百福人
반도동해기번춘 금세유군백복인

白髮相携筵上老 青眸俱對意中親
백발상휴연상로 청모구대의중친

重經花甲身猶健 初度庚寅喜更新
중경화갑신유건 초도경인희경신

少第如今隄五十 笑將蕪語賀前茵
소자여금유오십 소장무어하전인

이내형 민구(敏龜)의 회갑을 축하하며

반도(蟠桃)는 동해에서 몇 번의 봄을 맞이했는가,
이 세상에서 오직 그대는 백 가지 복을 지닌 사람.

회갑 연석 위에 흰 머리 나란히 하였으나,
젊은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는구나.

다시금 꽃 같은 육십을 맞아 몸은 더욱 건강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경인년(庚寅)의 기쁨은 더욱 새롭네.

젊은 시절과 다름없는 기세로 오십을 넘었으니,
서투른 글이나마 웃으며 자리를 빛내어 축하하노라.



次棣華亭板上韻
차제화정판상운

君與溪山信有緣 巷南高處起新椽
군여계산신유록 향남고처기신연

一生清福菟裘晚 十里奇觀雲物娟
일생청복토구만 십리기관운물연

有約親朋乘月過 無心沙島近人眠
유약친붕승월과 무심사도근인면

最憐檻外常華樹 次第含香似去年
최련함외상화수 차제함향사거년

체화정(棣華亭)의 난간 위에서 운율을 맞추다

그대는 시냇물과 산을 벗 삼으니 진실로 운치 있도다,
남쪽 골목의 높은 곳에 새 기둥을 세우니 새로움을 더하네.

평생을 맑고 복된 삶으로 지내며,
저녁에는 가족옷 걸치고 십 리의 기이한 경관을 바라보네.

구름과 경치가 곱게 어우러지는 곳,
벗들과 달빛 아래 함께하는 약속이 있어라.

마음 비우고 모래섬 가까이에서 잠이 드니,
창가 너머 꽃나무가 차례로 향기를 머금음이 지난해와 다름없구나.



廣寺會中韻
광사회중운

偶從山寺得奇遊 簷外閒雲凍不流
우종산사득기유 첨외한운동불류
吾輩窮年無好事 名區豪興有高樓
오배궁년무호사 명구호흥유고루
燈懸夜榻頻分韻 更和晨鍾未解愁
등현야탑빈분운 경화신종미해수
愧我自非吟弄客 綿駒誰道變齊謳
괴아자비음롱객 면구수도변제구

광사(廣寺) 모임에서 운율을 맞추다

우연히 산사에 들어와 기이한 유람을 얻었는데,
처마 밖 한가로운 구름은 얼어 흐르지 않도다.
우리들은 평생토록 좋은 일 없이 보내었으나,
이 명승지에서 호기롭게 높은 누각에 올라보네.
밤이면 등불을 걸고 걸터앉아 운율을 나누고,
새벽 종소리가 울려도 아직 시름을 풀지 못하네.
부끄럽도다, 나는 시를 읊는 자가 아니니,
누가 가냘픈 망아지를 보며 옛 노래가 변했다고 하리요?

夢趙進士希道
몽조진사희도

夢裏相逢涕自流 覺來心緒轉悠悠
몽리상봉체자류 각래심서전유유
長衣廣袖惟依舊 青眼濃眉帶底愁
장의광수유의구 청안농미대저수

把酒細論詞賦體 臨流相送野田頭
과주세론사부려 임류상송야전두
孤魂莫是相息否 題罷新詩倚寺樓
고혼막시상식부 제파신시의사루

조진사 희도를 꿈에 보다

꿈속에서 만났더니 눈물이 흐르고,
잠에서 깨니 마음이 한없이 흐느낍니다.

긴 도포와 넓은 소매는 예전 그대로인데,
푸른 눈썹과 짙은 눈빛엔 그윽한 시름이 서려 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시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넋가에서 서로를 배웅하던 들판 끝이 떠오릅니다.

외로운 혼이여, 혹 그대는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는가,
새 시를 다 짓고 나니 절집 누각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登鳴玉臺 등명옥대

獨上千秋鳴玉臺 山高一半夕陽開
독상천추명옥대 산고일반석양개

無邊芳草為誰綠 依舊寒流瀉石來
무변방초위수록 의구한류사석래

好作後生觀感地 莫論詞賦等閒盃
호작후생관감지 막론사부등한배

可憐疾病擾人意 光景如今未盡迴
가련질병요인의 광경여금미진회

명옥대(鳴玉臺)에 오르며

홀로 오랜 세월을 넘은 명옥대 오르니,
산은 높아 저녁 해가 반쯤 열리네.

끝없이 펼쳐진 꽃다운 풀은 누구를 위해 푸르거나,
예전처럼 찬 물결만이 바위를 타고 흐르네.

종구나, 이곳은 후학들이 감동하며 바라볼 만한 장소로다.
시와 문장은 삶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니 술잔처럼 가벼이 여기지 말지어다.

애석하구나, 병고는 사람의 뜻을 어지럽히고,
세상의 광경은 아직도 다하지 않았건만.



次權松泉 瀨 月不遍照韻
차권송천 호 월불편조운

簾外清光大地遍 主翁休惜小聰昏
렴외청광대지편 주옹휴석소충혼
會須虛室將生白 一片心神到底寬
회수허실장생백 일편심신도저관

권송천 호의 "달빛이 온세상을 두루 비치지 않음"의 운을 따라

말 아래 맑은 달빛 온 누리에 가득하니,
주인은 사소한 지혜를 아쉬워하지 말지어다.

고요한 방을 마땅히 기다리면 맑은 빛이 솟아날 것이니,
한 조각 마음과 정신이 끝내 편안해질 것입니다.



挽柳三山淳伯 正原
만유삼산순백 정원

才德文章海內傾 嶺南推許柳先生
재덕문장해내경 영남추허유선생
玉堂金馬天恩重 叢石蓬萊葉履輕
옥당금마천은중 총석봉래엽리경
直諫不曾違素學 世人誰復識丹誠
직간불증위소학 세인수복식단성
卽今知己晨星盡 雪滿三山涕自橫
즉금지이신성진 설만삼산체자횡

유삼산 선생을 기리며

재능과 덕, 문장은 온 나라를 감동시켰고,
영남에서는 유 선생을 가장 높이 평가했네.

옥당(홍문관)과 금마문(문학관직)에 올라 임금의 은총은 무겁고 후했건만,
돌처럼 곧은 절개로 벽상(蓬萊)을 오르며 벼슬길에 얽매이지 않았네.
정직한 간언은 한 번도 그르치 않았고 그 순수한 학문은 세상에 다시 보기
어려웠지.

지금, 서로 아끼던 벗들은 새벽별처럼 다 사라졌고,
삼산(三山)에 눈이 가득하니 눈물만 흐르네.

次義卿月影臺韻
차의경월영대운

崔仙何似李謫仙 仙去臺空尙紫煙
최선하사이적선 선거대공상자연
千古精神惟有月 清光夜夜傷臺圓
천고정신유유월 청광야야상대원

의경 월영대(月影臺) 운을 따라 지음

최선은 어찌 이적선과 같으랴,
신선 떠난 자리엔 오직 자연의 자욱만이 남았네.

천 년의 정신은 다만 달빛에 깃들고,
그 맑은 빛이 밤마다 빈 누대를 감싸며 애잔히 비추네.



自慰 자위

七十人間此老翁 山林不欲換千鍾
칠십인간차로옹 산림불욕환천종
功名已付竿頭鯉 表節當看嶺上松
공명이부간두언 표절당간령상송
無限風流閒趣味 有時詩酒得從容
무한풍류한취미 유시시주득종용
文章只是吾家事 黃卷桑榆意自濃
문장지시오가사 황권상유의자농

스스로를 위로하며

일흔 평생을 살아온 이 늙은이,
산속 삶을 천 잔 술과도 바꾸고 싶지 않네.

공명(功名)은 이미 낚싯대 끝의 메기처럼 흘러보냈고,
절개는 마땅히 산마루의 소나무에서 보아야 하리.

한없는 풍류와 한가한 운치,
때로는 시와 술로 여유를 누리네.

문장은 본디 우리 집안의 일일 뿐,
누런 책자 속에 저녁 햇살의 뜻이 깊이 배어 있구나.



小兒獵魚 소아렵어

今年魚價高三月食無魚 每食不自飽亦乏園中蔬
금년어가삼월식무어 매식불자포역핍원중소

老妻謂兒子可往前溪漁 大兒持瓢去小兒折柳枝
노처위아자가왕전계어 대아지표거소아절류지

牕外日已斜兩兒來何遲 洗鼎燕虛火頻頻出門看
창외일이과양아래하지 세정연허화빈빈출문간

黃昏乃始至小苞如彈丸 一時去其腸催婢烹細鱗
황혼내시지소포여탄환 일시거기장취비팽세린

舉家饑啖罷月色窺坐茵 忽憶朱門人一生厭酒肉
거가참담과월색규좌은 홀억주문인일생염주육

飲食雖可樂憂患亦自足 何如無事人坐卧皆綽綽
음식수가락우환역자족 하여무사인좌와개작작

어린 아들의 물고기 잡기

올해는 물고기 값이 비싸 삼월이 지나도록 생선을 먹지 못하네.
매 끼니마다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정원 안의 나물(채소)도 또한 모자라구나.
아내가 아들에게 말하길 "앞 시내로 가서 고기를 잡아오너라."
큰아들은 바가지를 들고 가고 작은아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낚싯대로 삼네.

창밖에는 해가 벌써 기울었건만, 두 아이는 어찌 이리 더디게 오는가?
술을 씻고, 불을 지피며 문밖을 나가 기다려 보지네.

황혼 무렵에야 마침내 돌아오니,
작은 물고기들은 탄환처럼 작았고,
급히 내장을 제거하고,
하녀에게 재촉하여 잔비늘까지도 그대로 요리하게 하였다.

온 가족이 군침을 흘리며 맛있게 먹고 난 뒤,
달빛이 자리를 비추는 자리에 앉으니,
문득 붉은 대문 안 부유한 이들이 평생토록 고기와 술을 싫어하며 지낸다는 말이
떠오른다.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긴 하나,
근심과 고통 또한 피할 수 없고,
근심 없이 사는 평온한 사람의 삶만 못나 앓고 눕는 일이 모두 너그럽도다.



憶亡友趙進士希道 억망우조진사희도

於乎趙希道今為九泉人 欲說平生事悽然傷我神
어호조희도금위구천인 욕설평생사처연상아신

龜城始識君時維乙丑春 爲掃雙清堂邀我作佳賓
구성시식군시유을축춘 위소쌍청당요아작가빈

坐卧共一席詩書左右陳 肝膽不相隔言笑見天真
좌와공일석시서좌우진 간담부상격언소견천진

氣岸何脫畧風流迥出塵 自歎功名晚操觚事吟呻
기안하탈략풍류형출진 자탄공명만조고사음신

謙謙猶不足於我每問津 豈有絲毫補天成反子因
겸겸유부족어아매문진 기유사호보천성반자인

憐我寒契闊相對歎頻頻 囊粟又苞魚四年不憂貧
련아한계활상대탄빈빈 낭속우포어사년부우빈

有時蓮塘夜明月白似銀 好事難可人君歸漢水濱
 유시련당야명월백사은 호사난가인군귀한수빈
 東西五百里思想兩相均 有更必有書辭意自諄諄
 동서오백리사상량상균 유경필유서사의자순순
 常抱離索憂那知天不仁 知己今已歸一身悵無憐
 상포리색우나지천부인 지이금이귀일신창무련
 驚呼淚迸落蘭桂折爲薪 楊江何處是欲吊懷暫伸
 경호루병락란계절위신 양강하처시욕적회잠신
 臘月北風急踏雪龍門垠 星霜忽易逝宿草已蓁蓁
 략월북풍급답설룡문은 성상홀역서숙초이진진

忠之不可見掩淚詠白蘋
 충지부가견엄루영백빈

그리운 벗 조진사 희도를 추억하며

아아, 조희도는 이제 구천(九泉)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의 평생을 말하고자 하니 슬픔이 북받쳐 정신이 아득해진다.
 거북성(龜城)에서 그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을축년(乙丑年) 봄이었다.
 그때 그대는 쌍청당(雙淸堂)을 청소하고 단장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였지.
 함께 한 자리에 앉고 누우며, 시와 책을 양옆에 펼쳐두고,
 마음을 터놓아 서로 가리지 않았고,
 말과 웃음 속엔 진실함이 묻어났다.
 그대의 기개는 자유로워 거칠 것이 없었고,
 풍류는 세속을 훌쩍 벗어나 고아하게 빛났다.
 그대는 스스로 공명을 늦게 이뤘다며 한탄하였고,
 글을 짓고 시를 읊는 일조차도 겸손하게 여겨 부족하다고 말하였네.
 나는 늘 그대에게 길을 묻곤 하였지만,
 하늘을 메우는 듯한 그대의 재능에 내가 보탬 수 있는 것은 없었지.
 그대는 가난한 나를 가엾게 여겨,
 떨어져 지낼 때도 만나면 자주 한숨을 내쉬었네.

쌀을 싸주고, 생선도 담아주어, 4년 동안 나는 가난을 걱정하지 않았지.

어느 날 연못가에 달빛이 비추니, 은빛처럼 밝았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 맞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웠네.

그대는 한수(漢水) 가로 돌아갔지.

우리의 거리는 동서로 500 리에 달했지만,
서로를 그리는 마음은 똑같았네. 편지에는 반드시 작별의 글이 담겨 있었고,
그 뜻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웠지.

나는 항상 이별의 외로움과 근심을 안고 살았는데,
어찌 하늘이 이토록 무정하단 말인가.

지금 지기(知己)는 이미 떠났고, 남은 나 홀로 애통할 뿐이네.

놀라 소리치며 눈물이 쏟아지니, 난초와 계수나무 같은 인재가 꺾여 장작이
되었네. 양강(楊江)은 어디에 있는가,
조문하고픈 마음을 잠시라도 펼치려 하네.

지금은 선달(臘月), 북풍은 매섭고 눈을 밟아야만 용문(龍門) 언덕에 닿을 수 있네.
세월은 별과 서리처럼 덧없이 흘렀고, 그대가 묻힌 풀밭엔 벌써 풀이 무성하구나.

충직한 그대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기에, 눈물로 얼굴을 가리며
흰마름꽃(白蘋)을 읊는다.

與金正言巨卿 金持平虎卿 朴進士來章酬
여김정언거경 김지평호경 박진사래장수

김정언 거경(金正言 巨卿), 김지평 호경(金持平 虎卿),
박진사 내장(朴進士 來章)과 주고받은 시

唱(창)

兩八中庭漲欲波 客愁如草夜來多
양팔중정창욕파 객수여초야래다

鳩嫌羽濕藏濕樹 牛為毛寒卧小坡
구협우습장습수 우위모한와소파

麥事關心天已戲 村醪引興我猶歌
맥사관심천이희 촌료인흥아유가

莫歎淹滯連三日 相送明朝棧水涯
막탄엄체연삼일 상송명조정수애

莫歎淹滯連三日 相送明朝帳水涯
막탄엄체련삼일 상송명조장수애

노래하다 (唱)

중정(中庭)에 이는 물결 높아질 듯,
밤사이 손님 시름 풀처럼 돌아 많아라.

비둘기는 깃털이 젖는 걸 싫어 젖은 나무에 숨고,
소는 털이 추워 작은 언덕에 웅크리네.

보리 농사 마음 쓰이건만, 하늘은 여전히 장난을 치네.
마을 술이 나를 부르니, 여전히 노래하노라.

탄식 말지어다, 이곳에 머문 지 사흘이 되었으니.
내일은 물가에서 그대를 작별하리라.

過金烏山 과금오산

一髮金烏面面危 依微遠霧欲開時
일발금도면면위 의미원무욕개시

關防國有山城險 名卽江溪砥柱碑
 관방국유산성험 명즉강탁지주비
 天近巖頭秋雪早 路橫山背客鞭遲
 천근암두추설조 로횡산배객편지
 自憐浮世無閒界 始向名區一賦詩
 자련부세무한계 시향명구일부시

금오산(金烏山)을 지나며

한 가닥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섬은 희미한 안개 속에 위태롭게 떠 있고,
 안개가 조금 걷히려는 그 순간, 멀리서 그 모습이 아련히 드러난다.

나라의 국방은 험한 산성에 기대고 있으니, 그 이름은 곧 강물 속 솟은
 '탁수(溪水)의 지주(砥柱)'에 새겨진 바위 비석과도 같도다.

바위 끝에 서니 하늘이 가깝고, 가을 눈은 벌써 내리기 시작하는구나.

산등성이를 가로지르며, 여행객의 채찍마저 더디니라.

덧없는 세상살이 속에 한가로움이 없었으나, 이제야 비로소 명승지에 와 시 한 수
 읊노라.



過檜淵書院 과회연서원

夫子祠堂歲暮尋 百梅千竹眼中森
 부자사당세모심 백매천죽안중삼
 橋頭水石猶前色 壁裏琴書闕古音
 교두수석유전색 벽리금서비고음
 經術千年開繼責 儒林百世敬尊心
 경술천년개계책 유림백세경존심

大碑文字斑斑在 不覺清風襲兩襟
대비문자반반재 불각청풍습양금

회연서원을 지나며

스승의 사당을 해 저무는 계절에 찾으니,
백 그루 매화, 천 그루 대나무가 눈앞에 우거졌구나.

다리 아래 흐르는 물과 바위는 예전 그대로이고,
벽 안의 거문고와 서책은 옛 소리를 간직했도다.

경전과 학문은 천 년을 두고 이어질 책무를 열어주고,
유림(儒林)은 백대를 지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간직했네.

큰 비석 위의 글씨는 세월에 닳아 희미하지만,
맑은 바람이 두 소매를 스치니 절로 경건해지는구나.



過伽倻山德脩寺 과가야산덕수사

釋子何清福 終身老此中
석자하청복 종신로차중

烟霞生寢席 笙笛聞仙童
연하생침석 생적선동풍

水有新羅響 松雷道士風
수유신라향 송류도사풍

飄然巖上坐 爽氣洗塵胷
표연암상좌 상기세진흉

가야산 덕수사(德脩寺)를 지나며

속세 떠난 이 어찌 이리도 맑고 복된가,
평생토록 이곳에서 늙어가니라.

안개와 노을은 침상에서 피어오르고,
피리와 생황 소리에 신선동자가 들려오는 듯하네.

시냇물은 신라의 옛 소리를 머금고,
술바람은 도사의 기운을 실어 나르네.

가볍게 바위 위에 앉으니,
맑은 기운이 온몸의 숙된 때를 씻어 주는구나.



過學士基 과학사기

曲曲之溪疊疊巒
곡곡지계첩첩만

孤雲遺蹟白雲間
고운유적백운간

雞林鵠嶺今何處
계림곡령금하처

惟有東韓第一山
추유동한제일산

학사기(學士基)를 지나며

굽이굽이 흐르는 시내와 겹겹이 쌓인 봉우리,
외로운 구름은 옛 자취를 흰 구름 속에 감추었네.

계림(雞林)과 학령(鵠嶺)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
다만, 이곳이 동한(東韓)의 첫 번째 산임을 새길 뿐.



晉陽矗石樓
진양축석루

至今呜咽晉江流 鼓角寒聲動晚洲
지금오열진강류 고각한성동만주
血染嬌花留翠壁 名高壯士出危樓
혈염교화류취벽 명고장사출위루
悠悠沙鳥無邊景 漠漠湖山不盡愁
유유사조무변경 막막호산불진수
形勝正如控制地 兩營休作等閒遊
형승정여제지지 양영휴작등한유

진양 축석루(晉陽矗石樓)

지금도 진강(晉江)은 흐느끼며 흐르고,
북소리와 나팔 소리 늦은 저녁 물가를 뒤흔드네.

붉게 물든 꽃은 푸른 벽에 흔적을 남기고,
높은 이름은 위태로운 누각에서 장수들과 함께 빛나네.
아득히 떠도는 모래섬의 새들, 끝없는 풍경 속을 날고,
희뿌연 호수와 산빛은 다하지 않는 시름을 더욱 자아내네.

형승(形勝)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방불케 하니,
두 군영(營)은 결코 이곳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贛朴上舍季方思義行
신박상사계방사의행

十載相逢兩不衰 尋常離別易前期
십재상봉양불쇠 심상이별이전기
明朝欲向宜春去 夢入南樓月白時
명조욕향의춘거 몽입남루월백시

박 상사 계방이 의로운 길을 떠남을 전송하며

십 년이 지나 다시 만나도 변함이 없고,
이별이야 익숙하지만, 이번만큼은 전보다 쉽지 않구나.

내일이면 의춘(宜春)으로 떠난다 하니,
꿈속에서나마 남루(南樓)의 하얀 달빛을 보리라.



過大笑軒趙先生 宗道 舊里
과대소헌조선생 종도 구리

先生忠義更詐倖 防禦高山亦小丘
선생충의경사모 방어고산역소구

村後有防禦山削立天仗 惟有夫人能匹美
촌후유방어산삭입천장 유유부인능필미

千秋雙耀南州
천추쌍요남주

대소헌(大笑軒) 조 선생 종도(趙先生 宗道)의 옛 마을을 지나며

선생의 충성과 의리는 거짓됨과는 더욱 견줄 수 없고
방어를 맡은 높은 산도 오히려 작은 언덕 같도다.

마을 뒤에는 수직으로 깎인 방어의 산이 하늘을 버티듯 서 있고
오직 부인만이 그 기개와 아름다움을 짝할 수 있네.

천추에 걸쳐 두 분은 함께 남쪽 고을을 빛내시리라.



過西山六臣書院
과서산육신서원

莫將生苑且論人
막장생원차론인

萬古同歸十二臣
만고동귀십이신

薇蕨更生箕子國
미세경생기자국

首陽山色幾回春
수양산색기회춘

서산(西山) 육신서원(六臣書院)을 지나며

세속의 정원(생원)에 머물러 사람을 논하지 말라,
만고에 걸쳐 열두 신하 모두 같은 길로 돌아갔으니.
고사리와 고비는 다시 자라나는구나,
기자가 은거했던 그 땅에서,
수양산의 푸른 빛은 몇 번이나 봄을 다시 맞았는가.
(그 절개는 지금도 봄빛처럼 이어지고 있다)



嶺南樓次板上韻
영남루차판상운

地迴樓高八半天 眼窮南極更無前
지형루고팔만천 안궁남극경무전

疎簷百尺層崖上 清磬千年古寺邊
소황백척층애상 청경천년고사변

水氣連雲遙似雨 野塵籠樹自生煙
수기연운요사우 야진롱수자생연

一遊浮世知難得 何用官人錦繡筵
일유부세지난득 하용관인금수연

영남루(嶺南樓)에서 판상운(板上韻)에 차운하여

땅은 아득하고 누각은 높아 하늘에 반쯤 닿았으니,
눈길은 남쪽 끝까지 미치니 앞이 가로막힐 리 없네.

성긴 대숲은 백 척 절벽 위에 서 있고,
청아한 경쇠 소리는 천 년 된 고찰 곁에서 들리네.

물기운이 구름과 맞닿아 멀리서 비처럼 느껴지고,
들판의 먼지는 나무를 감싸며 스스로 연무가 되네.

한 번의 유람, 속세에서는 얻기 어려운 일이니,
어찌 벼슬아치의 비단 연회를 부러워하리오.



過佔畢齋故里見神道碑有感 과점필재고리견신도비유감

天降先生似有為
천강선생사유위

經綸未展禍機隨
경륜미전화기수

嗚呼一片螭頭石
오호일편치두석

留作千秋下馬碑
유작천추하마비

점필재(佔畢齋) 옛 고향을 지나 신도비(神道碑)를 보고 감회를 느끼다

하늘이 선생을 내리심은 마땅히 뜻이 있었거늘,
그 재능 펴기도 전에 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네.

아, 슬프도다! 한 조각 이무기 머리 새긴 돌만 남아,
천 년이 지나도 말에서 내려 경배할 비석이 되어있구나.



行到宜寧和黃聖徵 羽漢 韻
행도의녕화황성징 우한 운

江關歸意政悠悠 冷店疎燈照客愁
강관귀의정유유 냉점소등조객수

萊海吾憐窮日去 晉陽君得盡情遊
내해오련궁일거 진양군득진정유

卽今宇宙無餘地 何處湖山有古樓
즉금우주무여지 하처호산유고루

明到達城能半道 孤鞭只恃一殘駒
명도달성능반도 고편지시일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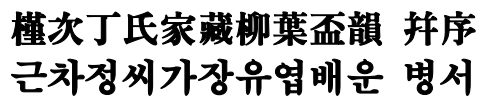
宜寧(의령)에 이르러 황성징(黃聖徵)의 ‘우한(羽漢)’ 운에 화답하다

강과 산을 지나니 돌아갈 뜻 한없이 아득하고,
찬 여관의 드문드문한 등불이 나그네의 시름을 비추네.

나는 빈곤한 나날을 걱정하며 진양(晉陽)으로 가지만,
그대는 마음껏 즐기며 여행을 떠나는구려.

지금 온 우주에 남은 땅이 없다 하니,
어느 호수와 산에 옛 누각이 있을까.

내일 달성(達城)에 반쯤 달을 수 있겠지만,
홀로 가는 외로운 채찍,
기댈 것은 이 한 마리 파김치 된 말뿐이라네.



삼가 丁氏 가문의 가보인 유엽배(柳葉盃)를 보고 지음 (서문 포함)

아아! 초(楚)나라의 검이 사라지고, 사수(泗水)에 빠진 술도 아득히 들을 수 없으며, 은(殷)나라의 자수(黼黻)와 노(魯)나라의 예복(縫掖)도 이제는 곤명(昆明)의 재로 변하였도다.

대명(大明) 300 년의 문물 또한 황하 이북에서는 더 이상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도다. 아름다운 문명은 우리 조선 왕조에서 드러나니 오직 조종문(朝宗門) 밖의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서만 아름다운 유물이 남아 있구나.

丁氏 가문에서는 만력제(萬曆帝)께서 하사하신 유엽배(柳葉盃)를 간직하고 있으니, 이는 황제의 직접적인 하사품이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 그 형태를 살펴보니, 잎사귀처럼 생겼으므로 유엽배(柳葉盃)라 불리는 것이로다.

처음 丁氏의 선조이신 관찰사(觀察公)께서 궁정에서 이 잔을 하사받았을 때, 천자께서는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가상히 여기시어 친히 하사하셨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천자의 창고에 가득한 여러 물건 중의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였을 뿐이다.

이제 그 잔을 지니고 동쪽으로 돌아오니, 한때의 영광이며 가문의 보물이 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천하의 보물이 이리저리 떠돌고, 황하를 건너 동서 두 경(京)의 값진 유물도 모두 오랑캐의 손에 넘어갔거늘, 오직 丁氏 가문의 이 유엽배(柳葉盃)만이 만력제의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도다.

이에 나는 丁氏의 7 대 후손에게 말하였노라.

“그대의 가문에서 이 잔을 지킨 지 이미 수백 년이 되었으니, 이는 단순히 자손이 어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늘이 명나라의 기물을 보존하려 했던 것이라.

그렇다면, 이 잔을 우리 임금께 바쳐 대보단(大報壇)의 제사 기물로 쓰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丁熙(丁氏 후손)는 말하였다.

“비록 이 잔이 황조(皇朝)의 물건이라 하나, 우리 선조께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셨으니, 이를 사묘(祠廟)에 바친다면 이는 곧 우리 가문의 사적인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니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나는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부디 열 번을 전해도 변함없이 지켜서, 이 빛이 하늘의 별자리처럼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라.

혹시라도 중원의 기운을 점치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렵구나.”

슬프도다!

주천(酒泉)에는 아직도 이것이 남아 있으나, 동쪽에는 화산(花山)의 찬란한 빛이 있고, 북쪽에는 귀정(龜亭)의 의로운 뜻이 전해지니,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 명나라의 유물이로다.

세 고을이 서로 이웃하여 술밭처럼 버티고 있거늘, 하늘이 어찌하여 영남(嶺南)을 명나라의 동방(東方)으로 삼았는가?

뜻 있는 자들이여, 어찌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있겠는가!

나 또한 명나라의 유민이기에, 이에 감회를 품고 이 글을 남긴다.



說以識之仍和原韻

설이식지잉화원운

玉爵携來憶聖皇 西夷攸貢寵東方
옥작휴래억성황 서이유공총동방

煌煌不改千年色 葉葉猶含萬曆香
황황불개천년색 엽엽유함만력향

無復中州餘舊物 幸從華表見遺藏
무복중주여구물 행종화표견유장

煩君世守長無缺 泛以東籬秋菊黃
번군세수장무결 핍이동리추국황

"설(說)하여 인식하게 하며, 다시 원운(原韻)에 화답하다"

옥잔을 들고 와 성스러운 임금을 추억하니,
서방 오랑캐도 조공을 바쳤고 동방은 충애를 받았도다.

찬란한 빛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나뭇잎 같은 잔에는 여전히 만력제의 향기가 깃들어 있구나.

이제 중원에는 예전의 유물이 남아 있지 않건만,
다행히 이 화표석 아래에서 그 귀중한 전물을 다시 보게 되었네.
부디 그대여, 이 보물을 대대로 지켜 영원히 손상됨이 없게 하라.
마침 동쪽 율타리엔 가을 국화가 노랗게 피었으니,
그 향기 속에 띄워 감상하노라.



挽蝕翁丁正和 志翁
만식옹정정화 지옹

萬事人間老淚垂
만사인간로루수

峨洋一曲更誰知
아양일곡갱수지

可憐昌浦分携日
가련창포분휴일

華表千年化鶴時
화표천년화학시

식옹(蝕翁) 정정화(丁正和) 지옹(志翁)을 추모하며

세상만사가 덧없어져, 인간 세상에서 눈물만 흐르니,
힘준하고 넓은 물결 같은 생애 한 곡조, 또 누가 알아줄까.
가없도다, 창포(昌浦)에서 갈라지던 그날의 이별이여,
화표석 아래 천 년이 지나, 그대는 학이 되어 하늘로 갔구나.



哭權子和 變 곡권자화 십

子和乎向何之 風蕭蕭兮神馬躑躅 子隨父分同時發 爾妻山頭欲化石
자화호향하지 풍소소혜신마척축 자수부분동시발 이처산두옥화석

不用人間樹福德 今胡為乎兩丹旌 石串老樹知無數 鵲在枝頭 不堪聽生
불용인간수복덕 금호위호양단선 석천노수지무수 견재지두 불감청생

爲寄乎死為歸 父子相依應不悲 生者但知人間樂 啼復啼分淚垂垂日暮
위기호사위귀 부자상의응불비 생자단지인간락 제복제분루수수일모

沙頭雞上埵兩殯寂寂 無人吊朝暮 弱婦來奠食幼兒不知啼又笑 常棣枝上鵲鳥戢左翼
사두계상시양빈적적 무인적조모 약상래전식유아부지제우소 상체지상척조집좌익

兮愁不飛愁不飛 可奈何 晨歌一曲兮露欲晞 雲淫淫兮夜漫漫 新墳峨峨兮山之阿
혜수불비수불비 가내하 신가일곡혜로옥희 운음음혜야만만 신분아아혜산지아

悲來乎 從此紅峴不忍過
비래호 종차홍현불인과

권자화 십의 죽음을 슬퍼함

자화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쓸쓸한 바람 불고, 신령한 말은 거칠게 발굽을
멈춘다. 너는 아버지를 따라 함께 세상을 떠났고, 네 아내는 이제 산등성이에서
돌이 되려 한다.

세상에서 복덕을 쌓을 새도 없이, 어찌서 이토록 빨리 두 붉은 영혼이 떠났는가?
석쇄의 오래된 나무는 썬 수 없이 많고, 가지 위의 두견새 소리는 차마 듣기
힘들다.

죽음으로 귀의하는 것이 곧 안식처였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의지하였으니,
이젠 슬프지 않겠지. 하지만 산 자들은 그저 세상의 괴로움만을 안다.
울고 또 울며, 눈물은 흐르고, 해는 저문다.

모래톱 위 닭이 우는 닭장 곁, 두 관은 적막히 놓여 있고, 아무도 아침저녁으로
조문하지 않는다. 약한 과부가 제삿밥을 차리고, 어린 아이는 울 줄도 모르고,
웃기만 한다.

상화나무 가지 위의 피꼬리는 날개를 접고, 근심에 날지 못하고 또 날지 못한다.
이를 어찌하랴. 새벽의 노래 한 곡, 이슬은 마르려 하고 구름은 자욱하고, 밤은
끝이 없다.

새 무덤은 산 기슭에 높이 솟아 있고, 슬픔이 밀려온다. 이제부터는 저 붉은
고개(紅峴)조차 차마 다시는 지나가지 못하겠구나.



憶鄭虛菴先生 希良
억정허암선생 희량

我憶先生政可悲 才何出世命何違
아억선생정가비 재하출세명하위

關山鴨水吟蘭日 壬戌端陽棄屣時
관산압수음란일 임술단당기사시

天地無窮容不得 江湖有分獨留詩
천지무궁용불득 강호유분독유시

精神卷裹如相對 字字含辛似楚辭
정신권과여상대 자자함신사초사

정 허암 선생 희량을 추억하며

나는 선생을 생각하며 애통하네, 어찌 그 뛰어난 재능이 세상과 엇갈렸던가.
산과 강을 떠돌며 난초를 읊조리던 그 날들, 임술년 초여름, 덧없이 속세를
버리셨네.

하늘과 땅은 끝이 없어도 당신을 품지 못했고, 강호에는 인연이 남아 시를 머물게
했구나.

정신은 책 속에 갇들어 여전히 곁에 있는 듯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애절함이
스며, 마치 초사의 슬픔 같네.



雨中偶吟

우중우음

溪山風雨自何攢 燭盡難謀不夜城
계산풍우자하광 축진난모불야성
髮短形衰嫌對鏡 眸昏書廢愧親檠
말단형쇠혐대경 모혼서폐괴친경
離愁似草從無出 歸夢如花待結生
이수사초종무출 귀몽여화대결생
對案莫歎滋味薄 世間貧富不殊驚
대안막탄자미박 세간빈부불수경
綠陰芳草更堪憐 張緒風流非少年
녹음방초경감련 장서풍류비소년
莫道棲遑無樂地 且將身世聽蒼天
막도서황무락지 차장신세청창천
書稀斗浦惟憑夢 人阻龍山獨撫絃
서희두포유빙말 인조용산독무현
萬事違心難可恃 江湖舊約恐無堅
만사위심난가시 강호구약공무견

비 오는 날 우연히 읊다

계곡과 산에 불어닥친 바람과 비는,
어디서 와 이리 뒤흔드는가.
촛불은 다 타버렸고,
밝은 도시로 나아갈 길은 막막하구나.

머리는 짧아지고, 몸은 쇠약해져,
거울 앞에 서기도 민망하고,
눈은 흐려 책도 못 읽으니,
등잔 앞에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별의 시름은 마치 풀처럼 끊임없이 돌아나고,
돌아가는 꿈은 꽃처럼 피기를 기다린다.

책상 앞에 앉아 맛없는 인생을 한탄하지 말라,
 세상살이의 부귀와 가난도,
 놀라움에는 다름 바가 없으니.

푸르른 그늘과 향기로운 풀,
 더욱 애뜻하건만,
 장서(張緒)의 풍류도 이제는 소년 시절이 아니로다.

설 곳이 없다고 해서 즐거움 없는 것은 아니니,
 한 몸과 인생을 하늘의 뜻에 맡길 따름이라.

두포에서의 편지 드물어 오직 꿈에 의지하고,
 용산으로 가는 길은 끊겨 나는 홀로 거문고를 타네.

세상사 마음대로 되는 일 없어 믿을 것도 어렵고,
 강호에서 나눈 옛 약속도,
 이제는 굳건치 못할까 두렵구나.



漢帝以周公負成王圖賜霍光輔幼主
 한제이주공부성왕도사곽광보유주

六尺幼冲意綿纏 周公遺事詔龍眠
 육척유충의면전 주공유사조용면

奇徵已驗開拳日 後意先占錫號年
 기징이험개권일 후의선점석호년

丕德豈曾追古聖 弗陵猶可比前賢
 비덕기증추고성 불릉유가비전현

黃河一幅輸都尉 背負嗣王永配天
 황하일폭수도위 배부사왕영배천

한나라 황제가 어린 성왕을 보필한 주공을 본보기로 삼아,
 곽광에게 어린 군주의 보좌를 명하다

여섯 자 어린 황제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주공의 옛 이야기를
용면(龍眠)에게 전하라는 조칙이 내려졌다.

기이한 징조 이미 드러나니,
주먹을 펴고 천하를 열 날을 미리 점쳤도다.

큰 덕을 어찌 옛 성인을 쫓아 이루랴,
불릉릉(弗陵)의 임금과도 비길 수 있으리라.

황하의 한 폭 그림이 도위(都尉)에게 전해지니,
어린 왕을 업고 하늘과 함께 할지어다.



祖狄擊楫誓江 조적격증서강

忠義平生士雅心 孤舟今日大江臨
충의평생사아심 고주금일대강림

百年文物嗟傾蕩 千里山河盡陸沈
백년문물차경탕 천리산하진륙침

自許將清天下計 新盟令與此流湫
자허장청천하계 신맹령여차류돌

未平河北吾無渡 桂棹分明質我枕
미평하북오무도 계도분명질아침

조적이 노를 치며 강에서 맹세하다

충의로 한평생을 살아온 선비의 고결한 뜻,
오늘 외로운 배 한 척으로 큰 강가에 서 있네.

백 년을 이어온 문물은 허망하게 기울고,
천 리 산하도 모두 침몰하듯 사라지는구나.

스스로 천하를 평정할 계책을 세우고,
 새로운 맹약을 맺으며 흐르는 강물에 외치도다.
 하북 땅이 평정되지 않으면 나는 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
 계수나무로 만든 노는 분명히 나의 진심을 증명하리라.



唐太宗作七德舞
 당태종작칠덕무

旄鉞煌煌定兩京 太平天子坐明堂
 모월황황정양경 태평천자좌명당
 形容至德登朱巖 想像成功叶玉笙
 형용지덕등주슬 상상응공협옥생
 武亂能迫元聖舞 廣張猶與洞庭爭
 무란능추원성무 광장유여동정쟁
 鄭公不見存深意 却恐文治或未明
 정공불견존돌의 각공문치혹미명

당 태종이 ‘칠덕무(七德舞)’를 지으며

창검 깃발과 월도는 찬란히 빛나, 두 수도의 평정을 이뤘고,
 태평성대의 천자는 밝은 전각(明堂)에 좌정하셨도다.

고결한 덕은 붉은 비파에 담겨 형상화되고,
 전장의 무공은 옥피리 소리 속에 어우러지는구나.

무용으로 어지러움은 진압하되, 옛 성왕의 춤을 따랐고,
 그 웅대한 펼침은 마치 동정호(洞庭湖)와도 다름 만큼 넓도다.

정공(鄭公)은 이 정신의 흐름을 보지 못했으니,
 문치(文治)가 혹 미쳐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두렵구나.



長孫皇后朝服立庭
장손황후조복립정

翟茀如何降貴尊 我心先釋感嬋媛
적불여하강귀존 아심선석감선원
難容直氣增形色 受諫明時進賀言
난용직기증형색 수간명시진하언
文母周家寧獨美 塗山夏範可同門
문모주가녕독미 도산하범가동문
壺儀自是唐家慶 淑德端爲百福源
곤의자시당가경 숙덕단위백복원

장손황후(長孫皇后)가 조복(朝服)을 입고 뜰에 서다

翟茀(적불)의 문양은 어찌 이리 귀한 위엄을 내리셨는가?
내 마음 먼저 감격하여, 현숙한 자태에 경의를 표하노라.

강직한 기개가 모습에 깃들여,
어진 임금의 곁에서 간언을 받아들이니 더욱 빛나도다.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가 홀로 아름다웠겠는가?
하나라의 도산(塗山) 또한 같은 길을 걸었으리라.

궁중의 법도가 당나라의 경사(慶事)가 되었고,
그 맑고 어진 덕은 백복(百福)의 근원이로다.



杜甫寓成都
두보우성도

平生辛苦似浮萍 天下艱危子獨丁
평생신고사부평 천하간위자독정
吳楚無家悲老拙 夔巴移寓感飄零
오초무가비로졸 규파이우감표령

傷時涕淚愁花鳥 愛主精忠皎日星
 상시체루수화조 애주정충교일성
 蕭瑟原曠兼庾賦 十篇秋興感千齡
 소슬원험겸유부 십편추흥감천령

두보(杜甫) 성도(成都)에 머물다

평생을 떠도니 부평초 같고,
 천하는 어지러운데 그대 홀로 고난을 겪네.
 오(吳)와 초(楚) 땅에 의지할 집도 없으니,
 노쇠한 몸, 기파(夔巴) 땅으로 떠돌아가네.
 이리저리 떠도는 삶에 서러움이 가득하고,
 꽃과 새마저 시절을 슬피하는 듯하구나.
 임금을 향한 충정은 해와 별처럼 밝건만,
 쓸쓸한 마음은 庾信의 시처럼 깊구나.
 가을의 정취 열 편의 시에 담긴 그 감흥은,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무치는구나.

裴晉公綠野堂

배진공녹야당

社稷之臣將相良 功成身退出吾唐
 사직지신장상량 공성신퇴출오당
 淮西粲粲中興業 天下巍巍綠野堂
 준서찬찬중흥업 천하외외녹야당
 片石留名千古迥 孤舟垂釣一身康
 편석유명천고형 고주수조일신강
 文昌豈識裴公德 吏部文章獨闡光
 문창기식배공덕 이부문장독천광

배진공(裴晉公)의 녹야당(綠野堂)

나라의 기둥이 되어 장수와 재상의 훌륭한 공을 이루고,
몸을 빼어 우리 당나라를 떠났네.

준서(淮西)의 찬란한 중흥 사업이여,
천하에 우뚝 솟은 녹야당(綠野堂)이여.

한 조각 돌에 이름을 새겨 천고에 빛나고,
외로운 배에 낚시를 드리우니 온몸이 편안하네.

문창성(文昌星)이 어찌 배공(裴公)의 덕을 알라,
이부(吏部)의 글은 홀로 빛을 말하네.



葬兒後悲思轉重遂成一絕

장아후비사전농수성일절

思之無益又何思
사지무익우하사

以此寬心擬不思
이차관심의불사

一念忽從愁處起
일념홀종망초기

此生於世永思思
차생어세영사사

자식을 묻은 뒤 슬픔이 더 깊어져 결국 한 수의 절구를 짓다

생각한들 아무 소용 없다면, 다시 무엇을 생각하랴.
이렇게라도 마음을 다스려, 차라리 잊자 다짐해본다.

그런데도 한 생각, 불현듯 한에서 솟아나니,
이 생에 살아 있는 한, 나는 끝내 그대를 그리워하리라.

題義妓論介碑
제의기논개비

劍氣如霜四面圍
검기여상사면위

蒲城男子不知歸
포성남자부지귀

雲鬢獨向樓中立
운환독향루중립

誰識奇功出綠衣
수식기공출녹의

의기(義妓) 논개비(論介碑)에 題하다

검의 기운 서릿발처럼 사방을 감싸고,
포성(蒲城)의 사내들은 돌아오지 못했네.

구름 같은 가채를 하고 홀로 누각에 서니,
누가 알리오, 푸른 옷 속에 숨은 그 기개를.

書 서



與李善之 性源 여이선지 성원

夏初獲覩寵翰 私心喜 幸卽以數百言遠謝厚賜 更無聲息 意者未達矣
하초획도충한 사심희 행즉이수백언원사후사 경무성식 의자미달의
不審邇者省下鍊玉 一向清裕否
불심이자성하련옥 일향청유부
秋意已高千里思想實非可堪 奈何弟無可言者 日日所得只是鬢上華髮
추의이고천리사상실비가감 내하제무가언자 일일소득지시빈상화발
百事每爲一退字所制 自憐而已
백사매위일퇴자소제 자련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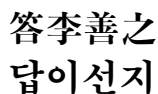
이선지(李善之) 성원(性源)에게

여름 초입에 드디어 귀하의 귀한 편지를 받아 보게 되어, 감히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이에 수백 자의 글로 멀리서나마 두터운 은혜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는데, 그 뒤 아무런 회신이 없으니, 혹시 편지가 미처 도착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근래에 귀하는 잘 지내시는지요? 궁중(또는 관가)에서 옥을 단련하듯 스스로를 닦고 계시며, 예전처럼 맑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미 가을 기운은 높이 올라, 멀리 떨어진 천 리 밖에서도 그리움이 더욱 깊어갑니다. 그러하나, 이 아우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날마다 얻는 것이라곤 머리에 늘어나는 흰머리뿐입니다.

모든 일에 늘 '물러섬'이라는 한 글자에 얽매어, 그저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나는 여전히 서쪽 교외에서의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때때로 서책을 펼쳐 읽으며 대면할 기회에 대비하고 있소.

이제 다시 소식을 전해주시니, 나를 잊지 않는 두터운 정을 느끼며 더욱이 봄기운이 완연한 이때 그곳에서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 더욱 궁금하구려.

나 또한 과거(科擧)를 준비하던 시절, 조령(鳥嶺)까지 가보았으나 도중에 끝내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소.

이는 앞길이 너무 험난하여 발 디딜 틈조차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오. 대저 높은 식견을 지닌 그대는 내가 이렇게 궁색하고 난처한 처지에 놓인 것을 알지 못하실 터이니, 괜한 염려만 끼쳐드린 것 같아 그저 감사할 따름이오.

편지에 쓰인 ‘퇴도(頹惰)’라는 두 글자는 정말 의외였소.

생각건대, 그대의 뛰어난 재주라면 과거 급제 따위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이토록 여러 번 좌절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마도 하늘이 그대를 한낱 과거 급제자로 끝내지 않고 더 큰 인물로 단련하고자 하는 뜻이 아닐까 싶소.

그러니 어찌하여 서쪽 교외(西郊)의 수련을 더욱 힘써 실천하지 않겠소? 이는 바로 어느 책에서 읽었던 “공부에 힘쓰라”는 가르침과 같은 것이 아니겠소?

더욱이 동쪽으로 떠나는 일도 결코 허투루 생각할 일이 아니오.

속인이 아는 바에 따르면, 그대의 문장은 뛰어나지만 신선의 세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오.

나는 그대가 혹여 절령(壑嶺) 동쪽에서 멈춰 서 만 이천 봉우리 위로 오르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러나 동쪽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반드시 팔경(八景)을 두루 감상한 뒤에야 비로소 완전한 여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오.

예전에 《유산일록(遊山一錄)》을 지은 자가 자랑스럽게 기록을 남겼으나, 그대는 아직 그만큼의 경지를 이르지 못하였소.

그러니 이번 여행에서는 부디 그 모든 경치와 아름다움을 한 자루의 주머니에 가득 담아 돌아오시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소백산(小白山)을 마주한다면, 어찌 사마천(司馬遷) 같은 인물들이 그대를 대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소?

그렇다면 나는 먼저 귀로(歸路)에서 그대를 맞이하여, 그대가 본 경치의 나머지를 들으며 집을 나서지 않고도 관동(關東)의 여행을 누리는 것과 같을 것이오.

한편, 이번 과거(科擧)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속된 세상의 일이니, 낙사(洛社)에서 마주 앉아 차분히 논의해 봄이 어떻겠소?



與李稷山仁仲 여이직산인중

足下遭慘憾未多日 僕入校中纔咫尺 猶有所忌不敢進慰 每見南來人必問足下聲息
족하조참감미다일 복입교중재지척 유유소기불감진위 매견남래인필문족하성식

多言足下自理玉以後 忽忽如癡或跨馬逍遙 以瀉悲鬱信然乎 蓋其中有至不堪者
다언족하자리옥이후 총총여치혹과마소요 이사비울신연호 개기중유지불감자

冷語慰悲正如無病者 不知人痛處而以理論之 達者恐不如此 千哀萬悲不能起苑者
냉어위비정여무병자 부지인통처이이이론지 달자공불여차 천애만비불능기원자

而只自我之神舍足下獨不念眼前二兒 而爲自全計乎 僕衰髮已種種矣
이지자아지신사족하독불념안전이야 이위자전계호 복쇠말이종종의

追思曩日惘然羞歎 而觀視海內知我者惟足下 今足下慘然無兄 僕何以高懷也
추사양일망연수탄 이관시해내지아자유족하 금족하참연무형 복하이고회야

千里命駕故人能之 吾輩雖下何必積月 貽限於數舍之地 而其於疾何適
천리명가고인능지 오배수하하필적월 이한어수사지지 이기어질하적

因納租更此不宣
인납조경차불선

이적산 인중에게 보내는 글

그대가 참담한 일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학교에 들어가 있었소.
비록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나 차마 방문하여 위로할 용기가 나지 않았소.

그 대신,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대의 소식을 묻곤 하였소.
그들은 “그대는 장례를 마친 뒤 멍하니 지내다가도 때로는 말을 타고 거리를
거닐며 슬픔을 달래려 한다” 고 하더이다.

과연 그런가요?

사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차가운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달래지는 것이 아니요.

마치 병을 앓아보지 않은 자가 병자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것과 같소.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야 슬픔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나, 정작 천 번을 슬퍼하고 만 번을 애통해도 떠나간 이를 되살릴 수 없으니, 결국 남은 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밖에 없소.

그대는 눈앞에 어린 두 자식을 보며 자신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소?

나는 이미 늙어, 머리카락이 성글어지고 있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그저 허망할 따름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그대뿐인데,
그대마저 형제 없이 쓸쓸하니, 나는 도대체 누구와 깊은 정을 나누겠소?

천 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대를 찾아가고 싶지만, 이제 늙어 먼 길 떠나기가 쉽지 않소.

우리 무리가 비록 미천하다 하나, 어찌 달을 쫓아 머물러야 하리오? 몇 채 안 되는 땅에 머무르는 것도 병의 근심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이 일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與柳三山淳伯 여류삼산순백

嗚呼惜哉令胤之喪也 近開鄭承宣李內翰 俱遭逆理之痛 是亦可悲
오호석재령윤지상야 근개정승선이내한 구조역리지통 시역가비

但死者或見或不見 不悉其為人 若胤君者一見而知其為遠器 義則故人之子
단사자혹견혹불견 불실기위인 약윤군자일견이지기위원기 의칙고인지자

情則知己 才識幹局可以需世 而志而殺蒼蒼 之所以生之死之者 抑何意哉
정칙지이 재식간국가이수세 이지이살창창 지소이생지사지자 억하의재

伏惟令公能燭修短之理 必不學夷甫之鍾情 幸以前日之慰李仁仲者自處焉
복유령공능촉수단지리 필불학이보지종정 행이전일지위이인중자자처언

使化者無知則已有知 吾輩豈可無一言以送耶 兄弟各有拙語 聯書一簡以送以致哀
사화자무지칙이유지 오배기가무일언이송야 형제각유졸어 연서일간이송이치에

유삼산 순백에게 보내는 글

아아, 애석하도다! 자식의 죽음이어.

얼마 전 정승(鄭承宣)과 이내한(李內翰)도 이치에 어긋난 슬픔을 함께 겪었으니,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यो.

그러나 죽은 자는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소.

그러나 영운군(胤君)은 한 번만 만나 보아도 그가 먼 앞날을 기약할 인물이란 걸
알 수 있었소.

그는 곧 고인의 자제(子弟)였으며, 나에게서는 진정한 벗이었소.

그의 재능과 식견, 기개와 능력은 세상에 크게 쓰일 만한 것이었는데, 어찌하여
하늘이 그를 태어나게 하고서 다시 데려가 버린단 말ियो?

이는 어찌된 운명인가!

생각건대, 영공(令公)께서는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깊이 깨닫고 계시니, 마땅히
왕도(王導)처럼 지나친 애도에 매이지 않으실 것이오.

부디 예전에 내가 이인중(李仁仲)을 위로했던 말을 그대 스스로에게도 되새기며,
슬픔을 다스리길 바라오.

만약 저 세상으로 간 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미 이승에서 아는 자가
존재하니, 우리가 어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떠나보낼 수 있겠소?

나는 형제들과 함께 서툴지만 애도의 글을 지어 이 한 통의 서신에 담아 보내니,
부디 이 마음을 받아주길 바라오.



與李國敏
여이국민

某自國敏足下 何以埋仲賓而能坐卧起居乎 嗟乎大嶺以南文章奇士
모백국민족하 하이매중빈이능좌와기거호 자호대령이남문장기사

不爲不多而每與人論當世士 必舉仲賓而衆口一辭莫有異同 天之生仲賓
불위불다이매여인논당세사 필거중빈이중구일사막유이동 천지생중빈

似若不但爲李氏門戶計 而卒以一疾爲仇 斂此許多抱負 忽歸於范范九原之中
사약불단위이씨문호계 이졸이일질위구 염차허다포부 홀귀어범범구원지중

冤哉苑也 始聞之瞠然以疑其終也 慘然厄塞不覺涕淚之交瀉也 此人有何罪
원재비야 시문지당연이의기종야 참연액색불각체루지교사야 차인유하죄

而又奪其妻若子於一句之內 使無跟跡於斯世也 悲夫悲夫 國敏氏亦過哀而何益哉
이우탈기처약자어일순지내 사무근적어사세야 비부비부 국민씨역과애이하익재

雖過哀仲賓必不起 而過哀者必病 病則恐不保其生 此非鎮定一家之道
수과애중빈필불기 이과애자필병 병칙공불보기생 차비진정일가지도

而無以安苑者之心 幸慎之 挽語製置已久 茲以書呈耳
이무이안원자지심 행신지 만어제치이구 자이서정어

이국민에게 보내는 글

삼가 국민(國敏)에게 아웁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중빈(仲賓)을 묻고서도 여전히 앉고 눕고, 일어나 거처할 수
있단 말ियो?

아아, 한탄스럽도다!

대령(大嶺) 이남에는 문장과 기개를 지닌 인재가 적지 않지만, 나는 사람들과
당대의 인물을 논할 때마다 반드시 중빈을 거론했소.

모두가 한목소리로 그를 칭송하였고, 그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이가 없었나이다.

하늘이 중빈을 태어나게 한 것은 단지 이씨(李氏) 가문의 영광을 위함만이
아니었을 것이거늘, 그를 단 한 번의 병환으로 거두어 그토록 많은 포부와 재능을
홀연히 구천(九原)의 어둠 속으로 던져 버리다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 차마 믿을 수 없었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듣고 나서는 그저 황망한 마음뿐이었으며, 끝내 눈물과
탄식을 금할 수 없었소.

그가 무슨 죄가 있기에, 하늘은 열흘 안에 그의 아내와 자식까지 모두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오?

그 흔적조차 이 세상에 남기지 못하게 하다니, 비통하고 또 비통하오.

그러나 국민이여, 너무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지나치게 슬퍼한들 중빈을 되살릴 수 없고, 슬픔이 지나치면 오히려 그대를 병들게 하여 목숨조차 지키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오.

이는 집안을 안정시키는 도리가 아니며,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히 해줄 수도 없으니, 부디 지나친 슬픔을 삼가길 바라오.

이미 애도하는 글을 지어둔 지 오래이니, 이 편지와 함께 보내니 받아주시오.



與許煙客汝正泌 여허연객여정필

翁駐終南農在嶺南二南間五百里 或一年二見或二年一見未嘗至三年不相見
옹주종남농재령남이남간오백리 혹일년이견혹이년일견미상지삼년불상견

于時不見未甚既見未甚樂蓋以見之之以歲計也 今翁衰而不老而不比
우시불견미심기견미심락개이견지지이세계야 금옹쇠이불노이불비

不知翁與農作幾年 世間客而其相見未易期也 不見故思忠甚故憂 不過發相尋而已
부지옹여농작기년 세간객이기상견미이기가 불견고사충심고우 불과발상심이이

不知翁一日書幾紙 書幾格詩幾首 驚人語幾口乎 一日鋤一園 禱一編睡一枕
부지옹일일서기지 서기격시기수 경언어기구호 일일서일원 도일편수일침

昌黎碑五十篇 馬遷史二十傳 繫辭二十四章 此與農而將殉者也 翁與農各好所好
창례비오십편 마천사이십전 계사이십사장 차여농이장순자야 옹여농각호소호

亦足矣 幸無相苑 因風惠音也
역족의 행무상원 인풍혜음야

허연객(許煙客) 여정필(汝正泌)에게

옹(翁)께서는 종남산(終南山)에 머물고, 나는 영남(嶺南)에 있으니, 두 남쪽(二南) 사이가 오백 리라.

어쩌다 일 년에 한 번, 혹은 이 년에 한 번씩 만났으나, 삼 년을 넘겨 만나지 못한 적은 없었소.

그리운 때에 만나지 못한들 크게 슬프지는 않았고, 막상 만나게 되어도 크게 기쁘지는 않았소. 이는 우리의 만남이 세월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요.

이제 노인은 기력이 쇠하였으나, 노쇠하지는 않았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소.

그러니 서로 만나기가 더욱 기약하기 어려워졌소.

보지 못하면 더욱 생각이 간절해지고, 충정을 다하지 못해 애가 탈 뿐이니, 이렇듯 그리움이 깊어지면 자연히 서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요.

노인은 하루에 몇 장의 편지를 쓰고, 몇 줄의 시를 지으며, 놀라운 말을 몇 마디나 남기고 있는지요?

하루에 한 뜰을 일구고, 한 편의 책을 읽으며, 한 베개를 베고 단잠에 들며, 창려비(昌黎碑) 오십 편과 사마천(司馬遷)의 역사 스무 편, 그리고 『계사전(繫辭傳)』 이십사 장을 읽고 계시겠지요.

이것들이야말로 노인이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지니고 갈 것들이 아닙니까? 노인은 노인의 즐거움을, 나는 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이겠지요.

다행히도 서로를 억누르지 않고, 바람을 따라 전해오는 은은한 소식만으로도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答府伯轉仁叟 必壽
답부백전인수 필수

蕭然茅屋以油爇夜以蜜和餅 以會稽楮君分兒曹貧家光景忽侈 方誦二天之榮脫
소연모옥이유설야이밀화병 이회계저군분아조빈가광경총치 방송이천지영황

今又伏承下札兼惠助祭之需尤不勝感荷之忱 況審政閣啓居萬相昂 慰區區不任民將老
금우복승하찰겸혜조제지수우불승감하지심 황심정각계거만상앙 위구구불임민장로

粗遣知荷盛念 書中以歸期漸遲為悶民情則惟願遲遲而又遲至於三年之遲
조견지하성념 서중이귀기점지위민민정즉유원지지이우지지어삼년지지

此出自為之地 伏呵
차출자위지지 복가

부백전(府伯轉) 인수(仁叟) 필수(必壽)에게 답함

초라한 띠집에서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밤이면 꿀로 만든 떡을 먹으며 지내오.
오직 회계(會稽)의 선비처럼 그저 본분을 지키며 살 뿐이오.

자식들 또한 가난한 집안의 풍경 속에서 분수를 알고 살아가고 있소.
이제 막 하늘의 은혜를 읊조리던 참인데, 또한 공께서 보내주신 편지와 함께
제사 비용까지 보태주셨다 하니, 어찌 깊이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소?

더구나 정각(政閣)에서 편안히 머물고 계신다 하니, 이 미천한 몸이 그저
다행스러울 뿐이오.

노쇠한 몸으로 감사의 뜻을 제대로 전할 길이 없어 부끄럽소.

편지 속에서는 귀환 날짜가 자꾸 늦어지는 것을 답답하게 여겼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도리어 ‘천천히, 더디게, 그리고 또 더디게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삼 년이나 늦어진 귀환조차도, 사실은 바로 그분이 몸소 다스리던
땅에서 비롯된 뜻이었던 것입니다.
감히 고개 숙여 경탄할 따름입니다.



答韓仁叟
답한인수

四日周旋見遇侈於四簋況垂橐而八綰載而出 顧此窮交大過所感誦無既忽此匪意
 사일주선견우치어사궐황수탁이팔곤재이출 고차궁교대과소감송무기홀차비의
 又惠問既多感勤款伏惟政履起居萬重 仰慰不任葵陽向者無撓得抵而家老
 우혜문황다감근관복유정리기거만중 앙위불임규양향자무요득저이가로
 筋力亦保舊樣 伏幸官厨厚味種種侈口 青菜白鹽頓失向來之甘 還喫一笑
 근력역보구양 복행관주후미종종치구 청채백염돈실향래지감 환꺅일소

한 인수(韓仁叟)에게 답함

나흘 동안 머무는 동안 받은 대접은 고대의 '네 그릇(四簋)' 이상으로
 호사스러웠고, 하물며 떠날 때는 자루에 담고 여덟 짐이나 실어 나왔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깊고도 후하였습니니다.

이 초라한 교분에 너무도 과분한 은혜며, 감사한 마음이 끝이 없으나, 이리
 갑작스러이 배푸심이 나로서는 도무지 예상치 못한 일이오.

더구나 후한 문안과 더불어 귀한 물품까지 보내주셨다 하니, 그 성의에 더욱
 감격할 따름이오.

감격스러운 위로의 말씀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치 해를 쫓는 해바라기처럼, 한결같은 그리움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제 마침내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하셨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인지요. 노쇠한 몸과 기운이 예전과 다름없이 남아 있음을 다행이라 여기오.

그러나 관청의 부엌에서 대접받은 푸짐한 음식이 너무도 호사로워, 푸른 나물과
 흰 소금이 예전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구려.

그저, 이 또한 웃으며 넘길 일이라니 하오.



與榮川倅 趙德洙 書
 여영천췌 조덕수 서

頃拜軒下猥蒙過存之惠 雖得百朋何以敵此 不審春和政履起居若何 瞻溯區區不任
경배헌하외몽과존지혜 수득백봉하이적차 불심춘화정리기거약하 침소구구불임

命仲氏其已復路耶 一夜聯枕畫灰談笑 言論風致挽近所未觀
명중씨기이복로야 일야연침화회담소 언론풍치만근소미도

正所謂 東城老嫗見三五盛年 而拊背不能者也
정소위 동성노오견삼오성년 이부배불능자야

就出沙事已有朝令 此公耳敢云私乎 如得一番開拓 秋來食實 粒粒知恩
취출사사이유조령 차공이감운사호 여득일번개척 추래식실 립립지은

영천의 조덕수에게 보내는 편지

요즘 귀댁을 찾아뵈었을 때, 감히 과분할 정도로 따뜻한 관심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설령 백금(百朋)을 얻는다 하여도, 그 은혜에 어찌 감히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봄기운은 화창한지요? 정무를 수행하시고, 기거하시는 일상은 평안하신지요?
멀리서 우러러 그리며, 자그마한 이 마음은 감히 전될 수 없을 따름입니다.

혹시 중형(仲氏)은 벌써 길을 되돌아가셨는지요?

그날 밤 함께 베개를 나란히 하고, 재를 그어가며 밤새 이야기 나눈 그 담소는,
그 언변과 기풍이 참으로 감동적이어서,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동쪽 성의 늙은 할미가 삼오 청년을 보고도 등을 두드리지
못했다”는 고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막(沙地)의 개간과 관련한 일은 이미 조정에서 명령을 내리신 바 있으니,
이것은 오로지 국가의 일이며, 어찌 감히 사사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번에 한 번 개간이 잘 이루어진다면, 가을이 되어 그 결실을 거둘 때,
곡식 알알이 그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雜著 잡저

請褒故進士迂叟金公鋼呈巡營文 청포고진사우수김공강정순영문

伏以士氣國家之元氣也苟於兵亂危急之中 一之士有所樹立則固可以維持世道 故朝家
북이사기국가지원기야구어병란위급지중 일지사유소수립즉고가이유지세도 고조가
特垂崇獎之典 使之發潛而闡幽 思所以培植士氣 其在承流宣化之道 亦所克念生等所
특수숭장지전 사지발잠이천유 사소이배식사기 기재승류선화지도 역소극념생등소
居之鄉有生員金鋼 平居孝友之行博雅之學至今鄉人誦之不衰 曾於丙子之亂變起蒼卒
거지향유생원김강 평거효우지행박아지학지금향인송지불죄 증어병자지란변기창졸
干戈布地人鬼呼吸城沸 只有七尺之身奚暇理會他義理哉 時金鋼在潁泮中諸生莫不神
간과포지인귀호흡성비 지유철척지신해가리회타의리재 시김강재반반중제생막불신
驚色飛有若魚駭鳥竄 而金鋼獨愴然以聖廟為憂顧謂羅公 以俊金公鋌曰吾輩平居食君
경색비유약어해조찬 이김강독개연이성묘위우고위라공 이준김공곤왈오배평거식군
食守聖廟而今當亂離之際 委聖廟於腥塵血雨之中徒為 全身計則是負聖廟也負聖恩也
식수성묘이금당란리지제 위성묘어성진혈우지중도위 전신계즉시부성묘야부성은야
盍息所以善處之道乎 於是相與定算而尋泮奴則皆奔屏 獨一奴信國狂共埋東西配位諸
합식소이선처지도호 어시상여정산이심반노즉개분명 독일노신국광공매동서배위제
賢位板於淨潔地 乃以新布袋盛五聖位板二馬信國御之 三人具巾服隨後至南漢城奉安
현위판어정결지 내이신포대성오성위판이마신국어지 삼인구건복수후지남한성봉안
於 開元寺 設食堂如平時 既而金公二人謂羅公司 吾等奉聖廟至此天所以不墜斯文也
어 개원사 설식당여평시 기이김공이인위라고사 오등봉성묘지차천소이불추사문야
當與公同護聖廟徧大駕 而吾等有老親在情勢與 公有異方歸省 公其勉之逐痛哭拜城而
당여공동호성묘편대가 이오등유로친재정세여 공유이방귀성 공기면지축통곡배성이
歸若金公者可謂忠孝兼至 而及其事定之後朝家嘉賞之典獨及於羅以俊金鋌二人 而不
귀약김공자가위충효겸지 이급기사정지후조가가상지전독급어라이준김곤이인 이불
及於金鋼以同一體之人見漏於褒美之際者 非但自家之冤亦為朝家之欠典尖 閣下新承
급어김강이동일체지인견루어포미지제자 비단자가지원역위조가지흠전침 각하신승

方 面之任凡一道之有冤未伸者有廢不興者 將次第見行則生等之沐浴仰訴者蓋亦有待
 방 면지임범일도지유원미신자유폐불흥자 장차제현행즉생등지목욕양소자개역유대
 而發矣 伏願閣下具悉事狀登聞朝廷云云
 이발의 복원각하구실사상등문조정운운

고 진사 우수 김공 강의 포상을 청하여 순영(巡營)께 아뢰입니다

앞드려 생각하건대, 선비의 기개는 국가의 근본적인 기운입니다. 전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선비라도 의연하게 뜻을 세운다면, 이는 세상의 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특별히 장려하고
 표창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묻혀 있던 인재를 발굴하고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니,
 이는 곧 선비의 기개를 북돋우려는 깊은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본받아 교화(敎化)를 펼치는 것이 또한 마땅히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생원(生員) 김강(金綱)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효성과 우애가 깊었으며 학문 또한 널리 익혀, 지금까지도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칭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년(丙子年)의 난이 일어나자, 전란이 급격히 확산되며 칼과 창이 온
 땅에 흩어지고, 사람과 귀신이 탄식하며 성안이 끊어오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겨우 일곱 자 남짓한 몸으로 어찌 다른 도리를 논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김강은 향교(鄕校)에서 학문을 닦고 있었는데, 많은
 유생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빛이 변하며 마치 놀란 물고기와 흩날리는 새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김강만은 홀로 분연히 일어나 성묘(聖廟, 공자의
 사당)를 지키는 일을 걱정하며, 로이준(羅以俊)과 김곤(金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을 받으며 성묘를 지켜왔으니, 지금과 같은 난세에
 성묘를 이 혈육이 뒤섞이고 피비린내 가득한 속에 버려둔다면, 이는 성묘를
 저버리는 것이며, 또한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해야
 올바른 처신이겠는가?"

이에 함께 의논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향교의 하인들은 모두 도망쳤고,
 오직 신국(信國)이라는 하인 하나만이 미친 듯이 남아 동서 배위(配位, 공자의
 제자들 위패)와 여러 위패를 깨끗한 곳에 문었습니다. 그리고 새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오성(五聖, 공자 및 주요 성인들의 위패)의 위패를 넣어 두 마리 말에

신고, 신국이 이를 인도하며 세 사람은 예복을 갖추고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남한성(南漢城)으로 가서 개원사(開元寺)에 위패를 모시고 평소처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김곤과 김강 두 사람이 로이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묘를 이곳까지 모셔온 것은, 하늘이 문명을 끊어지지 않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공과 함께 성묘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니, 사정이 공과 다릅니다. 부모님을 뵙고자 하니, 공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통곡하며 절한 뒤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김공(金公)의 행적을 보면, 충과 효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정리된 후 조정에서 내린 포상은 로이준과 김곤 두 사람에게만 주어졌고, 김강에게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뜻으로 행동한 인물인데도 포상의 기회에서 누락된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조정에서도 포상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이제 막 지방을 다스리는 중대한 직임을 맡으셨으니, 이 도내에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일이 있거나 폐단이 있어 바로잡혀야 할 것이 있다면, 차례로 조치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감히 엿드려 간절히 탄원하는 것도 이 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각하께서는 이 사정을 충분히 살펴 조정에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吊天使塚文 조천사총문

余之居甘泉之東者今四十九年矣七八歲時已聞縣南水容山十里之地有天使塚而未嘗一
여지거감천지동자금사십구년의칠팔세기이문현남수용산십리지지유천사총이미상일
觀焉甲戌三月余寓於水容山下高谷里語及天使事李魯源金雲伯曰吾則厭觀焉無用復往
관언갑술삼월여우어수용산하고곡리어금천사사리로원김운백왈오칙엄관언무용복왕
也余強之曰荀子之好古也觀而又觀何傷焉魯源以老辭雲伯從遂相與緩步由小逐隘一峇
야여강지왈구자지호고야관이우관하상언로원이로사운백종수상여완보유소축유일잠

得所謂天使塚而諦視則沙石之堅緻高大與凡人之葬異世所云不誣也遂為文而吊之日嗟
 득소위천사총이체시척사석지견치고대여범인지장이세소운부무야수위문이적지일차
 乎天使乎何代之人歟我國三百年近世也吾知天使決非皇明人也若曰麗代事則氏都松京
 호천사호하대지인여아국삼백년근세야오지천사결비황명인야약왈려대사척씨도송경
 松京之距此幾千里天使之越王京千里而葬於此者無是理也意者其新羅之際乎羅人之與
 송경지거차기천리천사지월왕경천리이게어차자무시리아의자기신라지제호라인지여
 中國通者自漢而至唐則天使之或漢人或唐人又未可知也且天使天子之重臣也於藩國則
 중국통자자한이지당척천사지혹한인혹당인우미가지야차천사천자지중신야어번국척
 天子必許其歸英國亦不敢私天子之重臣而今葬於此何哉世無可辨者可悲也已想其來使
 천자필허기귀영국역부감사천자지중신이금장어차하제세무가변자가비야이상기래사
 之日高冠大笏威儀神彩必耀於東人之耳目而萬壘山中塊然為無主之塚人事之不可知者
 지일고관대홀위의신채필요어동인지이목이만첩산중괴연위무주지총인사지부가지자
 一至此哉今吾與雲伯彷徨躑躅感歎竟日而不能去者千古志士之感不待勉強而測然者也
 일지차재금오여운백방황척촉감탄경일이부능거자천고지사지감부대면강이측연자야
 天使之有知亦必有感於吾輩之來吊矣
 천사지유지역필유감어오배지래적의

천사(天使)의 무덤을 조문하며

내가 감천(甘泉)의 동쪽에 거처한 지도 이제 사십구 년이 되었다. 일곱, 여덟 살 때부터 이미 들은 바가 있으니, 고을 남쪽 수용산(水容山)으로부터 십 리 떨어진 곳에 ‘천사총(天使塚)’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번도 직접 가서 본 적이 없었다.

갑술년(甲戌年) 삼월, 내가 수용산 아래 고곡리(高谷里)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천사(天使)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이로원(李魯源)과 김운백(金雲伯)에게 말하였다. "나는 늘 이곳을 보고 싶었소." 그러자 이로원이 답하기를, "나는 이미 보았소. 다시 갈 필요가 있겠소?"라 하였다. 이에 내가 강권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옛것을 좋아한다면,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무슨 해가 있겠소?"라고 하니, 이로원은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사양하였고, 김운백만이 나를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천천히 걸어, 작은 언덕 하나를 넘고 마침내 이른바 ‘천사총’이라 불리는 곳에 도착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의 모래와 들은

단단하고 정교하며, 높고 웅장하여 일반인의 무덤과는 확연히 달랐다. 세상에서 전해지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감회를 담아 글을 지어 조문한다.

아, 천사여!

그대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가?

우리나라가 개국한 지 삼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천사총이 존재하니, 나는 확신하건대, 천사는 결코 명나라 사람은 아닐 것이다. 만약 고려 시대의 사신이라면, 그 수도는 송경(松京, 개성)이니, 여기까지 거리가 수천 리에 이른다. 천사가 왕경(王京)에서 천 리를 넘어 이곳에서 죽었을 리는 없을 것이다. 혹시나 신라 시기의 인물일까?

신라 사람들은 한(漢)나라 때부터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사신을 주고받았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한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당나라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란 곧 천자(天子)의 중신(重臣)이니, 외국에 파견되었다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다. 천자의 중신을 조정에서 개인적으로 숨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묻혀 있다니, 어찌 된 일인가?

이제는 아무도 그 사정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 슬플 뿐이다.

그가 사신으로 오던 날을 상상해 본다. 높은 관모와 커다란 홀(笏)을 들고, 위엄 있는 의장과 신비로운 기세로 동방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겹겹의 산속에 홀로 묻혀, 주인 없는 무덤이 되어버렸다.

인간사란 어찌 이리도 알 수 없는 것인가!

오늘 내가 김운백과 함께 이곳을 거닐며 머뭇거리고 탄식하며 온종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천 년을 두고도 지식인들이 느낄 감회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만약 저승에서라도 우리의 조문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를 맞아 감격할 것이다.



文琴說 문금설

日余汨於憂病悄然獨坐有人援琴立於門外余揖而進之使之姓客曰吾文姓名胤章余日子
 일여골어우병초연독좌유인원금립어문외읍읍이진지사지성객왈오문성명윤장여일자
 之琴世所謂文琴者乎曰然余日子之家世其琴今幾乎日琴自始祖至吾身今十四世余作而
 지금세소위문금자호왈연여왈자지가세기금금기호일금자시조지오신금십사세여작이
 日異哉文氏之琴也 古之善琴者必稱師曠伯牙嵇康而未聞以琴傳其子吾知琴者不可世
 일이재문씨지금야 고지선금자필칭사광백아혜강이미문이금전기자오지금자부가세
 傳而其至妙雖家人父子有不能窮其私也父子相傳猶不可得无父而子子而孫而至於十四
 전이기지묘수가인부자유부능궁기사야부자상전유부가득무부이자자이손이지어십사
 世之遠哉近聞中國有雷琴而亦世傳云吾未知其世代之幾許而今之中國非古之中國也
 세지원재근문중국유포금이역세전운오미지기세대지기허이금지중국비고지중국야
 雷氏之琴處於北鄙殺伐之間則必不得太古冲和之氣吾不欲聞而今文氏以累世密符妙謏
 퇴씨지금처어북비살벌지간척필부득태고충화지기오부옥문이금문씨이루세밀부묘도
 獨擅於大明三百年衣冠之國宜其爲天下徽音之正宗也 使之一曲其聲窈窕焉往而復返旋
 독천어대명삼백년의관지국의기위천하회음지정종야 사지일곡기성요요언왕이복반선
 而復回飄飄然有羽化登仙之想余曰其步虛辭乎又彈一曲其聲咽咽焉升而復沉流而復結
 이복회표표연유우화등선지상여왈기보허사호우탄일곡기성인인언승이복침류이복결
 恍然有登山臨水之意余日其峨洋曲乎琴師無然而驚曰吾以琴鳴於世殆三十年始得夫子
 황연유등산림수지의여일기아양곡호금사무연이경왈오이금명어세태삼십년시득부자
 夫子其吾師乎余笑曰孔聖聞絃而得文王季札觀樂而辨韶武古之聖賢心與聲音相通而吾
 부자기오사호여소왈공성문현이득문왕계찰관악이변소무고지성현심여성음상통이오
 之所得者不過絃上之糟粕耳嗟乎使琴師生於上古之世則必有賞其音而和其調者其生也
 지소득자부과현상지조박이차호사금사생어상고지세척필유상기음이화기조자기생야
 後只以奇絃古調作娛於俗人之耳此可惜也琴師聞言太息而去
 후지이기현고조작오어속인지이차가석야금사문언태 식이거

문금설(文琴說)

나는 근심과 병환에 시달려, 적막하게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거문고를 들고 문밖에 서 있었다. 그를 불러들여 이름을 물으니, 그는 스스로
 "나는 문씨(文氏)요, 이름은 윤장(胤章)이라 하오"라고 하였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연주하는 거문고가 세상에서 이른바 '문금(文琴)'이라 불리는 것인가?"

그가 답했다.

"그러하오."

내가 다시 물었다.

"그대의 가문이 거문고를 대대로 전해 왔다면, 지금 몇 대째인가?"

그가 말했다.

"우리 가문에서 거문고를 연주한 것은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내 대에 이르기까지 열네 대가 되오."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 또한 기이한 일로다! 문씨 가문의 거문고란!

옛날 뛰어난 거문고 연주자로는 반드시 사광(師曠), 백아(伯牙), 혜강(嵇康)을 꼽지만, 그들이 거문고를 후대에 전수했다는 말은 들은 바 없소. 나는 거문고의 연주법은 세습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오. 그 오묘한 경지에 이르면, 설령 부자지간이라 해도 그 비밀을 온전히 전수하기 어려운 법이지요.

그런데도 부자가 서로 전수하기조차 어려운 기술이, 어찌하여 아버지에서 아들로, 손자로 이어져 열네 대에 이르렀단 말ियो? 나는 최근 중국에 '뇌금(雷琴)'이라는 것이 전해진다고 들었소. 그것 또한 가문 대대로 계승되었다 한다면, 나는 그 연주의 깊이를 알지 못하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이미 예전의 중국이 아니오. 뇌씨(雷氏)의 거문고가 북방 변방의 전란 속에서 전해졌다면, 태고의 순박하고 온화한 기운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것이오. 나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소. 그러나 문씨 가문의 거문고는 대대로 전해져 대명(大明) 삼백 년 동안 문명과 예악(禮樂)의 나라에서 계승되었으니, 마땅히 천하의 아름다운 음악을 대표할 만한 정통이라 할 것이오."

이에 거문고를 연주해 보게 하였다.

그의 연주 소리는 아득하고 깊숙하여, 가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땀돌았다가 다시 흐르며, 하늘을 나는 듯하여 마치 신선이 되어 승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말했다.

"이것은 '보허자(步虛詞)'의 곡이 아니겠소?"

그가 다시 한 곡을 연주하였다. 그 소리는 흐느끼듯 애절하여,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고, 흘렀다가 다시 땀히며, 마치 높은 산에 올라 시냇물을 바라보는

듯하였다. 나는 말했다.

"이것은 '아양곡(峨洋曲)'이 아니겠소?"

그는 아무 말 없이 놀란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내가 거문고로 이름을 떨친 지 거의 삼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선생과 같은 분을 만났으니, 선생께서는 나의 스승이 아니시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공자께서는 음악을 듣고 문왕(文王)의 도를 깨우쳤으며, 계찰(季札)은 음악을 보고 소무(韶武)의 깊이를 분별하였소. 예전의 성현들은 마음과 소리가 서로 통하였소. 그러나 내가 지금 얻은 것은 겨우 거문고 줄 위의 찌꺼기일 뿐이요."

아, 만약 그대가 태고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 음을 감상하고 화답할 만한 이가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다만 기묘한 선율과 오래된 곡조로 속인(俗人)들의 귀를 즐겁게 할 뿐이니, 이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요."

거문고 연주자는 내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떠나갔다.



失牛說 실우설

余素貧業農者殆二十餘年未嘗畜一牛 耕作之時借隣隣入以是患之
여소빈업농자태이십여년미상축일우 경작지시차린린입이시환지

前年秋買牝牛黑而小望之如大狗焉 不復借隣而兄弟叔姪之分居者又從而耕牛
전년추매빈우흑이소망지여대구언 부복차린이형제숙질지분거자우종이경우

於是乎無暇日不能一眠隴上之草 家有十歲僮取藊以供朝夕牛日 以瘠
어시호무가일부능일면릉상지초 가유십세동취우이공조석우일 이척

硬骨稜稜然可從皮上數 驅而出門鄰入目之以上舍牛而笑之
경골릉릉연가종피상수 구이출문린입목지이상사우이소지

牛之不遇寧子而遇我亦不幸矣 不能以餉牛之道養之而反以其瘠賤之
우지부우녕자이우아역부행의 부능이향우지도양지이반이기척천지

夜不問鎖鑰者殆半年一朝小婢踢踢驚呼曰 牛竇開牛不見也 余聞而笑曰
야부문쇄약자태반년일조소비답답경호왈 우두개우부견야 여문이소왈

遠近牛肥且大者不知幾何而盜之必取我羸牛何也可謂拙於盜也 已而鄰人曰牛枉山後
원근우비차대자부지기하이도지필취아리우하야가위줄어도야 이이린인왈우왕산후

就而視之 果吾牛也蓋賊見其瘠而小不足以利於市故棄之卒取他牛而去
취이시지 과오우야개적견기척이소부족이리어시고기지줄취타우이거

噫 人之餉牛者孰不欲肥而吾牛獨以瘠不失 隣人之牛以肥失之
희 인지향우자숙부욕비이오우독이척부실 린인지우이비실지

使隣人知肥者之必失則皆欲吾牛之瘠也 噫 非特牛之得失而然世間得失皆如此
사린입지비자지필실척개욕오우지척야 희 비특우지득실이연세간득실개여차

此足爲君子者反隅也人之戚戚於榮辱者蓋於斯觀焉
차족위군자자반우야인지척척어영욕자합어사관언

소 잃은 이야기

나는 원래 가난하여 농사 지은 지 스무 해가 넘도록 소 한 마리 기르지 못했다.
농사철이 되면 이웃에게 소를 빌려 써야 했고, 이로 인해 늘 마음에 근심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재작년 가을, 검고 작디작은 암소 한 마리를 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큰 개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뒤로는 이웃의 소를 빌리지 않게 되었고, 집안의 형제나 조카들, 따로 사는
친척들까지도 나의 소를 빌려 받을 갈기 시작했다.

그러니 쉴 틈도 없이 바빠졌고, 소는 언덕 위 풀조차 누워 먹을 여유가 없었다.
집에는 열 살짜리 아이 하나 있어 연못에서 연근을 캐 와 아침저녁으로 소에게
먹였다. 그러나 소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뼈가 튀어나오고, 그 뼈가 가죽 너머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이웃이 그 소를 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 소는 상집(上舍)의 소가 아니라구나!”

소가 예전 같았으면 '녕자(寧子)' 같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나를 만난 것이 참으로
불행하다. 나는 제대로 먹이는 법도 모르면서 그저 야위었다고 천대만 하니
말이다. 밤에는 문단속을 하지 않은 지 반 년이 넘어갔고, 어느 날 아침, 하녀가
허둥지둥 달려오며 외쳤다.

"소 우리 문이 열려 있고, 소가 사라졌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근처에 살진 소가 얼마나 많은데, 도둑이 굳이 내 뼈쩍 마른 소를 훔쳐갔다고? 그렇다면 그는 정말 어설픈 도둑일세."

조금 뒤 이웃이 와서 말했다.

“소가 뒷산에 있더군요.”

달려가 보니 과연 내 소였다. 아마 도둑이 보기에도 너무 야위고 작아서 시장에서 팔아 이득도 못 될 것 같아 버리고, 결국 다른 소를 훔쳐 간 것이다.

아, 사람이라면 누가 소를 살찌우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 소는 말라서 도둑도 외면했기에 잃지 않았다. 반면 이웃의 살진 소는 결국 도둑맞았다. 만일 이웃들이 “살진 것은 반드시 잃는다”는 걸 알았다면, 모두 내 소처럼 야위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 이것은 단지 소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얻음과 잃음이 다 이와 같다.

이는 군자라면 거꾸로 돌이켜 깊이 생각해야 할 교훈이 될 것이다. 사람이 명예와 치욕에 마음 줄인다면, 부디 이 이야기에서 세상을 보기를 바란다.



錢弊說 전폐설

今之大弊祇是錢貨一疑終無理會之策則國不為國民不為民而終至於無可奈何矣愚當於
금지대폐지시전화일의종무리회지책칙국부위국민부위민이종지어무가내하의우당어
有所一得未知果能合宜而筆之私稿以俟來者無無錢之國而上世則錢不為害季世則錢為
유소일득미지과능합의이필지사고이사래자무무전지국이상세칙전부위해계세칙전위
民橐其必有所有者矣蓋上世則以絲粟為本以錢幣為權常使本以制權權不勝本故其民力
민탁기필유소유자의개상세척이사숙위본이전폐위권상사본이제권권부승본고기민력
其田以為食治其絲以為衣養其畜以為肉日用所行之物無非取諸家而至於貿遷有無之際
기전이위식치기사이위의양기축이위육일용소행지물무비취제가이지어무천유무지제

方用錢幣故以錢利者只是陶冶工匠之屬而天下之取用於此者僅足以適其用不使之過其
 방용전폐고이전리자지시도야공장지속이천하지취용어차자근족이적기용부사지과기
 以此推之其用錢之不多可知也故禹之制貢也只言其粟米絺絲而不及於錢周之均賦也只
 이차추지기용전지부다가지야고우지제공야지언기속미치사이부급어전주지균부야지
 言里布塵粟而不及於錢蔡節齋嘗云一家之用錢於一歲者合祭祀賓客器用而不過二十五
 언리포전속이부급어전채절재상운일가지용전어일세자합제사빈객기용이부과이십오
 金凶歲半之果如是也則錢豈有弊哉上之所取於下者各因其土之所宜山取山澤澤是爲常
 김흥세반지과여시아칙전기유포재상지소취어하자각인기토지소의산취산택택시위상
 不易其正而不曾向民索錢則錢是流行於下而非上之所以爲利也春秋之時雖以魯宜之履
 부역기정이부증향민색전칙전시류행어하이비상지소이위리야춘추지시수이로의지리
 畝成公之作丘猶自加賦而未嘗言錢此上世之錢所以無弊而後世則不然粟之本不能制錢
 무성공지작구유자가니이미상언전차상세지전소이무오이후세칙부연속지본부능제전
 之權而天下百物無一不需於錢市肆之翔貴而至要者莫錢若也一夫之終歲勤勞得致鍾計
 지권이천하백물무일부수어전시사지상귀이지요자막전약야일부지종세근로득치종계
 者不過青銅之半握則遊食之徒棄農歸商者勢所固然也於是焉釀酒者討錢負柴者覓錢擔
 자부과청동지반악칙유식지도기농귀상자세소고연야어시언양주자토전부시자먹전담
 菜者索錢通邑大都之衢無非錢色而其氣勢稍厚者則又從而擅其利連繩貫索滿貯箱篋占
 채자색전통읍대도지구무비전색이기기세초후자칙우종이천기리런승관색만저상협점
 其凶歟而坐食倍甚至於春散秋斂私立契困其民力而民之負債者急於報償以辛苦作農之
 기흥점이좌식배심지어춘산추렴사림계곤기민력이민지부채자급어보상이신고작농지
 穀散如泥沙而易錢錢之爲害固不可勝言而又國家之取諸民者以錢而不以粟以錢而不以
 곡산여니사이역전전지위해고부가승언이우국가지취제민자이전이부이속이전이부이
 絲夫絲粟者出於民錢貨者鑄於官也以官鑄之權廢民出之本故小民不得不貴錢賤穀而杼
 사부사속자출어민전화자주어관야이관주지권폐민출지본고소민부득부귀전천곡이저
 軸空箱廩馨無不冤呼摧傷於鞭朴考掠之下胡致堂所謂萬物爲銅沙石爲貴而不能予困者
 축공상름형무부원호최상어편박고략지하호치당소위만물위동사석위귀이부능여곤자
 此也是以開元之際盆邨之爐五宜鄂之爐十源之爐二十絳州之爐三十每爐費銅二萬一千
 차야시이개원지제분침지로오의악지로십원지로이십강주지로삼십매로비동이만일천
 二百斤而民不加裕景德之中永興鑄小銅錢晋州鑄小鐵錢江南鑄大銅錢河東鑄大鐵錢每
 이백근이민부가유경덕지중영흥주소동전진주주소철전강남주대동전하동주대철전매
 鑄立二十六監而民不解懸噫加鑄而賦民者愈加利多而權利者愈急此其已驗之弊而今日
 주립이십륙감이민부해현희가주이부민자유가리다이권리자유급차기이힘지폐이금일
 則尤有甚焉田稅亦錢也大同亦錢也軍布亦錢也貢木亦錢也各司貢物亦錢也諸宮結受亦
 칙우유십언전세역전야대동역전야군포역전야공목역전야각사공물역전야제궁결수역

錢也則雖家鑄而戶輔無以支遣而各邑守宰又從而肆其欲名之曰柴炭而徵錢於戶目之曰
 전야칙수가주이호보무이지전이각읍수재우종이사기육명지왈시탄이징전어호목지왈
 除番而責錢於軍稱之曰漏結而誅錢於民楊之曰官耗而索錢於洞不恤其民斬伐其命脉而
 제번이책전어군칭지백루결이주전어민양지왈관모이색전어동부홀기민참벌기명맥이
 惟息肥已之術噫古之貪官污吏亦無人而但米線之屬妨於輦輪駭於聽聞而其利不多受汚
 유식비이지술희고지탐관오리역무인이단미선지속방어런수해어청문이기리부다수오
 可畏故不敢肆然服箱以充已欲而至於錢貨則中人一家之產可以載驚駭之背晝伏夜行足
 가외고부감사연복상이충이욕이지어전화칙중인일가지산가이재노힘지배주복야행족
 以應人耳目矣王錫爵之言曰文臣不愛爵武臣不愛錢可以致治而今之愛錢者非特武弁則
 이응인이목의왕석작지언일문신부애작무신부애전가이치치이금지애전자비특무변칙
 此所作法於涼其弊猶貪也國家未嘗不意於此以民力之益困國計之未裕爲憂故於是焉創
 차소작법어량기폐유탐야국가미상부의어차이민력지익곤국계지미유위우고어시언창
 為結布戶布口錢之說甲乙矛盾便否崢嶸噫結布者行於唐憲之末而民以盆瘁戶布者行於
 위결포호포구전지설갑을모순편부쟁영희결포자행어당헌지말이민이분채호포자행어
 麗代之季而國以不振口錢者行於西漢之初而財以益耗者也是皆權行於一時而旋又廢革
 려대지계이국이부진구전자행어서한지초이재이익모자야시개권행어일시이전우폐혁
 則國家不法三代之美政而友欲行漢唐麗末之苟爲行權者不亦小乎今欲一時間革罷錢弊
 칙국가부법삼대지미정이우욕행한당려말지순위행권자부역소호금육일시간혁파전오
 則戶府有常平之錢各營有存本之錢此是公家所難優勢家之多錢者商賈之畜錢者閭里豪
 칙호부유상평지전각영유존본지전차시공가소난우세가지다전자상가지축전자려리호
 右之殖錢者皆不悅則此不可猝然去以拂公私之情而自有駸駸然救笑之術何者自朝家一
 우지식전자개부열칙차부가줄언거이불공사지정이자유침침연구소지술하자자조가일
 定其錢價而不能低昂雖大豐之歲一兩之直不過五斗而平均一國之斗斛無復大小升合之
 정기전가이부능저앙수대풍지세일량지직부과오두이평균일국지두곡무복대소승합지
 等差如有犯者論以重律不少假借而公家各樣所納皆不用錢則錢貨常輕而穀物常貴矣然
 등차여유범자론이중률부소가차이공가각양소납개부용전칙전화상경이곡물상귀의언
 則錢雖行而其弊不足以制其本不足以困其民矣豐年之直不過五斗則凶歲之錢又不足論
 칙전수행이기폐부족이제기본부족이곤기민의풍년지직부과오두칙흉세지전우부족론
 矣行之十年上下俱便治平可期矣直錢而利薄則富者閉其錢商賈不畜其錢居官者不斂其
 의행지십년상하구편치평가기의직전이리박칙부자폐기전상가부축기전거관자부렴기
 錢錢幣流行不求止而自止又何以錢弊爲憂哉
 전전폐류행부구지이자지우하이전오위우재

錢弊說 (전폐설) 화폐의 폐단에 대한 고찰

오늘날의 큰 문제는 돈과 화폐이며, 이것이 의심스럽다면 결국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니, 나라가 나라로서 존립하지 못하고, 백성이 백성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며, 마침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얻은 바가 있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글로 남겨 후세의 사람들에게 맡겨 둔다.

돈이 없는 나라가 없지만, 상고 시대에는 돈이 해가 되지 않았다. 말세(季世)로 갈수록 돈이 백성의 주머니에 가득하니, 이는 반드시 화폐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상고 시대에는 비단과 곡식이 경제의 근본이었고, 돈은 그 보조적인 수단이었다. 늘 경제의 근본(本, 本)이 보조 수단(권, 權)을 제어하게 했으므로, 권이 본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갈아 곡식을 얻고, 누에를 치고 실을 뽑아 옷을 지었으며, 가축을 길러 고기를 얻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집안에서 나왔고, 다만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이 어려울 때 비로소 돈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돈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주로 도공(陶工), 대장장이(冶匠)와 같은 기술자들이었으며, 천하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 돈을 과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에 하(夏) 왕조의 우(禹) 임금이 공물을 정할 때 곡식과 비단만을 언급하고, 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주(周)나라의 조세 제도에서도 오로지 비단과 곡물만을 강조했을 뿐 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채제공(蔡節齋)이 말하기를, "한 가정이 일 년 동안 돈을 사용하는 것은 제사, 손님 접대, 기물 구입을 포함하여 25 금(金)을 넘지 않는다. 흉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였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라면 어찌 돈이 해로울 수 있겠는가?

상부에서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였다.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물을 내게 하고, 연못과 강이 있는 곳에서는 어업을 통해 바칠 것을 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변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백성에게 돈을 직접 걷지 않았다. 그러므로 돈은 민간에서 유통되었을 뿐, 국가의 재정 수입을 이루는 주요 수단이 되지는 않았다.

춘추시대(春秋時代)에도 노(魯)나라는 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겼고, 성공(成公)이 새로운 세법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돈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것이 상고 시대의 돈이 해롭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후세로 갈수록, 곡식의 경제적 지위가 돈에 의해 제어되지 못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물건이 돈을 통해서만 거래되게 되었다. 시장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해졌으며, 한 농부가 일 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겨우 청동(靑銅) 반 줌 정도밖에 벌지 못하였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농업을 버리고 상업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국 술을 빚는 자도 돈을 찾고, 나무를 지게로 나르는 자도 돈을 요구하며, 채소를 파는 자도 돈을 받으려 하게 되었다.

마을과 도시의 거리는 온통 돈으로 가득 찼고, 그 가운데 부유한 자들은 돈을 독점하며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창고 가득 돈을 쌓아두고, 흉년을 틔타 폭리를 취했다. 심지어 봄에는 돈을 풀어 물건을 싸게 사들이고, 가을에는 돈을 거둬들여 높은 가격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졌다.

게다가, 정부가 백성들에게 걷는 세금도 모두 돈으로 내게 하였다.

토지세(田稅)도 돈, 군대에 공급하는 천(軍布)도 돈, 진상품(貢木)도 돈, 각 부서의 공납물도 돈, 궁궐의 물품 조달도 돈,

이렇게 모든 것이 돈으로 바뀌자, 백성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더욱 궁핍해졌다. 그런데 지방 관리는 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다.

"땀감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고, "병사를 교대한다"는 핑계로 돈을 징수하며,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쥐어짠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나무를 베어야 하고,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의 탐관오리는 단지 실물을 빼앗는 정도였으나, 지금의 관리들은 오직 돈만을 탐하여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왕희(王錫爵)는 말하기를, "문관이 벼슬을 탐내지 않고, 무관이 돈을 탐내지 않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무관만이 아니라 모든 관리들이 돈을 탐하고 있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려고 결포제(結布制), 호포제(戶布制), 구전제(口錢制) 같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나라(唐)의 말기에는 결부제가 시행되었으나, 백성이 더욱 피폐해졌다. 고려(麗) 말기의 호부제도 결국 나라를 쇠락하게 만들었다. 한나라(漢)의 구전제도 결국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려 했던 임시방편에 불과했으며,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만약 단번에 화폐 경제를 없애려고 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곳곳에는 이미 공공 자금이 존재하고, 군대에도 비축된 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행한다면 화폐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화폐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정부가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돈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도록 법률을 강화한다.

국가 세금의 일부를 실물(곡물, 비단 등)로 걷으며 모든 세금을 화폐로 징수하지 말고, 일부는 실물로 내도록 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인다.

부유층의 화폐 독점을 막아서 돈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여 시장에 돈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을 10년 정도 시행하면, 경제가 안정되고 화폐의 폐단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躑躅杖說 척촉장설

余火而肥五十後杖最力所居遠於山杖不可得歲癸未春隣居林姓人進一杖躑躅之佳者愛
여화이비오십후장최력소거원어산장부가득세계미춘린거림성인진일장척촉지가자애
之常不離手家人誤踐而折其半甚惜無奈杖何今年春從金正言巨卿得馬價木一杖雖不如
지상부리수가인오천이절기반심석무내장하금년춘중김정언거경득마가목일장수부여
前所得者而亦堅直可杖杖而來葛山從載卿赴人之藥而杖去幕歸曰為某乙所奪未幾第三
전소득자이역견직가장장이래갈산중재경부인지약이장거막귀왈위모을소탈미기제삼
兒自山下而來曰適逢一居士自金剛來而背負躑躅二杖借一而選於二逖進之果最良而比
아자산하이래왈적봉일거사자김강래이배부척촉이장차일이선어이적진지과최량이비
林之所納尤奇也數其節節九計其長一身又一尺上有耳垂而復寨古之方竹綠玉吾不見而
림지소납우기야수기절절구계기장일신우일척상유이수이복채고지방죽록왕오부견이

雖見之不必以此易被也吾歎曰是物也生楓巖石确之間飽海風耐霜雪全其天者不知幾許
 수견지부필이차역피야오탄왈시물야생풍암석학지간포해풍내상설전기천자부지기허
 年而貴人達士縑徒息肄踵接未嘗取而爲杖獨一居士爲自家之物越五臺過太白而南走五
 년이귀인달사치도식이중접미상취이위장독일거사위자가지물월오대과태백이남주오
 百里能無恙未知居士非庸常人而致此耶杖與我有分而然耶居士得之層巖截壁而我不勞
 백리능무양미지거사비용상인이치차야장여아유분이연야거사득지층암절벽이아부로
 而爲已有固不偶異也然而杖之止於扶傾危備險艱而已則只一瞽相也必植之而思其直叩
 이위이유고부우이야연이장지지어부경위비험간이이척지일고상야필식지이사기직고
 扶傾危備險艱而已則只一瞽相也必植之而思其直叩之而想其剛乃不負杖也
 부경위비험간이이척지일고상야필식지이사기직고지이상기강내부부장야

戊子四月日晚農圃翁書
 무자사월일만농포옹서

躑躅杖說 (철쭉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

내가 나이가 들어 오십을 넘기자,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힘이 덜 들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은 산에서 멀어 좋은 지팡이를 구하기 어려웠다.
 계미년(癸未年) 봄에 이웃에 사는 임(林)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철쭉나무로 만든
 훌륭한 지팡이 하나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이를 무척 아껴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집안사람이 실수로 그 지팡이를 밟아 반으로 부러뜨렸다. 너무도
 애석했지만, 부러진 지팡이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올해 봄, 김정언 거경(金正言 巨卿)에게서 마가목(木)으로 만든 지팡이를 하나
 얻었다. 비록 전에 가졌던 철쭉 지팡이만큼 훌륭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단단하고 곧아서 사용할 만했다.

이 지팡이를 짚고 갈산(葛山)으로 가서 재경(載卿)과 함께 약을 구하러 갔다.
 그러나 그 길에서 어떤 자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아들이 산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말하기를, 금강(金剛)에서
 온 한 거사가 등을 짚고 철쭉 지팡이 두 개를 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는 그 중 하나를 빌려 보았고, 두 개를 비교하여 보니 한 개가 더욱 뛰어났다.

이 지팡이는 이전에 임 씨가 주었던 것보다도 더욱 특별한 것이었다. 마디를 세어보니 아홉 개였고, 길이는 내 키보다 한 자(尺) 더 길었다. 그 위에는 작은 귀처럼 늘어진 마디가 있고, 다시 둥글게 감겨 있었다. 이는 마치 옛날 방죽(方竹, 네모난 줄기를 가진 대나무)이나 녹왕(綠王, 특이한 푸른 대나무)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 지팡이를 본 적이 없지만, 비록 본다 하더라도 다른 것과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탄식하며 말했다.

"이 지팡이는 바위 틈과 단단한 바위 사이에서 자라나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리와 눈을 견디며 본래의 모습을 유지해 왔을 것이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귀인(貴人)과 학자(達士), 그리고 중(緇徒)들이 오가면서도 이를 베어 지팡이로 삼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직 한 거사만이 자신의 물건으로 삼아 오대산(五臺山)을 넘고 태백산(太白山)을 지나 남쪽으로 오백 리를 여행하는 동안 잃지 않았다."

"이 거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에 이런 귀한 지팡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 지팡이가 나와 인연이 있어서 내 것이 된 것인가?"

"거사는 깎아지른 절벽을 넘어 얻었지만, 나는 아무런 수고 없이 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팡이가 단순히 몸을 기대어 위험을 피하고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단지 장님이 길을 더듬는 데 쓰는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

반드시 이 지팡이를 세우고 곧음을 생각하며, 두드리며 그 단단함을 상상해야만, 지팡이를 헛되이 쓰지 않는 것이다.

무자(戊子)년 4월 저녁, 농부 옹(農圃翁) 씀.



小白遊山錄 소백유산록

辛巳四月初二日與舍仲仁卿將作小白之遊食後聯步向上葛山訪李沆書實之實之曰不利
신사사월초이일여사중인경장작소백지유식후련보향상갈산방리생서실지실지왈부리

於步不能躡後請以一卻購之受而發行主人追送於介峴遂緩步到鹿門查家其兄弟拂席而
어보부능섭후청이일소구지수이발행주인추송어개현수완보도록문사가기형제불석이

待益前已有約也仍留宿三日朝作小書請黃上舍聖徵同行辭以不能徒步食後主人兄弟及
대익전이유약야잉류숙삼일조작소서청황상사성징동행사이부능도보식후주인형제급

黃憲甫治發使童奴擔負五人所脫上衣年纔八歲猶能雀步而出甚可笑明仲使之齋糧三
황헌보치발사동노담부오룩인소탈상의년재팔세유능작보이출심가소명중사지재량삼

四升余曰童奴力弱何必持此漆負也曰吾凡干出入必持糧不持則心如有失笑而從之過盤
四升余曰童奴力弱何必持此漆負也曰吾凡干出入必持糧不持則心如有失笑而從之過盤

사승여왈동노력약하필지차서부야왈오범간출입필지량부지칙심여유실소이종지과반
사승여왈동노력약하필지차서부야왈오범간출입필지량부지칙심여유실소이종지과반

松訪丁處安從兄弟大卿成之適外出使人數之蓋欲與之同行也處安曰吾有脚童不可作行
松訪丁處安從兄弟大卿成之適外出使人數之蓋欲與之同行也處安曰吾有脚童不可作行

송방정처안중형제대경성지적외출사인수지개욕여지동행야처안일오유각동부가작행
송방정처안중형제대경성지적외출사인수지개욕여지동행야처안일오유각동부가작행

成之亦有親病似難離側聞之甚悵且有雨意成之未到而先發仍向仙巖拜金上舍從叔雨意
成之亦有親病似難離側聞之甚悵且有雨意成之未到而先發仍向仙巖拜金上舍從叔雨意

성지역유친병사난리측문지심정차유우의성지미도이선발잉향선암배김상사중권우의
성지역유친병사난리측문지심정차유우의성지미도이선발잉향선암배김상사중권우의

未已促發到孤巖雨脚飄灑遂入道傷民家一行似有飢乏之症出其所持糧作午飯明仲之見
未已促發到孤巖雨脚飄灑遂入道傷民家一行似有飢乏之症出其所持糧作午飯明仲之見

미이촉발도고암우각표쇄수입도상민가일행사유기핍지증출기소지량작오반명중지견
미이촉발도고암우각표쇄수입도상민가일행사유기핍지증출기소지량작오반명중지견

至此有效相看一笑晚後雨霽發行向沙川乘暮投徐從輔卿家欣迎而笑曰老從此行甚是異
至此有效相看一笑晚後雨霽發行向沙川乘暮投徐從輔卿家欣迎而笑曰老從此行甚是異

지차유효상간일소만후우제발행향사천승모투서종보경가혼영이소왈로종차행심시이
지차유효상간일소만후우제발행향사천승모투서종보경가혼영이소왈로종차행심시이

事俄而丁仁仲及徐昌俊諸人來話遂留宿夜雨又作四日朝快晴明仲兄弟及憲甫訪徐昌鏡
사아이정인중급서창준제인래화수류숙야우우작사일조쾌청명중형제급헌보방서창경

朝飯後相會正甫從兄弟或有故或有病不能同行以五十星嘯行即與輔卿仁仲及黃孟賓步
조반후상회정보중형제혹유고혹유병부능동행이오십성소행즉여보경인중급황맹빈보

上竹洞小憩于後村巖石上或曰故老傳云此巖中藏銀鞍及銀器覆之以大石古有竹溪倅命
상죽동소계우후촌암석상혹일고로전운차암중장은안급은기복지이대석고유죽계취명

石手伐之雷雨大作懼而乃止云諦視之果如磨蟻之蓋覆然甚吊詭過栗林登吾山亭土築如
석수벌지되우대작구이내지운체시지과여마의지개복연심적쾌과를림등오산정토축여

覆盃而上植梧柳蓋本府玉山即飛鳳山取其非梧桐不棲之義也
복배이상식오류개본부옥산즉비봉산취기비오동부서지의야

余原韻仁卿輔卿仁仲次韻又詠
여원운인경보경인중차운우영

소백산 여행기

신사년(辛巳年) 4 월 초이튿날, 나는 사중(舍仲)과 인경(仁卿)과 함께 소백산을
유람하고자 길을 떠났다. 점심을 먹은 후 발걸음을 맞추어 상갈산(上葛山)으로
향하여 이생(李洸) 서실(書室)을 찾았다. 실지(實之)가 말하기를, “도보 여행은

힘드니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한 소(邵)를 주시면 그만큼 거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비용을 주고 길을 나섰다. 주인은 개현(介峴)까지 따라와 배웅해 주었고, 우리는 느릿하게 걸어 사슴문(鹿門) 차씨(查家) 형제의 집에 도착하였다. 형제들은 미리 약속이 있었던 터라 자리를 정리하여 우리를 맞아 주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아침에 간단한 서찰을 작성하여 황상사(黃上舍) 성징(聖徵)에게 함께 가자고 청하였으나, 그는 도보 여행이 어렵다며 사양하였다. 점심을 먹은 뒤 주인의 형제들과 황헌보(黃憲甫)가 떠날 준비를 마쳤고, 어린 하인이 우리 짐을 나르기로 하였다. 이 하인은 겨우 여덟 살이었지만, 참새처럼 깡충깡충 뛰며 잘 따라왔다. 매우 우스운 광경이었다. 명중(明仲)이 그 하인에게 길쌀(齋糧) 서너 되를 들려주자 나는 말했다.

“어린 하인이 힘이 약한데 굳이 이 짐까지 지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자 명중이 대답했다.

“나는 어디를 가든 반드시 양식을 지참한다. 만약 가져가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 견딜 수가 없다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따랐다.

반송(盤松)을 지나 정처안(丁處安)의 집을 방문하니, 그의 형제인 대경(大卿)과 성지(成之)는 마침 외출 중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동행할 의사를 물었다. 그러자 처안이 말하기를, “나는 발이 불편한 하인이 있어 여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고, 성지는 친족이 병이 들어 걸을 떠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안타까웠다.

이때 하늘에는 비가 올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성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출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선암(仙巖)으로 가서 김상사(金上舍)에게 인사를 드린 뒤 다시 길을 떠났다.

고암(孤巖)에 도착했을 무렵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침 민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비를 피하였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여행 중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였다. 우리는 가져온 쌀을 나누어 점심을 마련하였다. 이를 본 명중이 의미 있게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자 비가 개었고, 우리는 사천(沙川)으로 향하였다. 해가 질 무렵 서종보(徐從輔卿)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는 기쁘게 맞으며 말했다.

“이렇게 먼 길을 함께하시다니, 참으로 특별한 일이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인중(丁仁仲)과 서창준(徐昌俊) 등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날 밤 그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밤이 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4일 아침, 날씨가 쾌청하게 개었다. 명중 형제들과 헌보(憲甫)가 서창경(徐昌鏡)을 방문한 후 함께 아침을 들었다. 정보(正甫)의 형제들 가운데 일부는 일이 있거나 병이 들어 동행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여행 경비로 50 성을 걷어 길을 나섰다. 곧바로 보경(輔卿), 인중(仁仲), 황맹빈(黃孟賓)과 함께 죽동(竹洞)으로 향하였다.

마을 바위 위에서 잠시 쉬다가 이야기를 들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이 바위 아래 은으로 만든 안장과 은기(銀器)가 묻혀 있는데, 그 위를 큰 돌로 덮어 놓았다고 한다. 옛날에 죽계(竹溪) 지역의 관리가 돌을 깨뜨리고 캐내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천둥과 폭우가 몰아쳐 두려워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마치 연마한 개미 떼처럼 반질반질한 모양이 있어 기이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밤나무 숲을 지나 오산정(吾山亭)에 올랐다. 이곳은 마치 뒤집어 놓은 잔처럼 생긴 흙산(土築) 위에 오동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었다. 본래 본부(本府)의 옥산(玉山)이 곧 비봉산(飛鳳山)인데, 오동나무가 아니면 봉황이 깃들지 않는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라 한다.

나는 시를 짓고, 인경(仁卿), 보경(輔卿), 인중(仁仲)도 차례로 화답하며 시를 읊었다.

飛鳳山 비봉산

飛鳳山三人又次遂向鄉校校東有鄉閭壇卽安文成公舊基也其子孫設壇豎碑以祀云全又
비봉산삼인우차수향향교교동유향려단즉안문성공구기야기자손설단수비이사운전우
成一絕三人又次遂入校招首僕付小紙邀黃注書季則及白雲洞有司李君善皆以隣人加土
성일절삼인우차수입교초수복부소지요황주서계척급백운동유사리군선개이린인가토

墳塋事出去又使校僕傳札其所請無歸而直造雲院仍向四賢井窺井洩可數丈飲之甚清冽
 分塋사출거우사교복전찰기소청무귀이직조운원잉향사현정규정수가수장음지심청렬
 井上有石刻四賢井三字仁卿先占一律三人各步琴上舍天機適到院中亦次其韻明仲亦次
 정상유석각사현정삼자인경선점일를삼인각보금상사천기적도원중역차기운명중역차
 井仿有補孝述家訪之則亦與季則同行矣絮語應門之童使之夕後相訪乃松川而上清流白
 정방유보효술가방지척역여계척동행의서어응문지동사지석후상방내송천이상청류백
 石戛戛鳴瀉遙望院宇隱暎於松竹之一間先輩藏修可謂得其所牟余獨詠一律送登寒臺開
 석알알명사요망원우은영어송죽지일간선배장수가위득기소모여독영일를송등한대개
 襟溯風又上光風臺日已夕美溪溯不可涉招院僕背負以渡上景濂亭敬讀退翁慎齋板上韻
 금소풍우상광풍대일이석미계소부가섭초원복배부이도상경렴정경독퇴옹신재판상은
 左右多名賢和之者俄而黃季則李君善來仁卿步板上韻余亦步仁仲輔卿明仲亦和之君善
 좌우다명현화지자아이황계척리군선래인경보판상은여역보인중보경명중역화지군선
 請座中諸人八明倫堂過客三人先而在堂或云居昌原或曰居禮山或云居永春皆安姓而名
 청좌중제인팔명륜당과객삼인선이재당혹운거창원혹왈거례산혹운거영춘개안성이명
 則恩之矣夜坐討話之際朴季述亦如約而至夜分後各就寢五日晴季則以緊關事暫往其家
 칩은지의야좌토회지제박계술역여악이지야분후각취침오일청계척이긴관사잠왕기가
 食後始發山行以季則不來等待于景濂亭俄有二人乘馬馳來其一知其為季則其一不知誰
 식후시발산행이계척부래등대우경렴정아유이인승마치래기일지기위계척기일부지수
 某漸近則乃趨相觀君善也併是客中逢着約外又添一好友其喜可掬相與徒步上錦城壇余
 모점근척내조상관군선야병시객중봉착약외우침일호우기희가국상여도보상금성단여
 先占一律天機仁卿仁仲輔卿季則各次壇前有鴨脚樹錦城之禍興州廢而此樹枯者幾數百
 선점일를천기인경인중보경계척각차단전유암각수금성지화흥주폐이차수고자기수백
 年及癸亥復設之後回生至今茂盛甚異事余先占一律仁仲仁卿步李君善指壇之東邊小丘
 년급계해복설지후회생지금무성심이사여선점일를인중인경보리군선지단지동변소구
 曰此錦城大君圍籬處也徘徊顧望可想當時之事遂緩步勢筇次第而行季述爲首季翼爲末
 왈차금성대군위리쳐야배회고소가상당시지사수완보핵공차제이행계술위수계익위말
 十步一休洞天幽邃奇花異草令人忘疲清流白石灑滌曾襟飄然有出世之想矣每於溪之曲
 십보일휴동천유수기화이초령인망피청류백석쇄척증금표연유출세지상의매어계지곡
 處立石識之余曰此誰爲也季則曰申使君弼夏有山水癖名之九曲第一曲自霽月橋始而九
 처립석식지여왈차수위야계척왈신사군필하유산수벽명지구곡제일곡자제월교시이구
 曲終於草莽青雲臺余曰若非紹修書院在於下流好箇名勝殆爲佛氏所有矣
 곡종어초망청운대여일약비소수서원제어하류호개명승태위불씨소유의

비봉산(飛鳳山)

우리 세 사람은 다시 시를 주고받고 나서 향교(鄕校)로 향했다. 향교의 동쪽에는 향려단(鄕閭壇)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안문성공(安文成公)의 옛 터였다. 그 후손들이 단을 세우고 비석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전(全)이 또 한 수의 절구를 짓자, 우리 세 사람도 차례로 화답하였다.

이후 향교 안으로 들어가, 수복(首服)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고, 황 주서(黃注書)와 계칙(季則) 그리고 백운동(白雲洞)의 이군선(李君善)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 무덤을 다지는 일로 바빠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다시 향교의 하인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했으나, 그들 중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직접 운원(雲院)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사현정(四賢井)을 들여다보니, 우물 속의 물이 몇 길이나 되어 보였고, 마셔보니 매우 맑고 시원하였다. 우물 위에는 ‘사현정(四賢井)’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인경(仁卿)이 먼저 한 수의 읊시를 지어 화답하였고, 우리 세 사람도 차례로 시를 지었다. 마침 금상사(琴上舍) 천기(天機)가 도착하여 우리와 합류하였으며, 명중(明仲) 역시 이를 따랐다.

우물가에서 노닐다가 효숙가(孝述家)를 방문하였는데, 마침 그도 계칙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며 저녁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송천(松川)을 따라 올라갔다. 맑은 물이 흰 돌을 두드리며 시원하게 흘러내렸고, 멀리서 바라보니 사찰이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서 선배들이 학문을 닦으며 은거하였으니, 과연 좋은 터라 할 만하였다. 나는 한 수의 읊시를 읊었고, 한기가 불어오는 찬대(寒臺)에 올라 다시 시를 지었다. 이어 광풍대(光風臺)에 올랐는데, 이미 해가 저물어 냇물을 거슬러 건널 수가 없었다. 결국 사찰의 하인에게 우리를 업고 건너게 하였다.

우리는 경렴정(景濂亭)에 이르러, 퇴옹(退翁) 신재(愼齋) 선생의 글을 경건하게 읽었다. 그곳에는 많은 명현(名賢)들이 남긴 시문이 가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 계칙(黃季則)과 이군선(李君善)이 도착하였고, 인경도 시를 짓고 차례로 화답하였다. 나 또한 명중, 보경(輔卿)과 함께 시를 지었고, 명중도 이에 응답하였다.

이군선은 좌중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명륜당(明倫堂)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먼저 온 손님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거창 출신이라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예산 출신, 또 다른 이는 영춘 출신이라 하였다. 모두 성은 안씨였으며, 이름은 ‘은(恩)’ 자가 들어간다고 하였다.

밤이 깊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 계술(朴季述)이 약속대로 찾아왔다. 밤이 깊자 우리는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오곡단과 구곡(九曲)

5일 아침, 맑게 갠 하늘 아래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계척이 급히 집안일을 보러 가야 해서, 우리는 점심을 먹은 후 출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고, 우리는 경림정에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빠르게 다가왔다. 한 사람은 계척임이 분명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였다. 점점 가까워지자, 그가 바로 조상관(趙相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뜻밖에도 타지에서 새로운 벗을 만나게 되어 기쁨이 더할 나위 없었다.

우리는 함께 걸어서 금성단(錦城壇)으로 향하였다. 나는 먼저 한 수의 율시를 읊었고, 인경, 인중(仁仲), 보경, 계척도 차례로 시를 지었다. 단 앞에는 오리발나무(鴨脚樹)가 서 있었는데, 예전에 금성의 화재로 인해 이곳이 폐허가 되었을 때 나무가 거의 말라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계해년(癸亥年)에 다시 이곳을 정비한 후 나무가 되살아나, 오늘날까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는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나는 한 수의 율시를 더 지었고, 인중과 인경도 이를 따라 시를 지었다. 이군선이 단의 동쪽 작은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이 바로 금성대군(錦城大君)이 포위당했던 곳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옛일을 회상하였고,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다음 행선지로 향하였다. 계술(季述)이 선두에서 길을 이끌고, 계익(季翼)이 맨 뒤에서 따랐다. 우리는 열 걸음을 가고 한 번 쉬며, 동천(洞天)의 깊은 골짜기 속을 걸었다. 기이한 꽃과 풀들이 무성하여 걷는 피로를 잊게 만들었다.

맑은 시내와 희고 깨끗한 바위들이 우리를 맞이하며, 저절로 세속을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냇물이 굽이치는 곳마다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물었다.

“이 글자는 누가 새긴 것입니까?”

계척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신사군(申使君) 필하(弼夏)가 산수를 사랑하여 아홉 구비(九曲)라 명명한 곳입니다. 첫 번째 구비는 제월교(霽月橋)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아홉 번째 구비는 초목청운대(草莽靑雲臺)에서 끝납니다.”

나는 말하였다.

“만약 이곳에 서원이 자리 잡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명승지는 아마도 불교 사찰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仁卿先占一絕余亦步仁仲輔卿又次途憩于三槐亭下或曰古人所植三槐而一則草卷二則
인경선점일절여역보인중보경우차도계우삼괴정하혹왈고인소식삼괴이일칙초권이칙
聖穴三則浮石以三樹之隨時榮悴卜三寺之盛衰此亦近於誕妄傢有喪孝子純之間余問有
성혈삼척부석이삼수지수시영취복삼사지성쇠차역근어탄망가유상호자순지간여문유
後孫乎季述日無矣余感而獨吟一絕因沿溪而上一轉一回色色新面遙聞吼雷之聲掀山撼
후손호계술일무의여감이독음일절인연계이상일전일회색색신면요문후퇴지성흔산감
谷季則曰龍湫也仁卿先占五言一律余及輔卿仁仲次有老僧數人來拜前導時丹青掩暎於
곡계칙왈룡추야인경선점오언일률여급보경인중차유로승수인래배전도시단청암영어
林木之間清磬之聲因風而來眞別界也氣勢布置雖不及海印浮石而幽趣妙觀殆過乎兩剎
림목지간청경지성인풍이래진별계야기세포치수부급해인부석이유취묘관태과호량찰
仁卿遂占一律余及仁仲輔卿共次登寺樓滿目奇觀無非化翁精神團者天窪者谷突者石呀
인경수점일률여급인중보경공차등사루만목기관무비화옹정신단자천와자곡돌자석하
者泉近簷而呼者鳥臨岸而笑者花落而過者雲也淡淡而來者月也頽然而坐啞然而語者
자천근첨이호자조림안이소자화용용이과자운야담담이래자월야퇴연이좌아연이어자
客與僧也若得龍眠蓋手摸出數幅生艸安知不為東國勝蹟也其樓日凝碧扁額甚奇古輔卿
객여승야약득룡면신수모출수폭생소안지부위동국승적야기루일응벽편액심기고보경
悽然曰此吾王父未弱冠時所書也一座竦然稱奇余先成一絕仁卿仁仲輔卿次之樓下有一
처연왈차오왕부미약관시소서야일좌송연칭기여선성일절인경인중보경차지루하유일

大巖高十許丈廣可坐數十人義相初名曰白雲臺退翁復改以青雲臺蓋以有白雲洞故也基
대암고십허장광가좌수십인의상초명왈백운대퇴옹복개이청운대개이유백운동고야기
上有松今折而只有其根大可數十圍或曰義相所植或曰退溪先生所植若果是先生手栽則
상유송금절이지유기근대가수십위혹왈의상소거혹왈퇴계선생소식약과시선생수재칙
其愛惜之者不但今日吾輩而止耳仁卿先題五言一律仁仲輔卿及余次之暮後僧進白飯青
기애석지자부단금일오배이지이인경선제오언일를인중보경급여차지모후승진백반청
菜皆山中異味也夜來氣清魂冷不能成寐罔鍾歷歷可數恨不於三十年前來讀書也六日天
채개산중이미야아래기청혼랭부능성매령종력력가수한부어삼십년전래독서야륙일천
氣清日候暖僧進曰今日政合遊觀也促進朝食遂使健僧負午飯作前導次第步向金堂行幾
기청일후난승진왈금일정합유관야촉진조식수사건승부오반작전도차제보향김당행기
五里有胎封乃新羅故封也季翼孟實踐履爭先吾輩則仰觀而止少年銳氣良可健羨有一漢
오리유태봉내신라고봉야계익맹실천리쟁선오배척양관이지소년윤기량가건선유일한
自草寺後一行問何人曰俺乃本府席匠生長於國峯下一未登覽常以為恨偶見行次故敢隨
자초사후일행문하인왈엄내본부석장생장어국봉하일미등람상이위한우견행차고감수
後而來余日山水之趣豈有上下之別與爾同苦無甚相妨寸寸而進隰有山芥原有芍藥異香
후이래여일산수지취기유상하지별여이동고무심상방촌촌이진습유산개원유작약이향
攤鼻清韻襲人若使世間無仙則已有則安知不在此間耶粵我退陶先生杖屨來臨一巖一石
탄비청운습인약사세간무선척이유척안지부재차간야월아퇴도선생장구래림일암일석
皆經題品而生光則晚生後學不能陪遊於當時寄目送眺惡得無感慨之懷耶到山腰有廢卷
개경제품이생광척만생후학부능배유어당시기목송조악득무감개지회야도산요유편권
名曰石崙後有大巖蹲踞數百丈上有石味如飛鳳之味名曰鳳巖翼然而俯南臨七十州其下
명왈석륜후유대암준거수백장상유석미여비봉지미명왈봉암익연이부남림칠십주기하
又有卧巖可坐百人巖腹上邊空虛入之來遊者俯入其穴而窺之則又有第二穴同行多人觀
우유와암가좌백인암복상변공허입지래유자부입기혈이규지척우유제이혈동행다입관
者綠草生潛山島集屋引槽之水只自邈邈射雷而鳴余歎曰如此絕界未見一僧今世亦無景
자록초생개산도집옥인조지수지자막막사퇴이명여탄왈여차절계미견일승금세역무경
之緇徒也或曰此卷有僧則遊觀者便於留宿故不堪其苦而樂其廢也此亦觀世道也有兩田
지치도야혹왈차권유승척유관자편어류숙고부감기고이악기폐야차역관세도야유량전
夫種麻者問之乃邑中人遂使帶來僧借小鑪煮湯泉而十二人爭先飲飲或盡數碗人皆稱快
부종마자문지내읍중인수사대래승차소당자탕천이십이인쟁선음음혹진수완인개칭쾌
仁卿先占一律余與仁仲輔卿共大少焉又緣崖而上俄而始到石廩峯巖石嵯峨積如廩庫古
인경선점일를여여인중보경궁대소언우연애이상아이시도석름봉암석차아적여름고고

人命名之意其以是耶余獨占一絕左右顧望但覺天高而地迥又轉而登紫蓋峯與石廩同又
 인명명지의기이시아여독점일절좌우고망단각천고이지형우전이등자개봉여석름동우
 占一絕先使所帶僧於國望峯有水處以所借小鑪煎水設午飯坐峯腰而望之正如天台頂上
 점일절선사소대승어국망봉유수처이소차소당전수설오반좌봉요이망지정여천태정상
 生一抹紫煙子瞻所謂飄然若羽化而登仙者何以加此遂趨於煎茶之所僧以十二器白飯列
 생일말자연자침소위표연약우화이등선자하이가차수추어전다지소승이십이기백반렬
 置各前在巖上者二人在鼎傷者三人在小逕之左右者八人人皆有氣乏之症右手執匙左手
 치각전재암상자이인재정상자삼인재소경지좌우자팔인인개유기핍지증우수집시좌수
 摘香菜裹飯而吞下皆曰仙味手傳口受咀嚼狼藉既罷又緣北厓始登所謂國望峯者果壯觀
 적향채과반이탄하개왈선미수전구수저작한자기과우연북애시등소위국망봉자과장관
 也頗年余作寧海之行登觀魚臺而臨東海一望無際但西北南三向大山壓頭而高其不礙者
 야송년여작녕해지행등관어대이림동해일망무제단서북남삼향대산압두이고기부애자
 只一面而已此則四百皆觀魚臺之塑也其大畧在於仁卿所記
 지일면이이차척사백개관어대지소야기대략재어인경소기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서 마을 학교로 향하였다. 학교의 동쪽에는 향리의
 제단(鄉閭壇)이 있었는데, 이는 곧 안문성공(安文成公)의 옛 터였다. 그 자손들이
 제단을 세우고 비석을 세워 그를 기리고 있다고 한다. 전씨(全氏)가 또 한 수의
 절구(絕句)를 지었다.

세 사람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예를 표하고, 작은 종이에 초서(抄首)를 써서
 황(黃)씨 서기(書記)인 계칙(季則)과 백운동(白雲洞)의 관리 이군선(李君善)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모두 이웃이라서 선산의 무덤을 보살피 주는 일을 맡아보았다.
 또한 학교 하인에게 서찰을 전달하게 했으나, 받지 못하고 바로 운원(雲院)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사현정(四賢井)을 바라보니, 우물 깊이가 수장(數丈)이 넘었다. 물을 떠
 마셔 보니 아주 맑고 시원하였다. 우물 위에는 ‘사현정(四賢井)’이라는
 석각(石刻)이 새겨져 있었다.

인경(仁卿)이 먼저 한 수의 율시(律詩)를 지었고, 세 사람은 차례로 그 운을
 따랐다. 마침 상사(上舍) 천기(天機)가 정원에 도착하여 운을 맞추었으며,
 명중(明仲) 또한 이에 화답하였다.

이후, 계척과 함께 백운동을 방문하려 했으나 그는 선행하여 떠났고, 문 앞의 아이에게 늦은 저녁에 다시 찾아오도록 전했다.

소나무 숲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은 백색의 돌을 씻으며 부딪쳐 소리를 냈다. 멀리서 정자가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가려져 아련히 보였다. 선배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닦았으니, 그야말로 알맞은 장소라 할 수 있었다.

나는 혼자 시를 한 수 읊으며 차가운 대에 올라가 바람을 맞이하였다. 이어서 광풍대(光風臺)에 올랐으나, 날이 이미 저물어 개울을 따라 올라갈 수 없었다. 이에 하인을 불러 등에 업히어 강을 건넜다.

其記曰訪白雲洞登景濂亭入草庵寺覽青雲臺登國望峯南望鶴駕清涼八公枷椰諸山累累
기기왓방백운동등경렴정입초암사람청운대등국랑봉남망학가청량팔공가야제산루루
若丘垤然北而望之近而雉月兩岳遠而烏鴨龍門其餘衆山縱橫奔走盤礴糾結出沒於雲際
약구질연북이망지근이치월랑악원이오압룡문기여중산종횡분주반박규결출몰어운제
者不可勝記而與國望峯相等夷者絕無焉三峯冠岳清溪遙不可辨而漢陽城址若或俯覩焉
자부가승기이여국망봉상등이자절무언삼봉관악청계요부가변이한양성지악혹부도언
峯以國望名豈誣也哉將歸題名于峯頭之石與是遊者錦城朴季述漢陽趙向卿暨其弟仁卿
봉이국망명기무야재장귀제명우봉두지석여시유자금성박계술한양조향경기기제인경
豐壤趙君善檜山黃明仲季翼昆季減甫孟賓錦城丁仁仲昌原黃季則花園徐輔卿羽溪李君
풍양조군선회산황명중계익곤계감보맹빈금성정인중창원황계척화원서보경우계리군

善並十二人
선병십이인

時再崇禎辛巳清和六日仁卿記
시재승정신사청화륙일인경기

백운동을 방문하고 국망봉에 오르다

우리 일행은 백운동(白雲洞)을 찾아 나섰다. 경렴정(景濂亭)에 올라 풍경을 감상한 후 초암사(草庵寺)에 들러 청운대(靑雲臺)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국망봉(國望峯)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학가산(鶴駕山)과 청량산(淸涼山), 팔공산(八公山)과 가야산(伽倻山)의 여러 봉우리가 연이어 솟아 있어 마치 작은 언덕들이 겹겹이 쌓인 듯한 모습이었다.

북쪽을 바라보면 가까이에는 치월산(雉月山)과 양악(兩岳)이 있었고, 멀리에는 오압산(烏鴨山)과 용문산(龍門山)이 보였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산들이 가로세로로 얹혀 달리듯이 뻗어 있고,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습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국망봉과 높이가 대등한 봉우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삼봉(三峯)과 관악산(冠岳山), 그리고 멀리 흐르는 맑은 개천은 분간하기 어려웠으며, 한양(漢陽)의 성터는 마치 내려다보이는 듯이 보였다. ‘국망(國望)’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하산하기 전, 국망봉 정상에 바위에 이름을 새겼다. 이날 함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금성 박계술, 한양 조항경 및 그의 동생 인경, 풍양 조군선, 회산 황명중, 계익곤계 감보와 맹빈, 금성 정인중, 창원 황계척, 화원 서보경, 우계 이군선

총 12 명이 함께한 이 여행은 숭정 연간 신사년(辛巳, 1641 년) 청화(淸和) 6 일에 이루어졌으며, 인경이 이를 기록하였다.

仁仲季述孟賓日仁仲登茲峯者三季述登茲峯者二孟賓登茲峯者一皆無無風之日雖重裘
인중계술맹빈일인중등자봉자삼계술등자봉자이우빈등자봉자일개무무풍지일수중구
寒氣逼骨冠不得着意思愁亂不能領畧江山今則天朗日煖無一點風且無遠山雲靄被東西
한기빚골관부득착의사수란부능령략강산금척천랑일난무일점풍차무원산운애피동서
南北之尖然渺然皆曩時所未見也會笑曰徽山雲開冬月蜃出古亦有之吾輩今日之游殆神
남북지첨연묘연개낭시소미견야회소왈미산운개동월신출고역유지오배금일지유태신
之所餉乎於是十二人環坐絕頂之上指點顧盼樂而忘歸仁卿先占一律余及仁仲季則君善
지소향호어시십이인환좌절정지상지점고면악이망귀인경선점일를여금인중계척군선
輔卿孟賓和之憑甫日我之不文諸君皆知之莫笑無一語無詩勝有詩滿座皆笑日已西傾不
보경맹빈화지빙보일아지부문제군개지지막소무일어무시승유시만좌개소일이서경부
可久雷遂題名巖面而步下峯頭息脚已久比諸上來之時似若輕利行未數里足重力解万不
가구되수제명암면이보하봉두식각사구비제상래지시사약정리행미수리족중력해만부
如初矣仁仲及隱甫各伐山麻一根爲卻步步漸下不能住脚有如走坂之丸輾到小溪之濱所
여초의인중급은보각벌산마일근위각보보점하부능주각유여주관지환간도소계지빈소
謂聖穴又隔一嶺余曰強弩之末不能穿魯縞今一行之困甚於努末之弱而一嶺之隔不啻魯
위성혈우격일령여왈강노지말부능천로호금일행지곤심어노말지약이일령지격부시로

縞之薄信乎與目謀者不能謀其足也或先或後始到岑顛白足已來待矣遂到寺門洞察無一
 호지박신호여목모자부능모기족야혹선혹후시도잠전백족이래대의수도사문동찰무일
 可觀而能與草菴齊名是必釋氏以聖佛出穴之誕說作一靈枉以欺愚民也校院下僕各持糧
 가관이능여초암제명시필석씨이성불출혈지탄설작일령왕이기우민야교원하복각지량
 饌來待晚後會進飯而山葉殆過於草庵是夜各自困憊即就枕七日雨自曉始終朝不止一行
 막래대만후회진반이산래태과어초암시아각자곤비즉취침칠일우자효시종조부지일행
 皆曰今日雖無雨實無起動之勢天幸雨此亦客中之好事也仁卿口占一律余與仁仲步明日
 개월금일수무우실무기동지세천행우차역객중지호사야인경구점일를여여인중보명일
 卽四月八日也遠近男女多來引燈及夜半僧輩擊鼓鳴磬金革之音雷動一壑着睡不得趙君
 즉사월팔일야원근남녀다래인등급야반승배격고명경김혁지음퇴동일학착수부득조군
 善以行色甚軀是日午後向邑內八日快晴食後齊出洞門水碓處處而鳴蓋雨後溪流添波也
 선이행색심곡시일오후향읍내팔일쾌청식후제출동문수대처처이명개우후계류침과야
 余入雲院午飯夕後到邑內季述季則君善止於其家明仲季翼憲甫以忌故直向鹿門吾兄弟
 여입운원오반석후도읍내계술계칙군선지어기가명중계익헌보이기고직향록문오형제
 聞梧麓諸友來待欲向浮石因與輔卿仁仲遂向沙川留宿九日兩終日仁仲又來復止宿十日
 문오록제우래대욕향부석인여보경인중수향사천류숙구일량종일인중우래복지숙십일
 欲向韶川聞上候靡寧遂還家
 욕향소천문상후미녕수환가

국망봉 정상에서의 유쾌한 순간과 하산의 어려움

조인중(趙仁仲)이 말하였다.

"나는 이 봉우리에 세 번 올랐고, 계술(季述)은 두 번, 맹빈(孟賓)은 한 번 올랐소.
 그런데도 지금껏 바람이 없는 날을 만나지 못하였소. 항상 두터운 옷을 걸쳐도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 시달렸으며, 모자를 쓸 수도 없었소. 그러니 산수를
 제대로 감상할 여유조차 없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하늘이 맑고 따뜻한 데다, 한
 점의 바람도 불지 않고, 동서남북의 모든 봉우리들이 아스라이 펼쳐져
 보이는구려. 이는 예전엔 한 번도 보지 못한 장관이라 할 만하오."

누군가가 웃으며 말하였다.

"산을 뒤덮은 먹구름이 걷히고, 한겨울에 해무가 피어오르는 것이야 예로부터
 있었던 일ियो. 오늘 우리의 이 여행은 하늘이 내려준 신비로운 선물이라 할
 만하오."

이에 열두 사람은 산 정상에 둘러앉아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을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인경(趙仁卿)이 먼저 오언율시(五言律詩)를 한 수 짓고, 나(余)와 인중(仁仲), 계척(季則), 군선(君善), 보경(輔卿), 맹빈(孟賓)이 차례로 화답하였다.

이때 평보(憑甫)가 말하였다.

"내가 글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터, 시 한 줄도 짓지 못했으니 부디 웃지 마시오. 하지만 차라리 아무 말 없는 것이, 어설픈 시를 남기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이에 모두 크게 웃으며,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더 머무를 수 없어 우리는 바위에 이름을 새기고 하산을 시작하였다.

하산길에 들어서서 잠시 쉬었으나, 올라올 때보다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다. 그러나 조금 더 내려가자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결국 처음보다 훨씬 힘들어졌다. 인중과 평보는 각기 산에서 자란 삼마(山麻, 산에서 자라는 대나무처럼 질긴 풀)를 꺾어 지팡이로 삼았으나,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점점 미끄러지며 내려가야 했다. 마치 경사진 언덕에서 구르는 공과 같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은 시내(溪) 근처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던 성혈(聖穴)은 여전히 한 고개 너머에 있었다. 나는 말하였다.

"강한 활도 마지막 힘이 다하면 겨우 얇은 비단조차 뚫지 못하는 법이오. 지금 우리의 지친 몸 상태는 활이 힘을 다한 것보다 더 심하오. 그런데도 이 마지막 고개 하나를 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비단보다 얇은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겠소? 결국 눈으로 보는 것과 발로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군요."

그렇게 저마다 속도를 달리하며 겨우 산 아래로 내려왔다. 흰 발우(白足, 신발을 신지 않은 스님) 한 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절에 도착하여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초암사(草庵寺)와 함께 이름이 나 있는 곳이니, 아마 불가(佛家)에서 "성스러운 부처가 동굴에서 나왔다"는 설화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 아닐까 싶었다.

절에서는 하인들이 미리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우리를 맞았다. 저녁을 먹고 나니 산에서 나는 나물들이 초암사의 것보다도 더 맛이 있었다. 이날 밤, 모두 지쳐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산속에서 맞이한 비 오는 하루

이튿날, 즉 7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다.

일행들은 말하였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오늘은 몸이 무거워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을 것이요. 오히려 하늘이 우리에게 휴식을 주었으니, 이것 또한 여행길에서 만난 다행한 일이라 하겠소."

조인경(趙仁卿)이 즉흥적으로 오언율시 한 수를 읊고, 나(余)와 조인중(趙仁仲)이 차례로 따라 지었다.

사월 초파일의 법회

이튿날은 4월 8일, 석가탄신일이었다. 곳곳에서 남녀들이 등을 들고 절로 향하였으며, 밤이 되자 승려들은 북을 치고 경쇠를 울렸다. 그 소리가 계곡을 울려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하여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조군선(趙君善)은 길 떠날 채비를 서두르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는 읍내로 향해야겠소."

여정을 마치고 귀향하다.

4월 8일은 화창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동굴문을 나섰다. 비 온 뒤라 개울에는 물살이 거세졌고, 수차(水車)들이 여기저기서 돌아가며 물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운원(雲院)에서 점심을 먹고 해 질 무렵 읍내에 도착했다. 박계술(朴季述), 황계칙(黃季則), 조군선(趙君善)은 집으로 돌아갔고, 황명중(黃明仲)과 계익(季翼), 헌보(憲甫)는 제사 일정이 있어 곧장 녹문(鹿門)으로 향했다.

우리 형제들은 오로록(梧麓)에서 온 여러 벗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석사(浮石寺)로 가기로 하였다. 이에 서보경(徐輔卿), 조인중(趙仁仲)과 함께 사천(沙川)으로 향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여정의 끝과 다시 일상으로.

4월 9일과 10일, 우리는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러던 중 조인중(趙仁仲)이 다시 찾아와 함께 하룻밤을 더 묵고, 10일에는 소식을 들었다. 상부(上部)의 일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말에, 결국 귀향하기로 하였다.

제 2 권

상량문(上樑文)

애사(哀辭)

제문(祭文)

서(序)

기(記)

발(跋)

上櫟文 상량문

安文成公影幀閣上櫟文 안문성공영정각상량문

曠百世而如隔晨朝儼然眞卣採衆議而用伸誠禮俎焉新祠無替後孫有待今日伏惟先生當
광백세이여격신조엄연진유채중의이용신성례환언신사무체후손유대금일복유선생당
麗朝文教之堙晦倡東方道學之淵源香燈諂神誰憐滿庭春草金臺購像復觀闕里生花火日
려조문교지인회창동방도학지연원향등침신수련만정춘초김탁구상복도궐리생화화일
展黼黻之猷賢殿清選晚歲寓羹牆之慕晦菴遺眞瞻國學而養育人才武夫猶知出布集經史
전보불지유현전청선만세우갱장지모회암유진섬국학이양육인재무부유지출포집경사
而薦進師表生徒咸願執脩豈曰小補於斯文所以嘉惠我後學七管之素服齊莅可見誠愛之
이천진사표생도함원집수기왈소보어사문소이가해아후학칠관지소복제리가견성애지
追溯九重之生綃特宜幸仰精神之留在一幅帶寶墨而揭虔奚但太學之聳觀二軸分淑姿而
추소구중지생초특선행양정신지류재일폭대보묵이게건해단태학지용관이축분숙자이
流傳抑亦矣孫之模穿衣冠永闕縱警咳之莫承卣目重新尙瞻慕之有地中因宗嫡之乏嗣幾
류전억역의손지모천의관영비종경해지막승유목중신상침모지유지중인종적지핍사기
歎奉守之無人眊彼槐陰萬枝猶有君子遺韻矧茲竹溪一帶自是先生舊鄉生於斯藏於斯事
탄봉수지무인면피괴음만지유유군자유운신자죽계일대자시선생구향생어사장어사사
不偶爾居其所安其所天或相之祇緣事故之多端久關祠室之展禮半壁之風雨不必敢日尊
부우이거기소안기소천혹상지기연사고지다단구관사실지전례반벽지풍우부복감일존
奉之得宜四時之葛豆不陳每切愧懼之交至聞者咸爲嗟惜恐或汙漫安之必有寢堂何必營
봉지득의사시지갈두부진매절괴구지교지문자함위차석공혹오만안지필유침당하필영
度爰謀數椽之新築遠近之宗議僉同始舉百年之欠儀父兄之遺意式體士林至今受賜孰無
도원모수연지신축원근지종의침동시거백년지흠의부형지유의식체사림지금수사숙무
景仰之心子孫爲先殫誠各以財力而助遠者材近者瓦民不勸而自來日之吉辰之良事如意
경앙지심자손위선탄성각이재력이특원자재근자와민부권이자래일지길진지량사여의
而卽就山回水抱面勢叶於陰陽根深葉茂子姓罪于左右規模不簡不侈文雅之遺風尚存運
이즉취산회수포면세협어음양근심엽무자성죄우좌우규모부간부치문아지유풍상존운

數有廢有興祚胤之永錫可占過客為之必式明靈於焉永寧對鄉壇於南壩五世之遺澤不斬
 수유포유흥조운지영석가점과객위지필식명령어언영녕대향단어남허오세지유택부참
 連雲洞於北壑一般之神彩相通光生七分寧有剿默之歎時當四月政聽燕雀之歌燕服山中
 려운동어북랑일반지신채상통광생칠분녕유초묵지탄시당사월정청연작지가연복산건
 宛在堂而依舊琴聲詩韻或臨風而如聆縫掖知所以依歸不加敬而自祇門閭自此而增重庶
 완재당이의구금성시운혹림풍이여령봉액지소이의귀부가경이자기문려자차이증중서
 勿替而為期茲將胄子之歡謠用贊兒郎之善頌
 물체이위기자장주자지환요용찬아랑지선송

안문성공 영정각 상량문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니, 그 위대한 정신은 진실로
 변함이 없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었으며, 이에 새 사당(祠堂)을
 건립하니 후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찬란한 왕조 아래 문교(文教)가 쇠퇴하던 시기에 동방의
 도학(道學)을 다시 일으키셨다.

그러나 지금은 사당에 향과 등불이 밝히지 못하고, 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니 그
 누가 이를 애석히 여기랴.

마침내 뜻있는 이들이 힘을 모아 그림을 구하고 제사를 지내니, 마치 공자의 고향
 곡부(闕里)에 꽃이 다시 피어나는 듯하다.

나라에서는 문묘(文廟)에 모실 계획을 세우고, 훌륭한 학문을 이루신 선생께서는
 말년에는 독서당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셨다.

무사(武士)들조차도 경서를 읽고 선생을 사표(師表)로 삼았으며, 모든 제자들이
 존경하며 따랐다.

그 공적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후학들에게 베푼 은혜로서 참으로
 귀한 것이니라.

예로부터 선비들은 삼가 흰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며 정성을 다하였다.

황실에서도 특별히 명을 내려 선생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는
 단순히 태학(太學,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바라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 기품과 모습이 후세에 길이 전해질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오늘날 후손이 끊어져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으니, 그 누가 이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는가?

하지만 생각해 보라, 수많은 가지를 뺐은 회나무 숲에도 군자의 자취가 남아 있고, 이곳 죽계(竹溪) 일대야말로 선생의 옛 고향이 아니던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묻히셨으니,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 할 것이니라.

다만 세상일이 복잡하여 사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 늦어졌고, 절반이 무너진 사당은 바람과 비에 더욱 허물어져만 갔다.

이에 감히 다시 모시기를 원하였으나 사시(四時)의 제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니, 늘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이를 듣는 자마다 모두 탄식하였으며, 혹여 세월이 흐르면 이마저도 사라질까 두려웠다.

그러므로 더는 미룰 수 없어 마침내 몇 칸의 집을 새로 짓기로 의논하였다. 먼 곳의 후손과 가까운 종친들이 모두 동의하여 백 년 동안 미루어졌던 의례를 다시 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선대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선비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자손들이 앞장서서 성의를 다하였으며, 각자 재력에 따라 힘을 보태니, 멀리 사는 이는 재물을 내고 가까이 사는 이는 기와를 마련하였다.

이 일을 권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모두 참여하였으니, 오늘의 길일(吉日)을 맞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산은 감싸듯이 둘러 있고, 물은 안아주듯 흐르니, 그 형세가 음양의 이치에 맞고,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하여 후손들이 늘 가까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건물의 규모는 사치스럽지 않되 간소하지도 않도록 하였으니, 이는 선생의 문雅(문장의 기풍)와 학문의 유풍(遺風)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의 운수는 흥망이 있지만, 대대로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 번영할 것임을 믿는다.

지나는 이들마다 반드시 여기에 예를 표할 것이니, 그 명령께서 이곳에 편안히 계실 것이다.

남쪽의 향탄(鄉壇)은 다섯 대를 이어온 유업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북쪽의 운동(雲洞)은 그 기운이 여전히 맑고 신령하다.

그러니 이곳 또한 그 기품과 조화를 이룰 것이니라.

때는 사월,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하고, 산 속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거문고 소리와
시가 울려 퍼진다.

어느 날 문득 바람을 맞으며 이곳을 찾는다면, 마치 옛 선생의 가르침을 듣는
듯하리라.

그러므로 이곳을 찾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제부터 문과 마을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니, 부디 이 뜻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후손들의 즐거운 노래를 모아 이를 기리고, 아이들의 찬미하는 노랫소리로
이를 더욱 빛내고자 하노라.

兒郎偉拋櫟東 野馬遊絲忽捲空 欲識先生興道志 試看晴日到天中
아랑위포랑동 야마유사홀권공 욕식선생흥도지 시간청일도천중

장정들이 웅장하게 대들보를 동쪽 하늘로 던져 올리니,
들판을 나는 말과도 같은 실오라기 바람이 허공을 휘몰아치네.

선생의 큰 뜻과 도(道)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한 번 맑은 날 대낮 하늘을 올려다보시라.

兒郎偉拋櫟南 雪山千尺遠生嵐 雨鳩啼罷草連野 坐憶當年吟興酣
아랑위포랑남 설산천척원생람 우구제파초련야 좌억당년음흥감

장정들이 장엄하게 대들보를 남쪽 하늘로 던져 올리니,
천 척 높은 설산이 아득히 멀고, 그 너머로 안개가 피어오른다.

비 그친 들판에 비둘기 울음도 멎고 들판이 펼쳐진 곳에 앉아,
지난날 시 읊던 그 흥취를 떠올리니, 다시금 마음이 흠뻑 취하는구나.

兒郎偉拋櫟北 瀟氣橫天撐北極 散作文明耀東方 至今人說小華國
아랑위포랑북 해기횡천탱북극 산작문명요동방 지금인설소화국

장정들이 장엄히 대들보를 북쪽 하늘로 던져 올리니,
맑은 기운이 하늘을 가로질러 북극을 떠받친다.

흘어져 문명이 되어 동방을 빛내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작은 중화의 나라'라 일컫는다.

兒郎偉拋梁上 清儀玉立敷而暢 倉間帶得安民憂 莫道丹青有莫狀
아랑위포량상 청의옥립부이창 미간대득안민우 막도단청유막상

장정들이 장대하게 대들보를 올리니,
맑고 고결한 기상이 옥처럼 서고 널리 펼쳐진다.
그 미간에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걱정이 스며 있고,
붓과 물감으로 어찌 그 모습을 다 그릴 수 있으랴!

兒郎偉拋樑下 小溪曲曲繞平野 此間知有上仁廬 莫問里中詩酒社
아랑위포량하 소계곡곡요평야 차간지유상인려 막문리중시주사

아랑(兒郎)이 홀륭히 대들보를 아래로 던져 올리니,
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평야를 감도네.
이곳엔 참으로 덕을 지닌 이의 거처가 있음을 알겠네,
마을 속 시주(詩酒)의 모임을 굳이 물을 것인가?

伏願上樑之後 山川不改棟宇長存松茂竹苞像先生學業之邃密
복원상량지후 산천부개동우장존송무죽포상선생학업지수밀
水流山峙帶先生德教之弘深 依香火而展誠 神其降格在門牆 趨而如見 孰不趨承
수류산치대선생덕교지홍돌 의향화이전성 신기강격재문장 추이여견 숙불추승

時和歲豐樂泰平之煙月 巷謠家誦慶先哲之雲仍 庶幾有光於前 抑將無斁於後
시화세풍악태평지연월 향요가송경선철지운잉 서기유광어전 억장무두어후

삼가 바라건대, 이 상량 이후로는 산천은 변함이 없고, 기둥과 대들보는 오래도록 견고히 서 있기를 빕니다. 푸른 소나무 무성하고, 대나무는 꽃 피어나며 이는 곧 이 집 주인의 학업이 깊고 정밀함을 상징하며, 흐르는 물과 우뚝 선 산은 선생님의 덕화(德化)가 널리 퍼지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향불을 의지해 정성을 다하오니, 신령이시여, 부디 이 집 문 앞까지 강림하시어 우리의 었드린 기도를 굽어살피소서.

마치 뵈는 듯 가까이 계시니, 어찌 감히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는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온 마을에 태평한 기운과 달빛이 넘쳐흐르고, 골목에서는 노래로, 가정에서는 글로 이 집의 선철(先哲)을 기리는 소리가 가득하리니, 바라건대, 앞으로는 그 이름이 더욱 빛나고, 뒤로는 그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哀辭 애사

李溥源哀辭 이부원애사

丁卯三月日余哭溥源於真源之寓室真源拭淚向余曰冤哉吾伯氏也知吾伯氏莫如子子何
정묘삼월일여곡부원어진원지우실진원문루향여왈원재오백씨야지오백씨막여자자하
不以一言為死者而生者慰乎余泣而曰諸往在庚戌余自豐山進拜大府公于床下見丈夫子
부이일언위사자이생자위호여읍이왈낙왕재경술여자풍산진배대부공우상하견장부자
二人左右侍而一冠一未冠其未冠者即真源也余時時間之面如削玉目如曙星清郎之氣菲
이인좌우시이일관일미관기미관자즉진원야여시시간지면여삭옥목여서성청랑지기비
菲然襲人自視慙然愧若新從汝南來也退而叩其篋文章又不俗余舉手賀曰甲乙之科君可
비연습인자시은연황약신종여남래야퇴이고기협문장우부속여거수하왈갑을지과군가
摘髭而有也居無何漣源兄弟果以科聲動鄉邑吾儕論竺城人物必推君為第一焉甲子余試
적자이유야거무하련원형제과이과성동향읍오제론축성인물필추군위제일언갑자여시
國子明日到南漢玉井寺溥源已來坐東室粲然一笑日未暮楊人至余及子仁景而數三人幸
국자명일도남한옥정사부원이래좌동실찬연일소일미막양인지여급자인경이수삼인행
被選餘入皆見別環顧坐席莫不惓然色沮而惟吾溥源藹藹然不失疇昔之容余於是益驗其
被選餘入皆見別環顧坐席莫不惓然色沮而惟吾溥源藹藹然不失疇昔之容余於是益驗其
피선여입개견별환고좌석막부권연색저이유오부원애애연부실주석지용여어시익힘기
所守也曉鍾鏗然溥源將發余送之南門曰得失有早晚君豈虛生而虛老耶幸勉之溥源笑而
소수야효종갱연부원장발여송지남문왈득실유조만군기허생이허로야행면지부원소이
點頭果於丙寅秋又中鄉解余聞而喜之益固南門之祝矣未數月漣源以疾不起悲夫司命者
점두과어병인추우중향해여문이희지분고남문지축의미수월련원이질부기비부사명자
何不仁之甚也其春貢士之險嶺者莫不惓惓然為溥源悲溥源非吾南望士孰以存沒動心若
하부인지심야기춘공사지유령자막부읍읍연위단원비단원비오남망사숙이존물동심약
此哉於乎溥源老親在堂穉子未冠爾不能瞑目矣向卿之所悲者非特惜其年惜其才惜其文
차재어호부원로친재당치자미관이부능명목의향경지소비자비특석기년석기재석기문

章而惜吾知己之死也辭曰栗如玉清如冰可愛人雅而文懋而質純且真天不祐命何促奈其
장이석오지이지사야사왈틀여옥청여빙가애인아이문각이질순차진천부우명하촉내기
親才未展名不顯淚沾巾
친재미전명부현루침건

이부원을 애도하며

정묘년(丁卯年) 3월 어느 날, 나는 진원의 거처에서 부원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그때 진원이 나에게 말했다.

“아, 원통합니다! 우리 백부님(伯氏)께서 이렇게 떠나시다니요. 우리 백부님의
인품과 학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대인데, 어찌 단 한 마디라도 죽은
자를 위해, 그리고 살아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그러겠소.”

경술년(庚戌年), 내가 풍산에서 올라와 대부공(大府公)을 뵈고 인사를 드릴 때, 한
신사(紳士)의 아들 둘이 좌우에서 모시고 있었다. 한 사람은 갓을 썼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갓을 쓰지 않은 젊은 이었는데, 그가 바로 진원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의 용모는 옥을 깎아놓은 듯 단정했고, 눈빛은
새벽별처럼 빛났다. 청정한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어, 마치 고국의 산천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듯했다.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 앞에서는 마치 이제 막
여남(汝南)에서 온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다.

이후 그의 서책을 살펴보니 문장이 속되지 않아, 나는 기뻐하며 손을 들어
축하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은 이제 그대가 수업을 기를 때쯤이면
당연한 일이겠구려.”

얼마 지나지 않아, 연원(漣源) 형제는 과거에 급제하여 마침내 그 명성이 고향과
고을에 널리 퍼졌다. 우리들끼리 주릉성(竺城)의 인재를 논할 때마다, 반드시 그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갑자년(甲子年), 내가 국자감(國子監)에서 시험을 치른 다음 날, 남한(南漢)의
옥정사(玉井寺)에 도착했을 때, 부원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동쪽 방에
앉아 환히 웃으며 말했다. “해가 지기 전이면 양주(楊州)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과연, 그날 저녁이 되자 자인(子仁)과 경이(景而)가 도착하였고, 셋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불합격 소식을 듣고 침울해 있을 때에도, 오직 부원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때야말로 그가 지켜온 굳건한 마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부원이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그를 남문(南門)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합격과 불합격에는 때가 있으니, 그대는 어찌 헛되이 살고 헛되이 늙어가겠소? 부디 힘쓰시오.”

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과연 병인년(丙寅年) 가을, 그는 다시 한 번 향시에 급제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과연 남문에서의 축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나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연원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아, 슬프도다! 사명을 주관하는 신(司命)이 어찌 이리도 인정이 없는가?

그해 봄, 과거를 보러 영남(嶺南)을 넘어온 선비들 모두가 애통해하며 부원을 위해 슬퍼하였다. 부원이 아니었다면, 우리 남방의 선비들 가운데 누가 그의 생사 앞에서 이토록 깊은 감정을 느끼겠는가?

아, 부원이여!

늙으신 부모님과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찌 이토록 이르게 가버리셨단 말인가?

어린 자식이 아직 관례를 치르지 못했으니, 그대를 눈 감게 할 수 없소.

내가 슬퍼하는 것은 단지 그대의 젊은 나이를 애석히 여겨서만이 아니오.

그대의 재능과 문장을 아까워해서만도 아니오.

진정으로 가슴 아픈 것은 나의 절친한 벗을 잃었기 때문이오.

애도하는 마음을 시로 적노라.

가름한 얼굴 옥처럼 빛나고, 맑은 기운 얼음처럼 투명했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으니, 그는 우아하고 학문이 깊었네.

성품은 정직하고, 본질은 순수했으니, 그야말로 진실된 사람이었네.

하늘이여, 어찌하여 그를 보살피지 않으셨는가?

그의 생을 이리도 짧게 마감하시다니.

부모를 두고 홀연히 떠나가고, 재능은 피어보지도 못했으며, 이름 또한 세상에

널리 드러나지 못했네.

나는 그를 떠올리며 눈물로 수건을 적시노라.



李仲賓 輝觀 哀辭 이중빈 휘관 애사

人之生也有關於一世有關於一鄉者此非器之有大小蓋由成就之有遠近也今李君仲賓以
인지생야유관어일세유관어일향자차비기지유대소개유성취지유원근야금리군중빈이
需世之器苑妙齡於家知友之哀之過者必日斯人之苑有關於鄉而不知其假之年以試其有
수세지기원묘령어가지우지애지과자필일사인지원유관어향이부지기가지년이지기유
則將有關於世也人之以吾之知知子者果幾人哉吾觀仲賓以餘事為文章雖一字不用尋常
척장유관어세야인지이오지지지자자과기인재오관중빈이여사위문장수일자부용심상
語譽者病者殆半之而吾嘗稱曰子之文未嘗以遲速成敗易其體此不期奇而自奇者耳與其
어예자병자태반지이오상칭왈자지문미상이지속성패역기체차부기기이자기자이여기
欲奇而未奇不可同日語也仲賓以我為知己之文見我必傾篋而示之吾亦自知其權衡不能
욕기이미기부가동일어야중빈이아위지이지문견아필경협이시지오역자지기권형부능
輕重於其間抑以爲微我丙無知之者矣以是互相推獎而隱然有托末契之意今君抱其滿腹
경중어기간억이위미아병무지지자의이시호상추장이은연유탁말게지의금군포기만복
之錦繡天逝於發軔之初天之所以與之而又奪之者果何意哉悲夫悲夫其生也吾許之而知
지금수천서어발인지초천지소이여지이우탈지자과하의재비부비부기생야오혀지이지
已則其她也可無一言以送乎遂泣而辭曰清淑之氣鍾於爾發為文章奇且美充而大之庸有
이척기저야가무일언이송호수음이사왈청숙지기중어이발위문장기차미충이대지용유
窮不幸短命未克終蹤鍾之響在吾耳九原落花愛莫起
궁부행단명미극종종쟁지향재오이구원락화에막기

이중빈(李仲賓) 휘관(輝觀)을 애도하며

사람이 태어나면 한 시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한 마을에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것은 그릇의 크기가 크고 작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루는 바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치느냐에 따른 것이다.

지금 이군(李君) 중빈(仲賓) 은 시대가 요구하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이를 슬퍼하는 집안 사람들과 벗들은 그가 한 마을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만약 더 오래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쳤다면 한 시대를 빛낼 인물이 되었을
것임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과연 내 눈으로 본 중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보기에 중빈은 남는 시간에 문장을 지었으나, 그가 쓴 글에서는 단 한
글자도 흔한 표현이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비평가들은 그의 글을 평가할 때 절반 정도는 병통이 있다고 말하곤
했지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대의 문장은 결코 속도나 성공 여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구려.

이는 기괴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이해지는 것이니, 일부러 기괴하게
꾸미려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한 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यो."

중빈은 나를 자신의 문장을 알아주는 지기(知己)로 여기고, 나를 볼 때마다
서랍을 열어 자신의 글을 보여주었다.

나 또한 스스로 그 문장을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가 나를
제외하고는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여겼기에, 서로를 격려하며 묵묵히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수많은 빛나는 문장을 남긴 채, 인생의
첫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하늘로 떠나고 말았다.

하늘이 그대에게 재능을 주고서도, 다시 그것을 빼앗아간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대가 살아 있을 때, 나는 그대를 지기로 여겼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가 떠나는 길에 한마디 말도 없이 보낼 수 있겠는가?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애도의 글을 남긴다.

"맑고 아름다운 기운이 그대에게 모여 기이하고도 빼어난 문장을 이루었으니,
이를 넓히고 펼친다면 어찌 한계가 있으리오.

그러나 불행히도 짧은 생을 마치고 말았구나.

그대가 남긴 울림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한데, 떨어진 꽃은 다시 피지 못하니 애석할 뿐이라."



許汝正誄辭 허여정뇌신

許君泌字汝正陽川人與我遊大學殆數十年 吾輩困甚母論賢不肖為時士所儕者望其九君
허군필자여정양천인여아유대학태수십년 오배곤심모론현불초위시사소제자망기구군
內堅而外雅雖齷者無如君何 嚙共卧東堂君激仰慷慨日吾與若志非不及古人才豈不如今
내견이외아수이자무여군하 상공와동당군격앙강개일오여약지비불급고인재기불여금
人 而兩鬢公然皆皤男兒事甚可笑 君可歸耕吾無田命也 余笑曰古來英傑亦不免任之而
인 이양빈공연개애남아사심가소 군가귀경오무전명야 여소왈고래영걸역불면임지이

已不當爲戚戚語子以筆自奇何不惠我數紙 遂書十六字為銘曰 名高倚樓 價重連城
이부당위척척어자이필자기하불혜아수지 수서십륙자위명왈 명고의루 가중연성

衛足有智 傾日之誠 蓋為我輝名與字 而寫身後銘者也 笑曰若死貧不能碑
위족유지 경일지성 개위아휘명여자 이사신후명자야 소왈약사빈불능비

告兒曹得數尺牀石 滾刻此十六字 此刻未訛之前 大嶺以南知東國有煙客晚農
고아조득수척상석 곤각차십륙자 차각미와지전 대령이남지도국유연객만농

懟二子也 吾笑而心許之孰謂君先死使李處士生錦樹君之墓哉 悲夫 悲夫 辭曰
대이자야 오소이심허지숙위군선사사이쳐사생금수군지묘재 비부 비부 사왈

於戲汝正 誰之不如 豐鍾闕施 鼎不柱車 婉婉伊人 筆古詩妍 由我者吾 不我者天
어희여정 수지불여 풍종알시 정불주거 완완이인 필고시연 유아자오 불아자천

高上坎中 四尺其崇 已矣已矣 奈何乎蒼穹
고상감중 사척기승 이의이의 내하호창궁

허여정을 애도하며

허군(許君)의 휘(泌)는 여정(汝正)이며, 양천(陽川) 사람이다.
그는 나와 함께 대학에서 교유한 지 거의 수십 년이 되었다.

우리 세대는 힘겨운 삶을 살았기에, 사람의 재능과 인품을 따지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시대의 선비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평하였다.

“그는 내면이 단단하면서도 겉으로는 온화하여, 그를 비난하는 자조차 어찌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동당(東堂)에서 동고동락한 적이 있다.
그는 세상을 향한 뜻이 굳세고, 정의를 향한 마음이 뜨거웠다.
그는 흔히 말하곤 했다.

“우리의 뜻이 옛사람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늘, 어찌 지금 시대의 인물들보다 못하겠는가?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으니, 남자의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이제 돌아가 받을 갈겠네. 자네는 어찌할 텐가?”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내게는 경작할 밭이 없으니, 이것 또한 운명이 아닌가.”

이에 그는 웃으며 답했다.

“고대의 영웅들도 결국 운명을 피할 수 없었으니, 근심할 필요가 없네.”

그는 필체가 뛰어나 글씨로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게 글 몇 장을 남겨주지 않겠는가?”

그러자 그는 나에게 열여섯 자의 명문(銘文, 비문)을 남겼다.

‘명성은 높은 누각에 기대고, 가치는 연성(連城)의 옥과 같으며, 몸가짐은 방어에 철저하고, 지혜는 태양을 기울게 할 만큼 깊구나.’

이는 나의 이름과 자(字)를 담아 지은 것으로, 그는 이 글을 자신의 묘비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가난하여 묘비를 세울 수 없을 것이니, 내 후손들이 작은 돌이라도 구해 이 열여섯 글자를 새겨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대령(大嶺) 이남(以南)에서도 동국(東國)에 연객(煙客)과 만농(晩農)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네.”

나는 그의 말에 웃으며 동의했다.

그러나 어찌하여 그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단 말인가?

이제 그의 무덤 앞에서 나는 슬픔을 감출 길이 없다.

슬프고 또 슬프도다!

아, 허여정이어!

그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앓거늘, 하늘은 어찌하여 그대를 일찍 데려갔단 말인가?

술의 기둥이 무너지듯, 수레의 축이 부러지듯, 그대의 붓은 고전(古詩)처럼 아름답고, 그대의 인품은 온화하고도 품위 있었건만, 운명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은 높고, 인생은 덧없도다.

네 자 높이의 묘비로 그대를 기릴 뿐이니, 아, 이미 가버린 그대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구나.

祭文 제문

祭成進士春甫 惠寅 文 제성진사춘보 혜인 문

於乎大嶺以南文章之士抱奇而無命者肩背相望獨公先炬耳若論其才器則非但吾嶺之士
어호대령이남문장지사포기이무명자견배상망독공선거이약론기채기척비단오령지사
莫敢甲乙求之通世亦不多得也使之遇於時而試其有則必有可觀而不為做官者晷泛駒縮
막감갑을구지통세역부다득야사지우어시이시기유척필유가관이부위주관자부범구축
之態矣惜乎生而數椽吸而一坏其知公者悲其齋志而吸其不知公者祇謂太白山下一老進
지태의석호생이수연흡이일배기지공자비기채지이흡기부지공자지위태백산하일로진
士炬耳今世猶然况百年之後乎此吾之所撫心長痛而不能自己也吾輩知身而不知天三十
사거이금세유연황백년지후호차오지소무심장통이부능자기야오배지신이부지천삼십
年出沒於科場舟而犯風波陸而冒霜雪盖其曾中有自信者而到今息之公與我俱是造物者
년출몰어과장주이범풍파륙이모상설개기증중유자신자이도금식지공여아구시조물자
局外人也恨不以一卻相騁於佳山麗水之鄉哺詠自適以友其取無禁用不竭之風與月也慟
국외인야한부이일각상빙어가산려수지향포영자적이우기취무금용부갈지풍여월야통
哉慟哉公歿而無知己者公歿而無論心者公歿而無談事者吾雖獨立於世而有若鳥之去翼
재통재공몰이무지이자공몰이무론심자공몰이무담사자오수독립어세이유약조지거익
獸之去喙矣此生未苑之前欲忘而不可得若其姻婭之情喪憾之悲未暇及之公其知之耶公
수지거훼의차생미원지전욕망이부가득약기인아지정상척지비미가급지공기지지야공
若有知庶賜一顧
약유지서사일고

성진사(成進士) 춘보(春甫) 혜인(惠寅)에게 바치는 제문

아아, 대령(大嶺) 이남의 문장가들 중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시대의
운명을 타지 못한 자들이 술하게 많건만, 오직 공(公)만큼은 그들보다 앞서
빛났도다.

그 재능과 기량을 논한다면, 우리 영남(嶺南)의 선비들 중에서도 감히 견줄 자가 없으며, 이를 온 세상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인재를 찾기는 어려웠으리라.

만약 공이 적절한 시기를 만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면, 반드시 세상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을 것이며, 결코 벼슬길에 나아가 "오리걸음하며(鳧泛), 망아지처럼 움츠리는(駒縮)"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어나 몇 칸의 초옥에서 살다가, 한 잔 술로 생을 마감하였으니", 공을 아는 자들은 그가 뜻을 펼치지 못하고 떠났음을 슬퍼하고, 공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태백산 아래에 살다 간 한 늙은 진사(進士)로만 여길 뿐이다.

지금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백 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여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까닭이로다.

우리들은 자신을 알되 하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삼십 년 동안 과거(科場)에 떠돌며, 배를 타고 거센 바람을 맞고, 육로를 걸으며 서리를 맞았다.

이는 우리들 중 과거 급제를 자신했던 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결국 지금은 모두 그 뜻을 접고 말았도다.

공과 나는 모두 "조물주가 만든 세상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造物者局外人)"이었거늘, 아! 차라리 한 번쯤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에서 서로를 벗삼아 시를 읊고 자연을 즐기며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하여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않으며, 하늘과 바람과 달빛을 마음껏 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통탄할지어다, 통탄할지어다!

이제 공이 세상을 떠났으니, 공을 알아주는 지기가 없고, 공의 뜻을 논할 벗도 없으며, 공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구나.

나는 홀로 세상에 남겨졌으니, 마치 날개 잃은 새, 입을 잃은 짐승과 다름이 없도다.

이제 살아가는 동안 공을 잊고 싶어도 도저히 잊을 수 없으니, 더구나 사돈 간의 정리(情理)와 애통한 슬픔에 대해 말할 겨를조차 없구나.

공이며, 공이 과연 이를 알고 있었는가?

공이 만약 이 글을 볼 수 있다면, 부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봐 주기를 바란다.



祭從叔監察公元升文 제종숙감찰공원승문

於乎痛哉公之歿也知舊聞而嗟惜非一日文章可惜才器可惜志行可惜風儀可惜科名可惜
어호통재공지몰야지구한이차석비일왈문장가석재기가석지행가석풍의가석과명가석

蔡陽聞而痛之曰蔡陽之所可惜者不在於是公年少馳聘聲聞蔚然文章已闡矣動盪發越
채양문이통지왈규양지소가석자부재어시공년소치빙성개울연문장이천의동탕발월제

友傾到才器已著矣淳厚慈惠遠近欽服志行已乎牟秀者明眸迴出凡羣風儀已標矣
우경도재기이저의순후자해원근흠복지행이호모수자명모형출범군풍의이표의건런채

鰲榮耀一時科名已售矣世間人無此五之一者何限則蔡陽不敢以是惜公而猶有可恨者公
오영요일시과명이수의세간인무차오지일자하한칙규양부감이시석공이유유가한자공

平生未嘗言利祿之累而卒以此役於客館使兄弟妻子不得相談此可恨也公不能家食言辭
평생미상언리록지루이줄이차역어객관사형제처자부득상담차가한야공부능가식언사

模範外人多得而子侄輩未有效其一班者此可恨也從第變陽為承緒之兒而呼爺總三日公
모범외인다득이자질배미유효기일반자차가한야종제섭양위승서지아이호야총삼일공

沒此可恨也甲子之秋蔡陽從公而並參司馬乙丑之夏又從公而同患敗船吾之叔姪非他人
몰차가한야갑자지추규양종공이병참사마을축지하우종공이동환패선오지숙질비타인

沉公喪在殯祖妣見背禮之日相隔一宵數小子姪奔遑未暇哭不盡哀文不盡情人乎天乎孰
침공상재빈조비견배례지일상격일소수소자질분황미가곡부진애문부진정인호천호숙

使之然哉

사지연재

종숙 감찰공 원승을 기리며

아아, 슬프도다!

공(公)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를 아는 이들이 애통해하며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구나.

공의 문장이 아까울 뿐만 아니라, 그 재능과 기량이 아까우며, 그 굳건한 의지와 인품이 아까우며, 그 고결한 풍채가 아까우며, 그 명성을 떨친 과거 급제도 아까울 뿐이로다.

그러나 채양(蔡陽)이 이를 듣고는 다른 뜻에서 더욱 애통해하며 말하기를, "회양(葵陽)이 공을 아까워하는 까닭은 그저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니라!" 하였고도다.

공은 젊은 시절부터 문명을 떨치며 뜻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니, 그 문장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으며, 능력 또한 빛을 발하여 벗들이 감탄하고 존경하였도다.

공의 인품은 어질고 후덕하여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 감복하였으며, 그 총명함은 범속한 무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풍채 또한 뛰어나 그 존재만으로도 남달랐도다.

과거에 급제하여 한 시대를 빛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으니,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갖춘 사람이 드문데, 공은 모두를 지녔으니 참으로 비범한 인재였도다.

그러나 회양(葵陽)은 이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통탄할 일이 있다고 하였으니, 공께서는 평생을 살아오며 권세나 재물을 탐한 적이 없었으나, 결국 낮은 고장에서 벼슬살이에 시달리다가 타향에서 생을 마감하셨으니, 형제와 아내, 자식들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애통하도다!

공의 언행은 세상의 귀감이 되었으나, 정작 자손들에게는 이를 물려줄 기회가 없었으니, 이는 또 얼마나 슬픈 일이란 말인가!

종제(從弟) 섭양(燮陽)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으로서 공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였건만, 이제는 영영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아아, 갑자년 가을에 나는 공과 함께 사마시(司馬試)를 보았고, 을축년 여름에도 다시 공과 함께 난파의 시련을 겪었도다.

우리 숙질(叔姪) 사이는 남이 아니라, 운명을 함께한 인연이었건만, 이제는 공께서 저 세상으로 떠나가셨으니, 나는 홀로 남아 그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구나.

게다가 공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조모(祖妣)께서도 별세하시어, 공의 죽음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연이은 상실 속에서 나는 단 하루 한밤을 사이에 두고 또다시 슬픔에 잠기고 말았도다.

이 조카된 자식들이 정신없이 장례를 준비하느라 울고 싶어도 다 울지 못하고, 애통한 마음을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였으니, 아, 하늘이여!

대체 어찌하여 이토록 무정한 운명을 내리셨는가!

序 서

黃進士 守鏞 小白遊山錄序 황진사 수묘 소백유산록서

余過黃瀟甫瀟甫問余曰子為小白之遊乎曰未也曰吾先子一遊於此而為之錄錄今在矣余
여과황헌보헌보문여왈자위소백지유호왈미야왈오선자일유어차이위지록록금재의여
曰願一覽焉遂出而示之讀未畢拱手而言曰吾雖未遊於小白而精神迷來於茲者三十年矣
왈원일탐언수출이시지독미필공수이언왈오수미유어소백이정신미래어자자삼십년의
幸得此錄吾之觀盡矣今夫人之訴於小白者際武相接歲以十百計能得其趣者寡焉其自謂
행득차록오지관진의금부인지소어소백자체무상접세이십백계능득기취자과언기자위
得之者率舍馬而步間關於骨巖絕察之下足與杖謀而其勢固不可左右視牟時或憩息於林
득지자술사마이보간관어골암절찰지하족여장모이기세고부가좌우시모시혹계식어림
薄之間其喘數其汗雨神疲氣腦經過東峯而已失其西美使我作是進亦不過如是而止耳惟
박지간기천수기한우신평기뇌경과동봉이이실기서미사아작시진역부과여시이지이유
我雪巖公以牢落之才特異之器不過於時而寓於山其觀也宜於夫衆人者異矣扣其所踐歷
아설암공이되락지재특이지기부과어시이우어산기관야의어부중인자이의구기소천력
者則八毗盧峯登上元岑順抱憤洞北望離島二潭之坎然而滾者南臨清涼鶴駕金烏伽倻八
자척팔비로봉등상원잠순포래동북망리도이담지감연이곤자남림청량학가김오가야팔
公諸山之鬼然而畢者神與境會津津爲莫之禁而發之於一石一草之可奇可玩者備載而無
공제산지외연이필자신여경회진진위막지금이발지어일석일초지가기가완자비재이무
遺歸藏於箱篋小白之山固枉彼而其光景盡爲公之所有矣讀其錄而想像則飛瀑之聲異鳥
유귀장어상참소백지산고왕피이기광경진위공지소유의독기룩이상상척비폭지성이조
之響若可俯而聽也濃綠而欲滴者其山間之嵐乎屈曲而不折者其巖畔之松乎欲觀於小白
지향약가부이청야농록이욕적자기산간지탐호굴곡이부절자기암반지송호욕관어소백
者不於山而觀於錄可得矣嗟夫公之才器文章可徵於錄而不傳於世惜也洪耻齋關東一記
자부어산이관어록가득의차부공지재기문장가징어룩이부전어세석야홍치재관동일기

果因誰而發哉世無君子則已苟有其人錄亦有待也夫遂感諸錄而為之記以遺君子者
과인수이발채세무군자척이구유기인록역유대야부수감제록이위지기이유군자자

황진사 수묘(守錨)의 소백유산록(小白遊山錄) 서문

내가 황한보(黃瀟甫)의 집을 지나던 중, 한보가 나에게 물었다.

"그대는 소백산을 유람한 적이 있는가?"

나는 대답했다. "아직 가보지 못했네."

그러자 한보는 말하였다.

"나는 그대보다 먼저 소백산을 유람하며 그 기록을 남겼네. 그 글이 지금 여기에 있네."

내가 말했다. "한 번 보고 싶네."

그리하여 그는 서책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아직 다 읽기도 전에 두 손을 모아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비록 소백산을 유람하지 못했으나, 그 정신이 이곳으로 향한 지 이미 삼십 년이 되었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을 얻었으니, 나의 유람은 다한 것이나 다름없네!"

오늘날 사람들은 소백산을 유람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은 "힘들게 산을 넘나드는 것일 뿐, 참된 아름다움을 아는 자는 적다."

스스로 그 경치를 만끽했다고 하는 자들조차, 대개 말을 버리고 걸어서
가파른 암벽과 험준한 절벽 아래를 힘겹게 지나며, 발걸음을 신중하게 내디디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간신히 올라선다.

이리하여 사방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이, 그저 때때로 숲 속에서 숨을 고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비처럼 흘리고, 기진맥진하여 동봉(東峯)을 지나갈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을 오른다면, 서쪽의 아름다움은 이미 놓쳐버리는 것이니,
만약 내가 소백산을 오른다고 해도 결국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오직 설암공(雪巖公)은 속세를 초월한 재능과 특이한 기질을 지녔기에,
세속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산에 머물렀으니, 그의 산수 감상은 세속의
유람객들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네.

그가 직접 발길을 옮기며 감상한 곳을 살펴보면, 비로봉(毗盧峯)에 올라 원암(元岑)을 바라보고, 포괴동(抱憤洞)에서 북쪽으로는 이도(離島)를, 남쪽으로는 청량산(淸涼)과 학가산(鶴駕)을 조망하며, 금오산(金烏)과 가야산(伽倻), 팔공산(八公) 등의 웅장한 산세를 한눈에 담았네.

그는 자연과 정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였고, 그 경이로운 감동을 바위 하나, 풀 한 포기에게까지 담아내어 세밀하게 기록하였기에 조금도 빠뜨린 것이 없었네. 그리하여 그 기록을 책상 속에 보관하면서, 소백산의 풍경을 자신만의 것으로 완전히 소유한 셈이 되었네.

그의 기록을 읽고 상상해 보면, "폭포 소리와 이색적인 새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하며, 산속의 푸른 안개가 망울망울 떨어질 듯 질게 서려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또한, "굽이치면서도 꺾이지 않는 바위 옆의 소나무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그러니 소백산을 감상하고자 한다면, 굳이 산을 오를 필요 없이 이 기록을 읽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네.

아아, 공(公)의 재능과 기량, 그리고 그의 문장은 이 기록을 통해 증명될 수 있지만, 세상에 널리 전해지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홍치재(洪趾齋)의 《관동일기(關東一記)》는 과연 누구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는가? 세상에 그것을 알아줄 군자가 없었다면, 그 기록 또한 남겨지지 못했을 것이네.

그러므로 "군자가 존재하는 한, 훌륭한 기록은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이에 감탄하며, 이 서문을 남겨 군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네.



一善金景玉家藏戊申錄序 일선김경옥가장무신록서

歲黑馬之臘月金君景玉袖一冊子示余乃其大人中樞公戊申從征日記也披闢再三凜然敵
세흑마지랍월김군경옥수일책자시여내기대인중추공무신종정일기야피틈채삼름연적
愾之氣至今瞭然於卷百信壯矣哉公以一佐幕能見知於主將排布謀畫出其手者十居八九
개지기지금료연어권백신장의재공이일좌막능견지어주장배포모화출기수자십거팔구

可見養之於昇本無事之時而以為急難之用也幸小醜跳梁未久自就珍滅使公不得盡其能
가견양지어승본무사지시이이위급난지용야행소추도량미구자취진멸사공부득진기능

而展其才大有別於當世向使不幸而復有如睢陽之變則安知公不為雷萬春南霽雲事乎噫
 이전기재대유별어당세향사부행이복유여수양지변칙안지공부위되만춘남제운사호희
 淸州之變居昌之賊出於倉卒列邑縮首莫有先者而公左右主將以一府單弱之丁荷戈南向
 청주지변거창지적출어창줄렬읍축수막유선자이공좌우주장이일부단약지정하과남향
 視牛靦如就樂地彼匈奴之魚駭鳥竄豈獨由於主將之賢哉古之名世者未必在紈袴呂子明
 시우현여취악지피흥도지어해조찬기독유어주장지현재고지명세자미필재환고려자명
 起於行開韓蕲玉出於佃客而當時士大夫抵掌稱道慕義無窮矧乎公之家世乃畢翁之門而
 기어행개한근옥출어전객이당시사대부저장창도모의무궁신평공지가세내필옹지문이
 順忠公華胄乎惜乎事定之後外無延譽之士友內無吸引之縉紳未治一名僅止於天爵是亦
 순충공화주호석호사정지후외무언예지사우내무흡인지진신미치일명근지어천작시역
 命也夫
 명야부

일선 김경옥(金景玉) 가장(家藏) 무신록(戊申錄) 서문

흑마(黑馬)의 해(임오년, 壬午年)섣달, 금경옥(金景玉) 군이 한 책자를 들고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그의 부친 중추공(中樞公) 이 무신년(戊申年)의 원정에 종군하며 기록한
 《무신종정일기(戊申從征日記)》였다.

나는 몇 번이고 책장을 넘기며 읽어보았는데, 그 속에 서려 있는 분노와 원수를
 갚으려는 기개가 지금까지도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아, 장렬하고도 위대한 기록이로다!

중추공은 막료(幕僚)의 한 사람으로서 주장(主將)에게 깊이 신임받았으며, 그가
 기획하고 전략을 세운 일들이 전체 작전의 80~90%에 이를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소 태평한 시절에도 치밀한 준비를 해두었기에, 긴급한 상황에서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행히도 난적(亂賊)들은 오래 설치지 못하고 곧 진압되어 멸망하였기에, 공(公)은
 끝까지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대의 운명이었을 뿐, 만약 불행히도 난세가 더 깊어져

《수양성(睢陽城)의 변》과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면, 공이 어찌 뇌만춘(雷萬春)과 남제운(南霽雲)처럼 장렬하게 싸우지 않았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아아, 청주(淸州)의 변란과 거창(居昌)의 도적들이 갑작스레 들이닥쳤을 때, 각 고을들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공(公)은 주장(主將)의 좌우에서 보좌하며, 약소한 병력으로도 창검을 들고 남쪽을 향해 적진으로 돌진하였으니, 소의 고개(牛峴)로 향하는 것이 마치 음악을 즐기러 가는 것과 같았도다! 그 결과, 적들은 물고기가 물을 피해 도망치듯, 새가 숲을 빠져나가듯 허둥지둥 흩어졌다.

이는 단순히 주장(主將)의 용맹함 때문만이 아니라, 공의 전략과 기개가 빛을 발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고금을 통틀어 명성을 떨친 인물들은 반드시 귀족이나 명문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여자명(呂子明)은 행렬(行列)에서 일어났고, 한근옥(韓靳玉)은 농부의 신분에서 출발했음에도, 당대의 사대부들이 그들을 손뼉 치며 칭송하고, 그들의 의로움을 끝없이 흠모하였던 것이 아니던가!

하물며 공의 집안은 순충공(順忠公)의 후손으로, 명문가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난세가 끝난 후에는 그의 업적을 널리 알릴 문사(文士)도,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지식인도 없었다.

결국 그의 공로는 오직 하늘이 알고 있을 뿐, 세상의 지위와 명예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운명이라 할 수밖에 없도다!

記 기

無愁巖記 무수암기

巖之大而奇者不在於山崖則必於江壁人可遊覽而不可以居住也雖好奇探勝者不過一二
암지대이기자부재어산애척필어강벽인가유람이부가이거주야수호기탐승자부과일이
登覽而止之巖也直為江山間公物非一家之私也巨娥不能移置於几案之間則又奚以是巖
등람이지지암야직위강산간공물비일가지사야거아부능이치어쾌안지간척우해이시암
為哉吾之居後無奇山前無大江而有一巖橫截小溪蓋平地特立者高可十許尺廣可數十步
위재오지거후무기산전무대강이유일암횡절소계개평지특립자고가십허척광가수십보
如帶之水常瀉巖腹而不息故巖中分為二其水落處泓而為小淵其大如方舟吾家最近於巖
여대지수상석암복이부식고암중분위이기수락처홍이위소연기대여방주오가최근어암
常坐臥於此往來於此足跡未嘗不及於此則此吾之私也鍾謂之吾巖可也若言其勝致則春
상좌와어차왕래어차족적미상부급어차척차오지사야추위시오암가야약언기승치척춘
至而南山花如錦繡雨肥而巖上水作霹靂若院者沒者浴者詠者歌者綦局者逍遙者皆巖上
지이남산화여금수우비이암상수작벽력약원자물자욕자영자가자기국자소요자개암상
得也吾甚樂之遂以巖為吾有而名之曰無愁蓋古有其名而或曰無巢以其巖無林藪之可巢
득야오심악지수이암위오유이명지왈무수개고유기명이혹왈무소이기암무림수지가소
也或曰無數以其奇巖之叢叢不可數也吾易之以無愁來觀者皆以無愁為得其名也余因其
야혹왈무수이기기암지총총부가수야오역지이무수래관자개이무수위득기명야여인기
所見者而各錫其名巖之西有石如馬背故曰馬巖巖之東有石如龜伏故曰龜巖中有雙石對
소견자이각석기명암지서유석여마배고왈마암암지동유석여구복고왈구암중유쌍석대
峙故曰雙巖上有獨石附巖故曰獨巖北巖壘而如牀故曰牀巖南巖平而如樓故曰樓巖使人
치고왈쌍암상유독석부암고왈독암북암루이여상고왈상암남암평이여루고왈루암사인
告其名而求其巖則自可以得之矣島之認以待構數棧後將扁其上
고기명이구기암척자가이득지의도지인이대구수체후장편기상

무수암기(無愁巖記)

크고 기이한 바위란, 산의 절벽이거나 강가의 벼랑이어야 한다.

이러한 곳은 사람들이 잠시 유람할 수는 있어도, 머물러 거주할 수는 없다. 설령 기이한 경치를 탐하는 사람이라 해도 기껏해야 한두 번 올라가 보고 그칠 뿐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바위는 강산 사이에 놓인 공물(公物)이요, 결코 한 사람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 바위를 서책을 펼쳐 놓듯 탁자 위에 올려둘 수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의 거처는 뒤로는 기이한 산이 없고, 앞으로는 큰 강도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집 가까운 곳에, 작은 시내를 가로막듯 평지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가 하나 있다.

높이는 십여 척(尺) 정도요, 넓이는 수십 걸음에 이를 만큼 크다.

바위 아래로는 띠처럼 흐르는 물이 늘 고여 있으면서도 끊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바위가 자연스럽게 둘로 나뉘었고, 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조그마한 못이 생겨났다.

그 크기가 마치 사각형의 배(舟)처럼 보일 정도이다.

우리 집은 이 바위와 가장 가까이 있어, 나는 늘 이곳에서 앉거나 누워 쉬었고, 오고 가며 흔적을 남기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바위는 곧 나의 사유물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이를 ‘나의 바위’라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 바위의 빼어난 경치를 말하자면, 봄이 오면 남쪽 산의 꽃들이 비단처럼 화려하게 피어나고, 비가 흠뻑 내리면 바위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치 천둥소리(霹靂)처럼 울려 퍼진다.

여기서는 낚시하는 자, 목욕하는 자, 시를 읊는 자, 노래하는 자, 바둑을 두는 자, 한가로이 거니는 자들이 모두 바위 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나는 이 바위에서 크나큰 기쁨을 느꼈기에 이를 나의 것으로 삼아 이름을 짓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무수(無愁, 근심이 없는 바위)’라 명명하였으니, 이는 본래 있었던 이름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 바위를 ‘무소(無巢)’라 불렀다고도 한다. 이는 바위 위에 숲과 늪이 없어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누군가는 ‘무수(無數)’라 불렀다고도 한다. 이는 기묘한 바위들이 무리지어 있어 그 개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무수(無愁)’로 바꾸었으니, 찾아오는 이들 모두 이 이름이야말로 가장 적절하다고 여겼다.

나는 이곳의 경치를 감상하며, 각각의 바위에 이름을 붙였다.

서쪽 바위에는 말(馬)의 등처럼 생긴 돌이 있어 ‘마암(馬巖)’이라 하였고, 동쪽 바위에는 거북이(龜)처럼 엎드린 돌이 있어 ‘귀암(龜巖)’이라 하였으며, 가운데는 두 개의 돌이 마주 서 있어 ‘쌍암(雙巖)’이라 하였고, 그 위에는 홀로 붙어 있는 돌이 있어 ‘독암(獨巖)’이라 하였다.

북쪽 바위는 돌들이 층층이 쌓여 마치 침상(牀)처럼 보여 ‘상암(牀巖)’이라 하였고, 남쪽 바위는 평평하여 마치 누각(樓)과 같아 ‘누암(樓巖)’이라 하였다.

누군가 이 이름을 듣고 바위를 찾고자 한다면, 각각의 특징에 따라 쉽게 그 바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한동안 머물며, 훗날 몇 개의 기둥을 세운 뒤 바위 위에 현판을 달아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亭西記 정서기

不佞之居與避炎亭密邇耳目足跡之所常接也茲亭之穉松童童然如益引清風而遠暑氣也
부녕지거여피염정밀이이목족적지소상접야자정지치송동동연여익인청풍이원서기야
亭以是得避炎之名也今亭西公築小窩於亭之西扁之曰亭西余復于公曰公家之有茲亭已
정이시득피염지명야금정서공축소와어정지서편지왈정서여복우공왈공가지유자정이
累世矣何不因其舊而又以亭西為哉公曰茲亭當空而臨水過清不可久留吾欲寢處寤寐於
루세의하부인기구이우이정서위재공왈자정당공이림수과청부가구류오욕침처오매어

斯而不可得此吾室之所以築也出而風乎亭入而息乎室蓋欲移亭於室而室在亭之西故曰
 사이부가득차오실지소이축야출이풍호정입이식호실개욕이정어실이실채정지서고왈
 亭西也余聞言而作曰公之意甚盛矣古人之世其舊物者無幾平泉之石至子而不能守輞川
 정서야여문언이작왈공지의심성의고인지세기구물자무기평천지석지자이부능수량천
 之庄至孫而不能保信乎奇賞寶玩循環如傳舍而公能守其舊亭不惟守之又從而築室賢於
 지장지손이부능보신호기상보완순환여전사이공능수기구정부유수지우종이축실현어
 古人遠矣公今年七十不廢詞律日我亭上景與意合則歸而書之壁人之和者殆數十紙又屬
 고인원의공금년칠십부폐사를일아정상경여의합칙귀이서지벽인지화자태수집지우속
 不佞爲記不佞蕪辭拙語固不足以輕重而竊附姻婭慕公之賢爲之記
 부녕위기부녕무사줄어고부족이경중이절부인아모공지현위지기

정서기(정자의 서쪽 집)

나의 거처는 ‘피염정(避炎亭)’ 과 가까워, 늘 눈과 귀로 접하고 발걸음이 닿는
 곳이다. 이 정자는 어린 소나무들이 뻗뻗하게 자라 있어, 맑은 바람을 더욱
 불러들이고, 더운 기운을 멀리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정자는 ‘피염(避炎, 더위를
 피하는 곳)’ 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공(公)께서 정자의 서쪽에 자그마한 거처를 지으시고, 그곳에
 ‘정서(亭西)’ 라는 편액을 다셨다.

이에 나는 다시 공께 여쭙었다.

"공의 가문에서는 이 정자를 대대로 소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원래의
 정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굳이 ‘정서(亭西)’ 라 이름 붙인 거처를 새로이
 지으셨습니까?"

그러자 공께서 대답하셨다.

"이 정자는 탁 트인 곳에 자리하여 물가를 마주하고 있으니,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오래 머물기 어려운 곳이오. 나는 이곳에서 머물며 밤낮으로 깨어 있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으니, 이에 거처를 지은 것이오.

나아가 바람을 맞으려면 정자로 나가고, 돌아와 쉴 때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소.
 이는 정자를 거처로 옮기려 한 것이나, 거처가 정자의 서쪽에 있으므로
 ‘정서(亭西)’ 라 이름 붙였소."

나는 공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며 말했다.

"공의 뜻이 참으로 깊으십니다. 예로부터 후손들이 선대의 유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평천(平泉)의 바위는 아들에게 이르러 지키지 못했고, 양천(輞川)의 장원도 손자 대에 이르러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기이한 경치를 감상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일이란, 마치 나그네가 객잔에 머무는 것과 같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께서는 이 정자를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또다시 거쳐까지 지으셨으니, 이는 고인(古人)보다 훨씬 뛰어난 일입니다."

공께서는 올해 일흔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니, "내가 정자에서 풍경과 뜻이 어우러지면, 돌아와 이를 벽에 기록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에 화답한 것이 거의 수십 편에 이른다.

공께서는 나에게도 이를 기념하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비록 글재주가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공의 뛰어난 인품을 흠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에 기록을 남긴다.



石串記 석천기

甲戌之暮春余與同志遊於石串之上余指巖上累石曰此天耶人耶果甚巧此非天也人也其
갑술지모춘여여동지유어석곶지상여지암상루석일차천야인야과심교차비천야인야기

累之者不亦費哉有人告余曰子不知石串之義乎嘗聞古老之言累石處古有石柱突然而立
루지자부역비재유인고여왈자부지석곶지의호상문고로지언루석처고유석주돌연이립

人之見之者必仰首至背而得其柱盡處則其高不知其形如鐵串故古人名以象之且走馬之
인지견지자필양수지배이득기주진처척기고부지기형여철곶고고인명이상지차주마지

山北來騫騰有騏驎脫勒之狀而石柱當前又如羈繫而止天之置是石者信有意而山川清淑
산북래견등유기준탈특지상이석주당전우여기집이지천지치시석자신유의이산천청숙

之氣居此土鍾焉故甘文一縣間於南國文章簪組肩化而立粵在萬曆間島夷之亂中國發兵
지기거차토종언고감문일현간어남국문장잠조견화이립월재만력간도이지란중국발병

來救首尾七年唐人之習於東國山川者與我國人無異苟一丘一石之有關於我者唐人必絕
 래구수미칠년당인지습어동국산천자여아국인무이구일구일석지유관어아자당인필절
 而決之斷而蹶之南土之害不可勝計而石串其一也殘鱗碎髓如龍之僵卧而此縣因而廢焉
 이결지단이결지남토지해부가승계이석곶기일야잔린쇄수여룡지강와이차현인이폐인
 父老語及此事未嘗不痛惋矣余聞而曰累石雖與天作異而不猶愈於無乎自今以往楠其缺
 부로어급차사미상부통완의여문이왈루석수여천작이이부유유어무호자금이왕남기결
 而益其高則庶有力焉又自解曰豪傑之挺生天地之氣也人才之升降國家之運也今人之肆
 이익기고척서유력언우자해왈호결지정생천지지기야인재지승강국가지운야금인지사
 於才力於學者不能萬一於古雖石串枉可能有補於自棄者乎請同志之人無尤唐人而尤其
 어재력어학자부능만일어고수석곶왕가능유보어자기자호청동지지인무우당인이우기
 身無用累石而累其學同志日善遂退而爲之記
 신무용루석이루기학동지일선수퇴이위지기

석천기(石串記)

갑술년(甲戌年) 늦봄, 나는 뜻을 같이하는 벗들과 함께 석천(石串)을 유람하였다.
 나는 바위 위에 층층이 쌓인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이 과연 하늘이 만든 것인가, 사람이 만든 것인가?

그 형상이 참으로 정묘하도다.

만약 사람이 쌓은 것이라면,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석천(石串)의 유래를 알지 못하는가?

옛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소.

이곳에는 본래 우뚝 솟은 돌기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바라볼 때 반드시
 목을 젓혀 올려다보아야 했소. 그러나 그 끝을 다 보려 하면, 그 높이를 알 수
 없어 마치 쇠꼬챙이(鐵串)처럼 보였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석천(石串)'이라 불렀던
 것이오."

또한, "주마산(走馬山)"이 북쪽에서 솟아오를 때, 그 형세가 날아오르는
 준마(駿馬)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그 앞으로 놓인 석주(石柱, 돌기둥)는
 마치 말이 고삐에 묶여 멈춰 선 것과 같았소.

그러므로 하늘이 이 돌을 이곳에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오.

그 결과, 산과 하천의 맑고 신령한 기운이 이 땅에 깃들어, 이곳 감문(甘文)과 한 고을(一縣)은 남국(南國)에서 문장과 관직에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되었소.

그러나, 만력(萬曆) 연간에 왜구가 섬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중국에서 군사를 보내 우리를 도왔으나, 그 전쟁이 7년간 이어졌소.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산천을 익히 아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중요한 바위와 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파괴하고 훼손할 것이라 생각했소.

그 결과, 석천(石串) 역시 왜구의 손에 의해 부서졌고, 그 형상은 마치 쓰러진 용(龍)이 죽은 듯 흩어진 파편만 남았소. 그리하여 이곳은 점차 황폐해지고, 마을 또한 쇠락하게 되었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늙은 어른들은 그때마다 한탄하며 아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소. 나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하였다.

"비록 쌓인 돌이 천연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차라리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결손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높이 쌓으면,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다.

"영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인 것이며, 인재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니라.

지금의 사람들이 재능과 학문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옛사람들에 비하면 만분의 일도 되지 못하니, 이 석천(石串)이 아무리 다시 세워진 다 한들, 스스로를 포기한 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남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반성할 것이며, 무용한 돌을 쌓는 데 힘쓰지 말고, 그 대신 학문을 쌓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이에 벗들이 모두 "옳은 말씀이다!"라고 찬동하였고, 우리는 그 자리를 물러나면서 이 기록을 남겼다.



蔡氏花樹軒記 채씨화수헌기

或謂不佞曰蔡氏花樹軒蓋取諸韋氏而軒左右無花樹若植之以實其名不亦善乎不佞笑曰
혹위부녕왈채씨화수헌개취제위씨이헌좌우무화수약식지이실기명부역선호부녕소일
蔡氏之名之以花樹者其意果在花樹耶人之植花樹而併能韋氏之事則其孰不家種戶桓而
채씨지명지이화수자기의과재화수야인지식화수이명능위씨지사칙기숙부가중호거이
洛陽綺紈之競奇闢華紅綠交映者無非韋氏耳焉用花哉噫韋氏以敦睦之誼聚其族而樂之
락양기환지경기투화홍록교영자무비위씨이언용화재희위씨이돈목지의취기족이악지
而其會適於花樹下故名之曰花樹會此以其實樂而寓之於虛名也觀乎此則蔡氏之取於韋
이기회적어화수하고명지왈화수회차이기실악이우지어허명야관호차칙채씨지취어위
氏者可知矣今蔡氏親其族如韋氏樂其族如韋氏而置酒於斯鼓琴於斯懷欣舞蹈於斯則軒
씨자가지의금채씨친기족여위씨악기족여위씨이치주어사고금어사회흔무도어사칙헌
之得花樹二字者足以盡韋氏事矣何必植此數叢花卉而始許以韋氏耶且花村者待春而榮
지득화수이자자족이진위씨사의하필훤차수총화훼이시허이위씨야차화촌자대춘이영
計其開落不過十日事也韋氏之會必於花樹則其霜飛葉脫之際韋氏雖欲會諸花下不可得
계기개락부과십일사야위씨지회필어화수칙기상비엽탈지제위씨수욕회제화하부가득
而蔡氏則不然仍其起居飲食之所而稱之以花樹軒風朝月夕夏日冬夜無非可會之日也然
이채씨척부연잉기기거음식지소이칭지이화수헌풍조월석하일동야무비가회지일야연
則韋氏之會有時而蔡氏之會無時也此豈非四時之花樹耶且人之築室者或百年而改之或
칙위씨지회유시이채씨지회무시야차기비사시지화수야차인지축실자혹백년이개지혹
數百年而改之則茲軒扁花樹者可期於數百年之久而及其改築之日爲其子孫者可不敬其
수백년이개지척자헌편화수자가기어수백년지구이급기개축지일위기자손자가부경기
祖先之所揭而仍之耶有是軒必有是各有其名必有其會則是世世花樹也余嘗以通家之故
조선지소게이잉지야유시헌필유시각유기명필유기회칙시세세화수야여상이통가지고
往來于蔡氏者幾十數年未見主人之獨坐茲軒而族黨之環坐者每如賀席之賓竊以爲韋氏
왕래우채씨자기십수년미견주인지독좌자헌이족당지환좌자매여하석지빈절이위위씨
可能也果以花樹之有無而有所損益則蔡氏何不爲之植也耶或者聞言而謝請爲之遂記之
가능야과이화수지유무이유소손익척채씨하부위지식야야혹자문언이사청위지수기지

채씨 화수헌기(蔡氏花樹軒記)

어떤 이가 나에게 말하였다.

"채씨(蔡氏)의 화수헌(花樹軒)은 아마 위씨(韋氏)에서 따온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자의 좌우에 꽃나무가 없으니, 이를 심어 그 이름에 걸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채씨가 이 정자를 '화수(花樹)'라 이름 붙인 것이 과연 꽃나무 자체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오? 사람마다 꽃나무를 심어 위씨의 일을 본받을 수 있다면, 어찌 집집마다 다투어 화려한 꽃을 심고, 낙양(洛陽)의 자색 비단처럼 붉고 푸른 빛깔이 어우러지지 않겠소?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위씨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니, 꽃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소?"

아! 위씨는 친족 간의 돈독한 정을 모아 함께 즐겼으며, 그 모임이 마침 꽃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기에 '화수회(花樹會)'라 이름한 것이오. 이는 실질적인 즐거움을 상징적인 이름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오. 이를 통해 보면, 채씨가 위씨에게서 취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소?

지금 채씨 또한 위씨처럼 친족을 가깝게 여기고, 위씨처럼 함께 즐기며,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거문고를 타고, 기쁘게 춤추며 즐긴다면, 정자가 '화수(花樹)'라는 이름을 얻음으로써 위씨의 뜻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오. 그런데 어찌 몇 그루의 꽃나무를 심어야만 위씨의 뜻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소?

더구나 꽃나무란 봄을 기다려야 피고, 그 개화 기간이 채 열흘도 되지 않소. 위씨의 모임이 반드시 꽃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면, 서리가 내리고 잎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위씨도 꽃 아래에서 모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러나 채씨는 그렇지 않소. 본래의 거처에서 먹고 마시며, 이를 '화수헌(花樹軒)'이라 이름하였으니, 아침 저녁으로, 여름과 겨울에도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것이오. 그렇다면 위씨의 모임은 특정한 계절에 국한되지만, 채씨의 모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이것이야말로 사시사철 피어 있는 꽃나무가 아니겠소?"

또한 사람이 집을 지으면 백 년이 지나면 개축하고, 수백 년이 지나면 다시 개축하는 것이니, 이 정자의 현판에 '화수(花樹)'라 적힌 것도 수백 년을 이어질 수 있을 것이오. 훗날 개축하는 날이 오더라도, 후손들은 선조가 내건 이 이름을 존중하여 그대로 이어가야 할 것이오. 이 정자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모임이 있을 것이고, 이 모임이 지속되는 한, 이는 대대로 이어지는 '화수(花樹)'가 될 것이오.

나는 채씨 가문과 교류한 지 십여 년이 넘었으나, 정자에 주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친족들이 둘러앉아 마치 경축 행사에 온 손님들처럼 환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소. 이를 보면, 채씨 가문이 위씨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소. 만약 꽃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모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라면, 채씨가 어찌 꽃나무를 심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공감하며, 나에게 이 기록을 남겨 줄 것을 부탁하였다.



石南鄉老會記 석남향로회기

石南權公行彥氏以好客顛倒一時莫不聞其名慕其義戊子秋吾鄉鄉老請權公約會于廣興
석남권공행언씨이호객전도일시막부문기명모기의무자추오향향로청권공약회우광흥

寺權公病不能寺請速于家諸老重違其請於是木川李令教官金公豐山李公龜潭金公道津
사권공병不能寺請速于家諸老重違其請於是木川李令教官金公豐山李公龜潭金公道津

鄭公河上柳公如約而至葵陽隨父兄後趨末席望見蒼顏白髮以大而坐儼然若神仙旬鮮熬
정공하상류공여약이지규양수부형후추말석망견창안백발이대이좌엄연약신선광선오

餌清酌動香真勝事也酒數行諸老屬余認其事余謝非其人不獲命敢作而曰昔汝南有一范
이청작동향진승사야주수행제로속여인기사여사비기인부획명감작이왈석여남유일범

滂爲賢工曹而世誦其德至今不衰況賢主人能致如范滂者六君子乎德星之聚正在箕尾東
방위현공조이세송기덕지금부쇠황현주인능치여범방자륙군자호덕성지취정재기미동

分弧星之下太史果能觀象記異如漢之星官乎人之生世也得壽者稀壽而無疾病者尤稀今
분호성지하태사과능관상기이여한지성관호인지생세야득수자희수이무질병자우희금

我諸老氣健色腴飲食起居無異強壯時雖橋中之老姑射之人何以加此今日之會不但為今
아제로기건색유음식기거무이강장시수굴중지로고사지인하이가차금일지회부단위금

日勝事亦足為吾鄉百年勝事也諸老曰諾退而為之記

일승사역족위오향백년승사야제로일낙퇴이위지기

석남향로회(石南鄉老會) 모임 기록

석남(石南)의 권공(權公) 행언(行彦)께서는 손님 접대를 좋아하시는 인품으로 당대에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덕을 흠모하였다.

무자년(戊子年) 가을, 우리 고향의 향로(鄉老)들이 권공께 모임을 약속하고 광흥사(廣興寺)에서 회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권공께서 병환으로 인해 절에 나가실 수 없게 되자, 사중(寺中)에서 급히 권공의 댁으로 장소를 옮겼다. 여러 어른들께서 다시 초청을 거부하기 어려워하셨고, 이에 목천(木川)의 이공(李公), 교관 김공(金公), 풍산(豐山)의 이공(李公), 귀담(龜潭)의 김공(金公), 도진(道津)의 정공(鄭公), 하상공(河上公) 등이 약속대로 도착하셨다.

나는 부형(父兄)을 따라 말석에 나아가 앉았는데, 바라보니 노년의 어른들께서 푸른 안색과 흰 머리카락을 지니신 채 엄숙하게 자리에 앉아 계셨다. 그 모습이 마치 신선(神仙)과도 같아, 정갈한 음식과 향기로운 술잔이 움직일 때마다 진실로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여러 어른들께서 내게 이 모임의 기록을 맡기려 하셨다. 나는 자신이 그럴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사양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지 못하고 감히 붓을 들어 기록하기로 하였다.

"예전에 여남(汝南)에 범씨(范氏)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진 공조(工曹)로서 세상 사람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의 훌륭한 주인이 그와 같은 여섯 분의 군자(君子)를 모셨으니, 이 또한 덕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북두칠성(箕尾)이 동쪽으로 갈라져 있고, 호성(弧星)이 빛나고 있듯이, 태사(太史, 천문을 관장하는 관직)가 만약 한나라의 성관(星官)처럼 별자리를 보고 이 이례적인 일을 기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태어나 장수를 누리는 사람은 드물고, 장수하면서도 질병이 없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께서는 기색이 건강하고 안색이 윤택하며, 식사와 거동이 젊은 시절과 다름이 없으니, 비록 굴 중의 노인(橘中之老)이나 구야산(姑射山)의 신선과 비교한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늘의 모임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경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고향 백년의 큰 경사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여러 어른들께서 "옳은 말이오!" 하시며, 나는 물러나 이를 기록하였다.

跋 발

題林烈婦事蹟後 제림렬부사적후

笄而裳者盡婦也婦婦其行者果幾人哉若林氏家婦者眞烈婦也噫婦生百姓家勿而無姆傅
계이상자진부야부부기행자과기인재약림씨가부자진렬부야희부생백성가인이무모부
長而不窺女史義理宛生之輕重宜若不辨而能判烈烈之節信乎天獎之一腔不待勉強者也
장이부규녀사의리완생지경중의약부변이능판렬렬지절신평천장지일강부대면강자야
夫病而不食夫死而赴水方是時見父而孝居後撫孤而慈為輕只以一死從夫自誓雖責育莫
부병이부식부사이부수방시시견부이효거후무고이자위경지이일사종부자서수분육막
之奪也噫淵媛而後可以她人而水不濡踵婦能致命吾知其一勺水之能嘔其千萬古義烈之
지탈야희연원이후가이저인이수부유종부능치명오지기일균수지능개기천만고의렬지
源也豈不卓卓乎異哉其前後事實揄揚大筆李斯文景文若天二記盡之吾不并贅而猶有所
원야기부탁탁호이재기전후사실유양대필리사문경문약천이기진지오부병채이유유소
擊不已者感而書其後
격부이자감이서기후

임열부(林烈婦)를 기리는 글

비너를 꽃고 치마를 입는 자는 모두 여인이거늘, 진정으로 열부(烈婦)라 할 만한
이는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나 임씨 가문의 이 여인은 참으로 열부라 할
만하다.

아, 여인은 평범한 백성의 집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유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지만, 고대의 여사(女史)들이 가르친 예의와 이치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마땅히 경중(輕重)을 분별하지 못할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개를 분명히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그녀에게 부여한 덕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요,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 먹지 않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스스로 물에 몸을 던졌다. 바로 그때,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뒤에 남은 어린 자식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오직 한마음으로 죽음으로써 남편을 따를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고, 비록 용맹한 장수(賁育)라 할지라도 그 결의를 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 깊은 물속에서도 물에 젖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여인은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았으니, 그녀의 결연한 의지가 강물과 같음을 알겠다. 이는 단순한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수천만 년을 이어온 의리와 절개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니, 참으로 특별하고도 드문 일이 아니겠는가?

그녀의 사적은 이미 대필(大筆)을 잡은 이들이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이경문(李景文) 선생과 천이기(天二記)가 이를 온전히 서술하였다. 나는 구태여 덧붙이지 않으려 하였으나, 감격하여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남긴다.



水島再會詩帖後識 수도재회시첩후식

右軍蘭亭之帖一修而不再 弇州縹緲之會一成而不復 蓋世故多端 勝事難繼 古人所歡也 向
우군란정지첩일수이부재감주표표지회일성이부복개세고다단승사난계고인소환야향
卯壬午作剡溪之遊與諸賢共之 癸未又繼前進而文章之士三四人加於前 此則右軍弇州之
묘임오작섬계지유여제현공지계미우계전진이문장지사삼사인가어전차칙우군기주지
所不能也 未知當日蘭亭縹緲之上又有賢主人能有如吾士網者否 凡我同志之人無念此會
소부능야미지당일란정표표지상우유현주인능유여오사망자부범아동지지인무념차회
在末席者髮猶蒼蒼 吾儕之衰亦甚矣 請歲一會以畢其樂
재말석자발유창창오제지쇠역심의청세일회이필기악

수도(水島)에서 다시 모인 시첩(詩帖)의 후기를 붙이다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서(蘭亭序)〉는 단 한 번만 베껴 쓰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않았으며, 염주(弇州)의 신비로운 모임 또한 한 번 이루어진 후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는 세상의 변화가 많아 훌륭한 일이 지속되기 어려운 까닭이며, 옛사람들이 누린 즐거움도 영원할 수 없음을 뜻한다.

과거 임오년(壬午年)에 나는 섬계(剡溪)에서 유람하며 여러 어진 분들과 함께했으며, 계미년(癸未年)에 다시 그 길을 따라 나아가 문장을 논하는 선비 서너 명이 더해졌다. 이는 염주의 모임에서도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이니, 모르겠다. 당시 난정(蘭亭)과 염주(兪州)의 모임에서도 우리처럼 많은 학자가 함께했던 적이 있었는지.

이러한 모임을 함께한 동지들이여, 부디 이번 모임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말석(末席)에 있던 이들도 여전히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우리 또한 점점 늙어가고 있음이 더욱 뚜렷하다. 바라건대, 매년 한 차례씩 이 모임을 열어 다함없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희망한다.

附錄 부록

家狀 가장

[1]

公諱葵陽字向卿漢陽人考諱元益壽陞正憲同知早廢舉修行 祖諱鳳徵文科都事
공휘규양자향경한양입고휘원익수승정헌동지조폐거수행 조휘몽징문과도사

贈禮曹參判修辭惇德 曾祖諱鳴漢進士 贈左承旨誠孝出天學術純正 高祖諱德秀
증례조참판수사돈덕 증조휘명한진사 증좌승지성효출천학술순정 고조휘덕수

贈司僕正三世追榮以先考壽職也 生高祖諱貫進士號檜溪丙子後托疾廢舉
증사복정삼세추영이선고수직야 생고조휘관진사호회계병자후탁질폐거

遠祖諱之壽僉議中書曰暉雙城總管曰良琪龍城君 十三從上洛公金方慶日本之役有功
원조휘지수침의중서왈휘쌍성총관왈량기룡성군 십삼종상락공김방경일본지역유공

元世祖賜錦袍玉帶 三世封龍城君以忠烈稱 曰暉府院君 曰仁璧 贈左議政漢山伯
원세조사금포옥대 삼세봉룡성군이충렬칭 왈훈부원군 왈인벽증좌의정한산백

諡襄烈以太祖大王姊婿知天命有歸退老襄陽享忠賢祠 曰涓本朝右議政諡良敬封漢平君
익양렬이태조대왕자서지천명유귀퇴로양양향충현사 왈연본조우의정익량경봉한평군

曰憐兵曹參判 曰云從郡守日琮清河縣監避文正公己卯禍始居榮川子孫遂為嶺人
왈련병조참판 왈운종군수일중청하현감피문정공이묘화시거영천자손수위령인

曰智琬無子以弟參議亨琬子涵為嗣 曰光虞又無子以從弟光門子德秀為嗣
왈지완무자이제참의형완자함위사 왈광우무자이종제광문자덕수위사

[1]

공의 이름은 조규양(趙葵陽)이요, 자는 향경(向卿)이며, 본관은 한양(漢陽)입니다.
부친의 이름은 원익(元益)이시며, 생전에 정헌동지사(正憲同知事)에 오르셨고,
일찍이 과거를 단념하고 수양과 실천에 힘쓰셨습니다.

享年七十一十歲遭祖考喪在親側哭泣之如成人三十二遭先妣喪禮制一蹲家禮祇奉親意
향년칠십일십세조조고상재친측곡읍지여성인삼십이조선저상례제일준가례기봉친의

不毀不懈三十九中生員試三第繼而俱成小科壬辰先考以壽職追榮焚黃癸巳仲第普陽
부훼부해삼십구중생원시삼제계이구성소과임진선고이수직추영분황계이중자보양

仲子錫晦俱登大科特被着帽陰嶺之教時先考無恙兄弟子姪咸在而先妣謝世已久孝忠
중자석회구등대과특피착모유령지교시선고무양형제자질함재이선비사제이구효충

無窮矣 不幸公以三年貞疾坐卧倩人常謂子弟日親年及九耄我亦洽滿稀年雖未能舞班
무궁의 부행공이삼년정질좌와천인상위자제일친년급구질아역흠만희년수미능무반

弄雛箕福康寧安敢唱乎及其終也無怛化意以某月日薨于知過洞負西之原即宜人墓下塋
통추기복강녕안감창호급기종야무달화의이모월일규우지과동부유지원즉의인묘하의

年改 葬于馬鳴洞負乾之原

년개 장우마명동부건지원

[2]

돌아가신 어머니 정부인(貞夫人) 예안 이씨(禮安李氏)는 휘(諱)가 기만(基晩)이며,
아름다운 덕을 지니셨다. 돌아가신 아버지 참판공(參判公)께서는 신부의 예(禮)를
명하시어 다섯 아들을 낳으셨으니, 이는 길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과연
명릉(明陵) 병술년(丙戌年) 12 월 11 일에 풍산(豐山) 외가 댁에서 태어나셨고,
병신년(丙申年) 5 월 12 일에 유동리(酉洞里) 자택에서 돌아가셨으니, 향년
71 세였다. 10 세에 할아버지 상을 당하여 어른처럼 곡읍하였고, 32 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예법에 따라 3 년상을 치르며,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조금도
훼손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39 세에 생원시에 세 번째로 합격하였고, 이어
소과에도 모두 합격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수직(壽職)으로
추증되어 영화를 누리셨고, 계사년(癸巳年)에 둘째 아우 보양(普陽)과 둘째 아들
석회(錫晦)가 모두 대과에 급제하여 특별히 사모(紗帽)를 하사받는 영광을 누렸다.
당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무고하셨고, 형제와 자식, 조카들이 모두 함께
있었으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효성과 충성이 끝이
없었다.

불행히도 아버지는 3 년 동안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고, 늘 자식들에게
'나이가 아흔에 이르렀으니, 나 또한 칠십이 넘어 늙었다. 비록 춤을 추거나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떨 수는 없지만, 편안하게 지내니 감히 불평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다 결국 어느 달 어느 날에 지과동(知過洞) 서쪽

언덕에 있는 의인(宜人)의 무덤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이듬해 마명동(馬鳴洞) 건좌(乾坐) 언덕에 있는 무덤으로 개장하였다.

[3]

公生而岐嶷風骨俊秀意匠宏廓王考嘗稱以吾家千里駒王考知鐵城時祖妣貞夫人柳氏
공생이기의풍골준수의장광곽왕고상칭이오가천리구왕고지철성시조비정부인류씨

鴻置於轎所過名山大川開懷吟賞及到縣見溟海島嶼日月吞吐雲烟變幻鯨鮪蛟
오치어교소과명산대천개회금상급도현견명해도서일월탄토운연변환경구교

鰕鳳鼎擥懶之狀已有子長名山藏書之意受業文思機警其興公得失臧否邪正了然在目
하희비녕라지상이유자장명산장서지의수업문사기경기흥공득실장부사정료연재목

不勞而得之先考性嚴一定課程夏楚是用公雞跡弛不羈之才屈首折節漸就矯揉之白
부로이득지선고성엄일정과정하초시용공계탁이부기지채굴수절절점취교유지구

不越尺寸先妣未嘗有辭色寬假教之以必恭必敬口不言財貨事不苟捷選夜課而優油山房
부월척촌선비미상유사색관가교지이필공필경구부언재화사부구첩선야과이우유산방

而贏糧期成大儒宜人克承尊姑之指教衣服必取精潔飲食必取調適以此公常有閒靜叙泰
이영량기성대유의인극승존고지지교의복필취정결음식필취조적이차공상유한정서태

之容而無艱辛苦澀之態養親無滯隨之乏米鹽常饒餅餌繼支亶由於先考豫爲綢繆不使公
지용이무간신고삼지태양친무순수지핍미염상요병이계지단유어선고예위주무부사공

有所憂戚於養志之外也然自童穉之時務達稼穡之苦惟爲餘暇之學多能鄙事刊落浮華常
유소우척어양지지의야연자동치지시무달가색지고유위여가지학다능비사천락부화상

提撕子弟曰掘不及泉則不免廢井穿不串線則猶爲棄珠若等惟以做成為主自號鈍巖取王
제서자제왈굴부급천척부면폐정천부긋선척유위기주약등유이주성위주자호둔암취왕

許二子以魯名齋之義也

허이자이로명재지의야

[3]

공은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뛰어났으며, 풍채와 골격이 준수하고 뜻과 계획이
웅대하고 넓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 집안의 천리마"라고

칭찬하셨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철성(鐵城)의 수령으로 계실 때, 할머니 정부인
유씨(柳氏)께서는 가마에 태워 명산대천을 두루 구경하며 마음껏 감상하게

하셨다. 현(縣)에 도착하여 넓은 바다의 섬들을 보니, 해와 달이 뜨고 지며 구름과
안개가 변화무쌍하고 고래와 새우, 자라와 자라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마치 자라서

명산을 찾아 책을 숨겨두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 글을 배우니 재치가 번뜩였고, 그가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눈앞에 흰히 드러나 보듯 분명하여 애쓰지 않아도 모두 알 수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성품이 엄격하여 반드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르게 하였고, 회초리를 사용하여 가르치셨다. 공은 자유분방하고 구속받지 않는 재주를 지녔으나 머리를 숙이고 절개를 굽혀 점차 틀에 맞춰져 갔다. 부모님께서는 조금도 꾸짖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며 반드시 공손하고 경건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치셨다. 입으로는 재물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일을 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요행을 바라지 않으셨다. 밤에 공부할 때 좋은 기름을 쓰고 방에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여 훌륭한 유학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다. 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옷은 반드시 깨끗하고 좋은 것을 입히고 음식은 반드시 입맛에 맞게 조리하여 공은 항상 한가롭고 조용한 모습으로 지냈으며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을 봉양함에 있어 쌀과 소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고, 항상 떡과 과자를 풍족하게 준비하셨다.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를 잘 해두었기 때문이며, 공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 외에 다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공은 어릴 때부터 농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남는 시간에만 공부를 했으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허황된 것을 멀리하도록 했다. 항상 자식들에게 "우물을 파다가 샘에 이르지 못하면 우물을 파는 것을 그만두는 것과 같고,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하면 구슬을 버리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오직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스스로를 둔암(鈍巖)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왕씨(王氏)와 허씨(許氏) 두 사람이 어리석음을 이름으로 삼았던 것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4]

公早學於新塘處士李公成全氏朗孤山先生帷幃之高足也門路有自識見高邁每以內外
공조학어신당처사리공성전씨랑고산선생유장지고족야문로유자식견고매매이내외

輕重之分爲教公兄弟得力者滾矣伊洛關閩之書史傳百家之編手自精抄有朱子節要
경중지분위교공형제득력자곤의이락관민지서사전백가지편수자정초유주자절요

抄語類抄性理鑑人集五總龜經等書其爲文如水浮物而金自鎔凡先生長者如江左權公
초어류초성리감인집오총구경등서기위문여수부물이김자용범선생장자여강좌권공

萬鹿洞李公濟兼承旨鄭公權許之以後進之執耳姜菊圃翁眼空一世而評驚之以戰國
만록동리공제겸승지정공권허지이후진지집이강국포옹안공일세이평즐지이전국

長短洪知事晟洪判書重孝李萬頃孟休許煙客泌申石北光洙姜台世晃交將於賴村皆稱
장단홍지사성홍판서중효리만경맹휴허연객필신석북광수강태세황교장어반촌개칭
爲之執鞭而不辭李相福源李判書性源未釋禍時一見計以國士擊節六義之稿曰不可使
위지집편이부사리상복원리판서성원미석화시일견계이국사격절륙의지고왈부가사
此文湮沒於世與其私於一家寧為公共之寶遍示同研攻文之士途變一時科作之體以此
차문인몰어세여기사어일가녕위공공지보편시동연공문지사도변일시과작지체이차
得售者多至百餘人李進士東運贈別詩曰解劍香橋上浮雲馬首多江漢日浩蕩行行奈爾
득수자다지백여인리진사동운증별시왈해검향교상부운마수다강한일호탕행행내이
何沒有感於一士之進退與淮南子所謂一葉落而知秋一壺冰而知寒近之矣始電義遍於
하물유감어일사지진퇴여회남자소위일엽락이지추일호빙이지한근지의시전의편어
八路洪範賦傳播於北京白棗篇流入於湖海尙友策會灸於坵湖其他長篇累牘至如白香
팔로홍범부전파어북경백조편류입어호해상우책회구어탁호기타장편루독지여백향
山所作山村野店皆貼之不足以貴公而適足以累公也命犯磨蝎韓蘇所不免而終焉偈伏
산소작산촌야점개첩지부족이귀공이적족이루공야명범마갈한소소부면이종언궁대
窮鄉一時宰間公之役滾歎其席帽斷送此人吾輩之罪也
궁향일시재간공지역곤탄기석모단송차인오배지죄야

[4]

공은 일찍이 신당 처사 이공 성전(李公成全)에게 배웠는데, 그는 낭고산
선생(朗孤山先生)의 뛰어난 제자였다. 학문적 연원이 분명하고 식견이
고매하였으며, 항상 내외의 경중을 분별하여 가르침을 주었다. 공과 그의 형제가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락(伊洛)과 관민(關閩)의 서적과 사서 및
제자백가의 서적을 손수 정밀하게 베껴 썼는데, 주자절요초(朱子節要抄),
어류초(語類抄), 성리감인집(性理鑑人集), 오총귀경(五總龜經) 등의 책이 있었다.
그의 문장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물건과 같았고, 금이 저절로 녹아 만들어진
것과 같았다. 강좌(江左)의 권공(權公), 만록동(萬鹿洞)의 이공 제(李公濟), 승지
정공(鄭公), 권공(權公), 허공(許公)과 같은 훌륭한 선생과 어른들은 그를 후진의
귀감으로 여겼다. 강국포 옹(姜菊圃翁)은 세상을 얹잡아보았지만, 그를 전국
시대의 인물처럼 평하였다. 홍지사(洪知事) 성(晟), 홍판서(洪判書) 중효(重孝),
이만경(李萬頃) 맹휴(孟休), 허연객(許煙客) 비(泌), 신석북(申石北) 광수(光洙),
강태세(姜台世) 황(晃) 등이 모두 반촌(賴村)에서 그에게 채찍을 들고 따르기를
자처했다. 이상복(李相福) 원(源)과 이판서(李判書) 성원(性源)은 재앙이 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를 만나 국사(國士)로 여기며 탄복했고, 육의(六義)의 초고를 보고는

"이 글을 세상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 한 집안에 숨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보물로 삼아 함께 글을 연구하는 선비들에게 널리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과거 시험의 풍토가 바뀌었고, 그의 영향을 받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백여 명에 이르렀다. 이진사(李進士) 동운(東運)은 그에게 작별 시를 지어주었는데, "향교 다리 위에서 칼을 푸니, 말머리에는 뜬구름이 많네. 강과 바다가 날로 넓어지니, 행여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였다. 한 선비의 진퇴에 감동하는 모습은 《회남자(淮南子)》에서 말한 "나뭇잎 하나 떨어짐을 보고 가을이 온 줄 알며, 한 병의 얼음을 보고 겨울이 온 줄 안다"라는 말과 비슷했다. 그의 의로움이 팔도에 퍼지고, 홍범부(洪範賦)가 북경에 전파되었으며, 백조편(白棗篇)이 호남과 해남에 흘러들어갔다. 상우책(尙友策)은 탁호(拆湖)에서 모임을 가졌고, 그 외에 긴 글들이 책에 가득했다. 마치 백향산(白香山)이 지은 산촌야점(山村野店)과 같은 글은 그를 높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를 얹매이게 할 뿐이었다. 그의 운명은 마갈궁(磨蝎宮)에 걸려 한유(韓愈)와 소식(蘇軾)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궁벽한 시골에서 일시적인 재상의 심부름을 하며 생을 마감했다. 사람들은 그의 갓을 쓰고 보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낸 것은 우리들의 죄이다"라고 탄식했다.

[5]

公識鑑如戴容州獎誘如蘇長公 所居而化者雖不如楊司業之薰陶而因文而悟者亦不下
공식감여대용주장유여소장공 소거이화자수부여양사업지훈도이인문이오자역부하
鄭康成之書帶則一洗鄉隣膚淺之文而反之百年正始之音向者尋章摘句之鄉變作經經緯
정강성지서대척일세향린부천지문이반지백년정시지음향자심장적구지향변작경경위
史之坊其功不少矣嗚呼公方面皙耳秀眉貝齒風度魁梧雄辯驚座不言人長短得失義貴
사지방기공부소의오호공방면석이수미패치풍도괴오웅변경좌부언인장단득실의귀
急難而志在廣濟平生不作風波於世了無冰炭於胃作箇銀山鐵壁於穰穰趨利之時則善觀
급난이지재광제평생부작풍파어세료무빙탄어흉작개은산철벽어양양추리지시척선관
者得之其或者老公之有過於挈雲手段將不斷書於墓表蜀君子之名乎否乎
자득지기혹자로공지유과어나운수단장부단서어묘표촉군자지명호부호

古人言欲觀其人當觀其友柳子厚先友記刻之先人碑陰今依其例記先兄之友金九思樂行
고인언욕관기인당관기우류자후선우기각지선인비음금의기례기선형지우김구사악행
柳三山正源李下枝象辰李參奉達中學中金正言坊金持平瑋李參奉重光權進士濤柳參奉
류삼산정원리하지상진리참봉달중학중김정언방김지평위리참봉중광권진사도류참봉

聖曾李永春守貞李大憲世澤權連山正宅成進士惠寅金芝翁鼎漢任龜山必大南參奉龍萬
 성증리영춘수정리대헌세택권련산정택성진사혜인김지옹정한임구산필대남참봉룡만
 金參奉絃宋進士履錫鄭斯文翰弼金進士柱雲趙斯文性道權進士潤孫進士思翼李錦翁
 김참봉현송진사이석정사문한필김진사주운조사문성도권진사운손진사사익리금옹
 植春黃進士羽漢李陰城世述金斯文柱國諸公相爲道義之交金蘭之盛在古惟罕平生
 식춘황진사우한리음성세술김사문주국제공상위도의지교김란지성재고유로평생
 有無不好底人盛德之量故好底人氣類相求宜陽何敢窺測其萬一而蓬麻相資友道固然
 유무부호저인성덕지량고호저인기류상구의양하감규측기만일이봉마상자우도고연
 今日月逝矣聲塵邈矣非敢以諸賢之書不謂之猥越而先兄之意冒瀆以書之
 금일월서의성진막의비감이제현지서부위지의월이선행지의모독이서지

[5]

공의 식견은 마치 대용주(戴容州)처럼 사람을 알아보고 격려하였고, 가르침은
 소장공(蘇長公)과 같았다. 공이 거처하며 교화한 사람들은 양사업(楊司業)의
 훈도에는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정강성(鄭康成)의 제자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공이 서대(書帶)를 한 번 매면,
 향촌의 천박한 글들이 모두 씻겨 나가고, 백 년 전의 정시(正始) 시대의 맑은
 소리가 되살아났다. 예전에 글귀나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경전을 논하고 역사를
 종횡으로 엮는 학문을 하게 되었으니, 그 공이 적지 않았다.

아아! 공은 얼굴이 네모지고 희었으며, 귀는 빼어나고 눈썹은 아름다웠고, 입술은
 조개껍질처럼 희고 가지런했으며, 풍채는 늙름하고 웅장하였다. 웅변은 좌중을
 놀라게 하였고, 남의 장단점이나 득실을 말하지 않았다. 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며, 널리 백성을 구제하는 데 뜻을 두었다. 평생 세상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았고, 가슴속에 얼음과 솜처럼 상반된 감정을 품지 않았다.
 번잡하고 이익을 좇는 세상에서 은산철벽(銀山鐵壁)처럼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니,
 선량한 사람들은 이를 본받을 만하였다. 혹자는 공이 구름을 움켜잡는 듯한
 수완이 부족하여 묘비에 그의 뛰어난 이름을 새기지 못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옛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말하였다. 유자후(柳子厚)의
 선우기(先友記)는 선인의 비석 뒤에 새겨져 있다. 이제 그 예를 따라 먼저 형님의
 친구들을 기록한다. 김구사(金九思) 낙행(樂行), 유삼산(柳三山) 정원(正源),
 이하지(李下枝) 상진(象辰), 이참봉(李參奉) 달중(達中), 학중(學中) 김정언(金正言)
 방(坊), 김지평(金持平) 위(瑋), 이참봉(李參奉) 중광(重光), 권진사(權進士) 도(濤),
 유참봉(柳參奉) 성증(聖曾), 이영춘(李永春) 수정(守貞), 이대헌(李大憲) 세택(世澤),

권연산(權連山) 정택(正宅), 성진사(成進士) 혜인(惠寅), 김지옹(金芝翁) 정한(鼎漢), 임구산(任龜山) 필대(必大), 남참봉(南參奉) 용만(龍萬), 김참봉(金參奉) 현(紘), 송진사(宋進士) 이석(履錫), 정사문(鄭斯文) 한필(翰弼), 김진사(金進士) 주운(柱雲), 조스문(趙斯文) 성도(性道), 권진사(權進士) 윤(潤), 손진사(孫進士) 사익(思翼), 이금옹(李錦翁) 식춘(植春), 황진사(黃進士) 우한(羽漢), 이음성(李陰城) 세술(世述), 김스문(金斯文) 주국(柱國) 등 여러 공들은 서로 도의로 사귀는 친분을 맺었고, 금란지교(金蘭之交)의 성대함은 예로부터 드물었다. 공은 평생 나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높은 덕망을 지녔으므로, 좋은 사람들이 기류를 따라 서로를 찾았다. 의양(宜陽)인 내가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죽과 삼처럼 서로 의지하는 것이 벗의 도리이다. 이제 세월은 흘러가고 명성은 아득해졌으니, 감히 여러 현인들의 글을 외람되다고 여기지 않고, 형님의 뜻을 받들어 기록한다.

[6]

配豐山金氏生員達龍女有五子一女長錫範錫晦文科縣令錫忠錫商出繼錫景女適孫時
배풍산김씨생원달룡녀유오자일녀장석범석회문과현령양충석상출계양경녀적손시
龍側室子錫眡錫範五子三女顯模顯漳出后顯汶出后顯遭顯潯女適申應堯李昌述一幼
룡측실자양진양범오자삼녀현모현장출후현문출후현조현준녀적신응요리창술일유
錫晦三子六女顯洙顯龜顯潯女適張泰久朴宗赫李昌瑾洪最根餘幼錫忠二子二女男幼
양회삼자육녀현수현구현로녀적장태구박종혁리창근홍최근여유양충이자이녀남유
女適權休復一幼錫商一子幼二女長適李龜祐錫景系子顯漳錫昀子顯容內外孫曾多不
녀적권휴복일유양상일자유이녀장적리구호양경계자현장석윤자현용내외손증다부
盡記今者萬頃君承父兄之教惟不克負荷是懼既收拾遺文未經先進斤正而墓木已拱繫
진기금자만송군승부형지교유부극부하시구기수습유문미경선진근정이묘목이공계
牲未具是亦有事未可知之戒雖見諛聞寡謹受仲兄之指敢瀝血而書付萬頃君走謁當世
생미구시역유사미가지지계수견유문과근수중형지지감력혈이서부만경군주알당세
秉筆之門寔恐拙叙之不副採微焉舍宜陽謹書
병필지문식공졸서지부부채징언사의양근서

[6]

부인은 풍산 김씨(豐山金氏) 생원 달룡(達龍)의 딸이며,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낳았다. 큰아들 석범(錫範), 둘째 아들 석회(錫晦)는 문과 현령(縣令)을 지냈고,

셋째 아들 석충(錫忠), 넷째 아들 석상(錫商)은 양자로 갔으며, 다섯째 아들 석경(錫景)과 딸은 손시룡(孫時龍)의 측실 자식에게 시집갔다. 여섯째 아들 석진(錫珍)은 요절하였다. 석범은 아들 다섯과 딸 셋을 두었는데, 현모(顯模), 현장(顯漳)은 양자로 갔고, 현문(顯汶)은 후사가 없으며, 현조(顯遭), 현준(顯濬)은 딸을 두어 신응요(申應堯)와 이창술(李昌述)에게 시집보냈고, 나머지 딸들은 어려서 요절하였다. 석희는 아들 셋과 딸 여섯을 두었는데, 현수(顯洙), 현구(顯龜), 현로(顯潞)는 장태구(張泰久), 박종혁(朴宗赫), 이창근(李昌瑾), 홍최근(洪最根)에게 시집보냈고, 나머지 딸들은 어려서 요절하였다. 석충은 아들 둘과 딸 둘을 두었는데, 아들은 어려서 요절하였고, 딸은 권휴복(權休復)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 딸은 요절하였다. 석상은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두었는데, 아들은 어려서 요절하였고, 큰딸은 이구호(李龜祐)에게 시집갔다. 석경의 양자 현장은 석운(錫昀)의 아들 현용(顯容)이다. 내외 손자와 증손이 많아 모두 기록할 수 없다.

지금 만송군(萬頌君)은 아버지와 형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능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미 유고를 정리하였으나 선배들의 수정과 교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묘소의 나무는 이미 아름드리나무가 되었으며, 제사 음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경계가 된다. 비록 칭찬을 듣지만 과분함을 알고 삼가 둘째 형의 뜻을 받들어 피눈물을 흘리며 기록하여 만경군(萬頃君)에게 부친다. 바라건대 만경군은 당대의 문장가들을 찾아가 나의 졸렬한 기록이 그들의 채택에 부합하는지 살펴주기를 바란다. 의양(宜陽)의 후손이 삼가 기록한다.

行狀 행장

[1]

公諱葵陽字向卿鈍巖其號也姓趙氏系出漢陽鼻祖之壽麗朝會議中書事有諱暉雙城總管
公휘 규양자향경둔암기호야성조씨계출한양비조지수려조회의중서사유휘휘쌍성총관
龍城君有諱良琪十三從上洛君金方慶日本之行有功元世祖賜錦袍玉帶襲封龍城以忠烈
룡성군유휘량기십삼종상락군김방경일본지행유공원세조사금포옥대습봉룡성이충렬
稱有龍源君諱仁璧贈左議政漢山伯諡襄烈
칭유룡원군휘인벽증좌의정한산백익양렬

[1]

공(公)의 휘(諱)는 규양(葵陽)이요, 자(字)는 향경(向卿), 호(號)는 둔암(鈍巖) 이 다.
성은 조씨(趙氏)이며, 그 계통은 한양(漢陽)에서 나왔다.

비조(鼻祖) 지수(之壽)는 고려(麗朝)에서 회의중서사(會議中書事)를 역임하였으며,
휘(諱)는 휘(暉)이다. 또한 쌍성총관(雙城總管)을 지낸 용성군(龍城君) 조량기
(趙良琪)는 고려 공민왕 때 김방경(金方慶)을 따라 일본 원정에 종군하여 공을
세웠고, 이에 원(元) 세조(世祖)로부터 금포(金袍)와 옥대(玉帶)를 하사받고,
용성군(龍城君)의 작위를 세습하였다. 그리하여 충렬(忠烈)로 명성을 얻었다.

또한, 용원군(龍源君) 조인벽(趙仁璧)은 조선에서 좌의정(左議政)에 증직되었으며,
한산백(漢山伯)의 봉작을 받았고, 시호는 양烈(襄烈)이다.

[2]

以太祖姊婿知天命有歸退老襄陽享忠顯祠有諱涓仕朝右議政諡良敬漢平君有
이태조자서지천명유귀퇴로양양향충현사유휘연사조우의정익량경한평군유

諱憐知敦寧有諱云從郡守有諱琮縣監以判事黃震孫壻贅居榮川子孫遂爲嶺人生
휘련지돈녕유휘운종군수유휘중현감이판사황진손서채거영천자손수위령인생

諱智琬無育以弟亨琬第三子涵為嗣生光虞又無育以四寸弟光門子德秀為後於公為高祖
휘지완무육이제형완제삼자함위사생광우우무육이사촌제광문자덕수위후어공위고조

司僕正曾祖諱鳴漢進士贈左承旨有孝行學術祖諱鳳徵文科都事禮曹參判有德望考
사복정증조휘명한진사증좌승지유효행학술조휘봉징문과도사례조참판유덕망고

諱元益壽資正憲同知早謝舉業以勅行教子為事她貞夫人禮安李氏士人基晩女有婦德
휘원익수자정헌동지조사거업이척행교자위사저정부인례안리씨사인기만녀유부덕

于歸之席尊舅參判公命以生五男盖有兆送而果叶以
우귀지석존구참판공명이생오남개유조송이과협이

[2]

공의 가계는 태조의 매부로서 천명을 알고 물러나 양양에서 여생을 보낸 인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충현사(忠顯祠)에 배향되었다. 휘(諱)는 涓(연)이며, 본조(本朝)에서 우의정(右議政)에 추증되었고, 시호(諡號)는 양경(良敬)이며, 한평군(漢平君)에 봉해졌다.

그 후손으로는 휘 憐(련)이 있으며, 그는 돈녕부(敦寧府)에서 직임을 맡았고, 휘 云從(운중)은 군수(郡守)를 지냈으며, 휘 琮(중)은 현감(縣監)을 역임하였다. 또한, 황진(黃震)의 손서(孫壻)로서 영천(榮川)에 처가살이를 하면서 정착하였고, 그의 자손들이 점차 영남(嶺南) 지방에서 번성하였다.

그 후손 중 휘 智琬(지원)이 있었으나 자식이 없었으며, 그의 형제 중 셋째인 涵(함)이 그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光虞(광우)도 후사를 남기지 못하여, 사촌(四寸)인 光門(광문)의 아들 德秀(덕수)가 그 뒤를 이었다.

공(公)의 고조부는 증 사복정(司僕正)이며, 증조부는 휘 鳴漢(명한)으로, 진사(進士)였으며, 좌승지(左承旨)로 추증되었다. 효행이 뛰어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조부 휘 鳳(봉)은 과거에 급제하여 문과(文科)로 뽑혀 도사(都事)를 지냈고,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추증되었으며, 덕망이 있었다.

부친 휘 元益(원익)은 수자(壽資) 정헌(正憲) 동지(同知)였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명(勅)을 받아 자식 교육에 힘썼다. 어머니는 정경부인(貞夫人) 예안 이씨(禮安李氏)로, 사인(士人) 이기만(李基晩)의 따님으로서 덕행이 뛰어났다. 혼인 후에는 가정을 잘 다스렸으며, 참판(參判) 공(公)의 명에 따라 다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 예견된 것이며 결국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3]

明廟丙戌十二月十一日戌時公生于豐山外氏家骨相非凡及其初學才器過人意量宏滂
 명묘병술십이월십일일술시공생우풍산외씨가골상비범급기초학재기과인의량굉방
 王考公常奇愛之每稱以吾家千里駒兒時隨王考鐵城任所鐵是海邑也日月烟雲之吞吐
 왕고공상기애지매칭이오가천리구아시수옥고철성임소철시해읍야일월연운지탄토
 變幻鯤鯨蛟們之興鼉獐枉壯其觀而廣其志尙不及司馬子長之年而已遂江淮之遊從以
 변환곤경교문지비비영왕장기관이광기지상부급사마자장지년이이수강회지유종이
 攻業治文文辭夙就凡於機警得失臧否邪正無不了然鑣非父師鈐督已不勞成就大人公
 공업치문문사봉취범어기경득실장부사정무부료연렴비부사검독이부로성취대인공
 性嚴有程度用一定之課而公以蹠弛不羈之姿折節就矯揉母夫人亦未嘗以辭色假之教
 성엄유정도용일정지과이공이탁이부기지자절절취교유모부인역미상이사색가지교
 必以孝敬之道而不接財貨不苟捷徑十一歲遭王考喪枉親側行儀如成人三十二丁母
 필이효경지도이부접재화부구첩경십일세조왕고상왕친측행의여성인삼십이정모
 夫人憂喪制一依家禮不懈三十九甲子中生員試以公蓄積不宜一小成而止耳將展步
 부인우상제일의가례부해삼십구갑자중생원시이공축적부의일소성이지이장전보
 亨衢而繼以三弟俱登蓮籍壬辰以大人公壽職追榮三世仲氏普陽仲子錫晦於
 형구이계이삼제구등련적임진이대인공수직추영삼세중씨보양중자양회어
 元陵癸巳增廣同楠登第于時也癯年老親無恙任堂連疊科慶榮耀無比公恒存持滿之
 원릉계이증광동남등제우시아름년로친무양임당련퇴과경영요무비공항존지만지
 戒在視怡徐承順養志惟務稼穡無滫隨艱難之憂又多能
 계재시이서승순양지유무가색무순수간난지우우다능

[3]

공은 명조(明廟) 병술년(丙戌年) 12 월 11 일 술시(戌時)에 풍산(豐山)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골상(骨相)은 범상치 않았으며,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시작함에 있어 재능이 남달랐다. 기량이 넓고 도량이 넉넉하여 부친께서도 늘 그를 특별히 아끼며 "우리 집의 천리마(千里駒)와 같다"라고 칭찬하곤 하였다.

어릴 적에 부친을 따라 철성(鐵城)의 임소(任所)로 가게 되었는데, 철성은 바닷가에 접한 고을이었다. 거기서 그는 일월(日月)과 연운(烟雲)이 삼켜지고 변화하는 장관을 목도하였으며, 거대한 곤경(鯤鯨)과 교룡(蛟龍)이 노도(怒濤) 속에서 용솟음치는 모습을 보며 견문을 넓히고 기상을 키웠다.

비록 사마천(司馬遷)이 전국을 유람하며 학문을 연마한 나이에 미치지지는 못하였으나, 그는 곧 강회(江淮) 지방을 유람하며 학문을 익히고 글을 다듬었다. 문장을

짓는 데 있어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기민하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려내었다. 세상의 이치와 정치적 흐름을 꿰뚫어 보는 능력도 타고났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부친께서도 엄격한 성품으로 교육에 있어 확고한 기준을 세웠으며, 일정한 학습 과정을 마련하여 아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공은 본래 자유롭고 굴레를 싫어하는 기질이 있어 억지로 구속하려 하면 오히려 반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모친 또한 강압적인 방식으로 교육하려 하지 않고, 오직 효(孝)와 공경(敬)의 도리를 가르치는 데 주력하였다. 그는 재물을 탐하거나 억지로 지름길을 찾는 일 없이, 바른길을 걸으며 학문을 쌓아갔다.

공은 열한 살 되던 해에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다름없는 예법을 지켜 행하였다. 서른두 살이 되던 해에는 모친상을 당하였으며, 삼년상을 《가례(家禮)》에 따라 철저히 실천하며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공은 서른아홉 살 되는 해(갑자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나, 학문이란 원래 차근차근 쌓아가야 하는 것이니 작은 성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 과거 시험을 연이어 치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로 세 동생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영광을 드높였다.

임진년(壬辰年)에 부친의 높은 덕행을 기리기 위해 관직을 추증받았고, 중형(仲兄) 또한 보양(普陽)의 사당에서 예를 올렸다. 계사년(癸巳年)에 증광시(增廣試)에 응시하였고, 이때 남쪽 지방에서도 급제한 인재들이 많았다. 그러나 공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건강하심을 다행으로 여기며, 출세의 길을 좇기보다 부모를 편안히 모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다. 그는 항상 농사에 힘쓰며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였고,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다재다능 하였다.

[4]

鄙事而有餘力之學絕去浮華必取精潔常戒子以屈井穿珠等語喻之期欲成就蚤年受學於
비사이유여력지학절거부화필취정결상계자이굴정천주등어유지기육성취조년수학어
處士李公成全李公卽孤山李公惟樟之高也以是知內外輕重之分學有所受而識見之高邁
처사리공성전리공즉고산리공유장지고야이시지내외경중지분학유소수이식견지고매
有自來矣間居尋數四子史傳百家之編與夫朱子書節要語類及性理鑑人集五總龜等書無
유자래의한거심수사자사전백가지편여부주자서절요어류급성리감인집오총구등서무

不手自精以備便覽枉鄉而先生長者如江左權公萬荊圃姜公樸見之而推許評薦焉遊頓而
부수자정이비편람왕향이선생장자여강좌권공만형포강공박견지이추허평즐언유반이
卿宰知舊如洪知事晟李萬頃孟休申石北光洙李相國福源李判書性源或稱爲之執鞭而不
경재지구어흥지사성리만경맹휴신석북광수리상국복원리판서성원혹칭위지집편이부
辭或一見許以國士李上舍東運詩以贈別屬意不淺至若六義之稿則咸日不可使湮沒於一
사혹일견허이국사리상사동운시이증별속의부천지약륙의지고칙함일부가사인몰어일
家私藏遍與攻文之士而不變一時科場之體賴公獎誘薰陶而隣里膚淺尋章摘句之士卒以
가사장편여공문지사이비변일시과장지체퇴공장유훈도이린리부천심장적구지사줄이
正始之音經史之學又如始電義洪範賦白棗篇尙友策諸篇不惟膾炙於本國或至傳播於北
정시지음경사지학우여시전의홍범부백조편상우책제편부유회자어본국혹지전과어북
京湖海之間何其偉哉既負抱比通敏之才博雅之文而但與世齟齬未能行其所學只一老庠
경호해지간하기위재기부포비통민지재박아지문이단여세저어미능행기소학지일로상
生處於林下不幸抱疾而坎壈焉嗚乎其命矣風彩魁梧雄辯得中天性孝友兼修德誼不言人
생처어림하부행포질이감람언명호기명의풍채괴오웅변득중천성효우검수덕의부언인
過失不論人長短愛物之仁急難之義廣濟之智靡不用極而禮以身篤信好學若使之出而需
과실부론인장단애물지인급난지의광제지지미부용극이레이신독신호학약사지출이수
世則其事業之盛固不可量尖學術足以矜式後生經綸足以致君澤民之章亦足以黼黻乎皇
세척기사업지성고부가량첨학술족이금식후생경륜족이치군택민지장역족이보불호황
猷而否則窮而在下獨善其身者欺始若有為而竟抗捏不售庸詎非司命拮据者之責乎在公
유이부척궁이재하독선기신자기시약유위이경항날부수용거비사명길거자지책호재공
不以是而重輕之也歿後時宰有云席帽斷送此人吾輩之罪也其儕友見錄中如金九思堂樂
부이시이중경지야물후시재유운석모단송차인오배지죄야기제우견록중여김구사당악
行柳三山正源李下枝象辰柳參奉聖曾李鏡潭守貞李陰城世述凡三十九賢俱以一時文人
행류삼산정원리하지상진류참봉성증리경담수정리음성세술범삼십구현구이일시문인
善士計同交遊則公之取友過從從可知矣在英陵丙申五月十二日考終于西洞里第親向耄
선사계동교유척공지취우과종종가지의재영릉병신오월십이일고종우서동리제친향모
期而在矣在側觀化而無怛化底意抑達觀者耶享年七十有一是年某月日權厝于醴泉知過
기이재의재측관화이무달화저의억달관자야형년칠십유일시년모월일권조우례천지와
洞宜人金氏墓下粵明年某月某甲改葬于同郡馬鳴洞巽向之
동의인김씨묘하월명년모월모갑개장우동군마명동손향지

공은 세속적인 학문을 멀리하고 오직 정밀하고 순수한 학문을 추구하였다. 그는 자식들에게 “우물을 깊이 파야 맑은 물이 나오고, 구슬을 껴야 빛을 발한다”는 비유를 들어 깊이 있는 학문을 쌓을 것을 강조하였다. 젊은 시절, 처사(處士) 이공(李公)에게서 학문을 배웠는데, 이공은 바로 고산(孤山) 이공(李公) 즉, 이유장(李惟樟) 선생이었다. 이에 따라 공은 학문에 있어 경중을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게 되었고, 높은 견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한가한 시간에도 늘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의 역사서를 비롯하여,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어류(語類)》, 《성리감인집(性理鑑人集)》, 《오총구(五總龜)》 등의 성리학 관련 서적을 정독하며 학문을 갈고닦았다.

공은 문장가로서도 명성이 높았다. 당시의 명망 높은 선비들이 그의 글을 보고 높이 평가하였다. 공은 문장가들 사이에서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과거 시험의 문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가 남긴 문집 중 《육의초(六義草)》는 한 집안에만 사장될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후학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문학의 발전을 도왔다.

그의 학문은 단순히 개인적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이 저술한 《홍범부(洪範賦)》, 《백조편(白棗篇)》, 《상우책(尙友策)》 등의 글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북경(北京)과 호남(湖南)·호북(湖北) 지역에도 전해져 칭송을 받았다. 이는 그의 학문과 문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시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채 한낱 향교(庠校)의 생원(庠生)으로서 은거하며 생을 마쳤다. 그는 곤궁한 처지에서도 학문을 탐구하며 덕을 닦았으나, 끝내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당시 조정의 관리들은 “그를 잃은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탄식하였다. 그의 문우(文友)들 또한 깊이 애도하였으며, 그와 교유했던 인물들로는 금구(錦九)의 사당에 있던 낙행(樂行), 유삼산(柳三山) 정원(正源), 이하지(李下枝) 상진(象辰), 유참봉(柳參奉) 성증(聖曾), 이경담(李鏡潭) 수정(守貞), 이음성(李陰城) 세술(世述) 등 총 39 명의 문인과 선비들이 있었다. 이는 공이 얼마나 많은 선비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은 영릉(英陵) 병신년(丙申年) 5월 12일에 서동리(西洞里)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모를 가까이에서 봉양하며 70세가 넘도록 장수하였으며, 임종 시에도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니, 이는 곧 생사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의 경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년 71 세였으며, 같은 해 모월 모일에 예천(醴泉) 지과동(知過洞)의 부인 김씨(金氏) 의 묘 아래 임시로 안장되었다. 이듬해 모월 모일에 같은 고을 마명동(馬鳴洞) 손향(巽向)의 언덕으로 이장되었다.

[5]

原配宜人豐山金氏生員達龍女先公卒育五男一女男錫範錫晦文科承旨錫忠錫商出后
원배의인풍산김씨생원달룡녀선공졸육오남일녀남석범양희문과승지양충양상출후

錫景早夭無育以伯氏第二子嗣女孫時龍側室子錫珍錫範五男三女男顯謨顯漳出系顯
석경조요무육이백씨제이자사녀손시룡측실자양진양범오남삼녀남현모현장출계현

汶出顯澧顯潯生員女申應堯李昌述金永習錫晦三男六女男顯洙早夭顯龜生員
문출현테현준생원녀신응요리창술김영습양희삼남륙녀남현수조요현구생원

顯潞女張泰儒朴宗臣李昌瑾洪最根安廷敏李敬秀錫忠二男二女男顯震生員顯喆女權
현로녀장태준박종신리창근홍최근안정민리경수석충이남이녀남현진생원현철녀권

休復權緯度錫商一男二女男顯休文科女李龜祐李鉉福錫景系子顯漬錫盼四男
휴복권위도양상일남이녀남현휴문과녀리구호리현복양경계자현분석분사남

顯潑顯豹顯潤顯福孫時龍男鎮岳曾玄以下多不盡錄公之後孫某某以公遺稿邀余丁乙而
현발현표현윤현복손시룡남진악증현이하다부진록공지후손모모이공유고요여정을이

叙次之繼以請狀行之文家世輝嚇尙矣無論學問事行之美俾余孤陋而欲闡幽發輝則固
서차지계이청장행지문가세천하상의무론학문사행지미비여고루이욕천유발휘칙고

非其人而慈孫勤托有難終辭就本稿畧臬括以備立言者採擇云
비기인이자손근탁유난종사취본고략효괄이비립언자채택운

眞城李中鉞謹撰
진성이중곤근찬

[5]

공의 본배(本配)는 풍산 김씨(豐山金氏)로 생원(生員) 달룡(達龍)의 따님이었으며,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5 남 1 녀가 있었다.

장남 석범(錫範)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승지(承旨)로 봉직하였고, 차남 석문(錫文), 삼남 석충(錫忠), 사남 석상(錫商)은 모두 출후(出后)하였으며, 오남 석경(錫景)은 요절하여 후손을 남기지 못하였다. 이에 백씨(伯氏)의 둘째 아들이 대를 이었다.

딸은 시룡(時龍)과 혼인하였으며, 측실(側室)에게서 태어난 자식으로 석진(錫珍)과 석범(錫範)이 있었다. 석범(錫範)에게서 5 남 3 녀가 태어났는데, 아들로는 현모(顯謨), 현장(顯漳), 현문(顯汶), 현례(顯禮), 현준(顯濬)이 있었고, 그중 현준은 생원(生員)이었다. 딸들은 신응요(申應堯), 이창술(李昌述), 김영습(金永習)에게 출가하였다.

석회(錫晦)에게서는 3 남 6 녀가 태어났으며, 장남 현수(顯洙)는 요절하였고, 차남 현생원(顯生員), 삼남 현로(顯潞)가 있었다. 딸들은 장태준(張泰僑), 박종신(朴宗臣), 이창근(李昌瑾), 홍최근(洪最根), 안정민(安廷敏), 이경수(李敬秀)에게 출가하였다.

석충(錫忠)에게서는 2 남 2 녀가 있었으며, 장남 현진(顯震)은 생원이었고, 차남 현철(顯喆)이 있었다. 딸들은 권휴복(權休復), 권위도(權緯度)에게 출가하였다.

석상(錫商)에게서는 1 남 2 녀가 있었으며, 아들은 현휴(顯休)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딸들은 이귀호(李龜祐), 이현복(李鉉福)에게 출가하였다.

석경(錫景)에게서는 아들 현분(顯濱)이 있었고, 석빈(錫汾)에게서는 4 남 현발(顯潑), 현표(顯豹), 현윤(顯潤), 현복(顯福)이 있었다.

특히 진악(鎭岳)의 대에 이르러 증손 이하의 후손들이 번창하였으나, 그 수가 많아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였다.

공의 후손 모모가 공의 유고를 모아 나에게 부탁하여 정리하게 하였으며, 이어 행장을 청하여 공의 생애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공의 가문은 예로부터 학문과 덕행이 빛나는 명문이었다.

나는 학문이 부족하여 깊은 뜻을 밝히고 빛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공의 자손이 정성스럽게 부탁하였으므로 거절하기 어려워 공의 유고를 기초로 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행장을 집필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 것이니,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진성(眞城) 이중곤(李中鎭)이 삼가 지음.



墓碣銘 并序
묘갈명 병서

漢陽之趙寔東方大姓西山一派又爲山南名閥文章行誼大小科聲尤盛於五陽之世鈍巖先
한양지조식동방대성유산일파우위산남명별문장행탄대소과성왕성어오양지세둔암선
生又白眉之良也先生諱葵陽字向卿遠祖諱之壽僉議中書事其後大顯麗朝至諱涓事我太
생又白眉之良也先生諱葵陽字向卿遠祖諱之壽僉議中書事其後大顯麗朝至諱涓事我太
宗官右相諡良敬曰憐同敦寧日云從郡守日琮縣監始移居嶺南於公八世諱鳴漢進士贈左
종관우상익량경왕런동돈녕일운종군수일중현감시이거령남어공팔세휘명한진사증좌
承台諱鳳徵文科都事贈禮參諱元益壽資正憲是爲公三世妣禮安李氏基晚女
승태휘봉징문과도사증례참휘원익수자정현시위공삼세비례안리씨기만녀

公以明陵丙戌十二月十一日生幼才調超逸氣岸傑驚昂昂然不羈先公教方甚嚴榘樾是
공이명릉병술십이월십일일생유재조초일기안걸경앙앙연부기선공교방심엄가월시
用貞夫人又不假色辭必使之循蹈規矩十歲遭王考喪侍親側哭食以禮既又受業
용정부인우부가색사필사지순복규구십세조왕고상시친측곡식이례기우수업
于李新塘公成全之門李公卽孤山先生高足也由是知內外輕重之別入而家金玉埴簾交相
우리신당공성전지문리공즉고산선생고족야유시지내외경중지별입이가김옥훈지교상
博約以成厥德丁巳遭內艱易戚備至甲子中生員繼以三弟聯占司馬英廟癸巳
박약이성결덕정이조내간역척비지갑자중생원계이삼제련점사마영묘계이
仲第普暢次子錫晦同登增廣大科時正憲公九臺康寧榮告日公與二弟着舊時欄幙率新
중자보창차자양회동등증광대과시정헌공구질강녕영고일공여이제착구시란복술신
恩舞於庭觀者莫不聳賀雅薄榮利躬勸耕稼多能鄙事志在廣濟不言人過失不踐微虫博覽
은무어정관자막부용하아박영리궁권경가다능비사지재광제부언인과실부천미훼박람
古今歷代治亂興亡人物賢否得失了了如指掌爲文如長川注海滔滔不窮
고금력대치란홍망인물현부득실료료여지장위문여장천와해도도부궁

李相福源李尙書性源見公六義稿不覺擊折曰此不可私於一方因遍示京洛舉子使丕變
리상복원리상서성원견공륙의고부각격절왈차부가사어일방인편시경략거자사비변
一時科鱉如始電義洪範賦白棗篇尙友策膾炙一世晚年手抄朱節語類又著性理鑑人集
일시과례여시전의홍범부백조편상우책회구일세만년수초주절어류우저성리감인집
五總龜等書以日夕觀者此又中晚用工之不同也江左權公萬杜陵李公濟兼鳴臯
오총구등서이일석관자차우중만용공지부동야강좌권공만두릉리공제겸명고

鄭公權皆許以後進之執耳並世名流京而洪知事晟洪尙書重孝姜尙書
정공권개허이후진지집이병세명류경이홍지사성홍상서중효강상서

世晃申石北光洙嶺而金九思堂樂行柳三山正源李下枝象辰李鐘潭守貞李錦翁植春或以
세황신석북광수령이김구사당악행류삼산정원리하지상진리종담수정리금옹식춘혹이
道義或以風節或以文章皆傾心願交嘉與切偲操履甚確人目之以銀山鐵壁常戒子孫曰掘
도의혹이풍절혹이문장개경심원교가여절시조리심확인목지이은산철벽상계자손왈굴

不及泉穿不貫線不免瘞井棄珠晚患風痺坐卜須人者三年一不作呻吟聲以親在也某年月
부급천천부관선부면승정기주만환풍비좌복수인자삼년일부작신음성이친재야모년월

日卒享年七十一初葬醴泉知過洞後改窆同郡馬鳴洞乾坐原嗚呼公豐姿瑰器廣度雄辯養
일졸향년칠십일초돌레천지과동후개편동군마명동건좌원오호공풍자괴기광도웅변양
親以孝接人以誠德孚於人而行無不得辦泮之日縉紳章甫一見無不嗟可以謂瑚璉於周廟
친이효접인이성덕부어인이행무부득판반지일진신장보일견무부차가이위호련어주묘

黼黻於盧裳而乃公之志則不以是爲得而別自有枉也李上舍東運嘗贈別曰解劍香橋上浮
黼黻於盧裳而乃公之志則不以是爲得而別自有枉也李上舍東運嘗贈別曰解劍香橋上浮
보불어로상이내공지지척부이시위득이별자유왕야리상사동운상증별왈해검향교상부
雲馬首多江漢日浩蕩行行奈爾何此可謂知心之言溯有感於一士之出處也一時宰聞公之
운마수다강한일호탕행행내이하차가위지심지언소유감어일사지출처야일시재문공지

吸歎曰若人也而終於此吾輩之罪也梧竹宜陽公之四弟也狀公行日識鑑如戴容州獎誘如
흡탄왈약인야이종어차오배지죄야오죽의양공지사제야상공행일식감여대용주장유여
蘇長公所居而化縱不如楊司業之薰陶因文而化亦不下鄭康成之書帶一洗尋章摘句之鄉
소장공소거이화종부여양사업지훈도인문이화역부하정강성지서대일세심장적구지향

變作經經緯史之坊其功詎云小哉後之欲求公者此焉足矣
변작경경위사지방기공거운소재후지욕구공자차언족의

配豐山金氏生五男錫範錫晦文科承旨錫忠錫商出后錫景早夭無育彥伯氏第二子嗣女孫
배풍산김씨생오남석범석회문과승지양충양상출후석경조요무육언백씨제이자사녀손

時龍側室子錫盼錫範五男三女男顯談顯漳出系顯改出顯遭顯潛生員女申應堯李昌述
시룡측실자양분양범오남삼녀남현담현장출계현개출현조현준생원녀신응요리창술

金永習錫晦三男六女男顯洙早夭顯肅生員顯潞女張泰儔朴宗臣李昌瑾洪最根安廷敏
김영습석회삼남륙녀남현수조요현내생원현로녀장태준박종신리창근홍최근안정민

李敬秀錫忠二男二女男顯震生員顯喆女權休復權緯度錫商一男二女男顯休文科女
리경수석충이남이녀남현진생원현철녀권휴복권위도석상일남이녀남현휴문과녀

李龜祐李鉉福錫景系子顯漳錫珍四男顯潑顯豹顯潤顯福餘不錄公後孫循循多雅節士
리구호학현부석경계자현위양진사남현발현표현윤현부여부록공후손순순다아절사

晚燐猥槌心交者有年日諸友固請公銘再三辭不獲乃敢依牀本撰大係以銘曰才高氣豪學
 만규외추심교자유년일제우고청공명제삼사부획내감의상본찬대계이명왈제고기호학
 博行修在邦必達居頓寡儔別有知己道義相求隻手以麾文瀾回倒樂我天倫歸與合早歲晏
 박행수재방필달거반과주별유지이도의상구척수이휘문란회도악아천륜귀여합조세안
 林廬工成玄煉痛未終孝壟八猶殍而窮序之炳然可攷我最其要用表墓道
 림려공성현련통미종효랑팔유요이궁서지병연가고아최기요용표묘도

真城李曉燐謹撰
 진성리효규근찬

표비명과 서문

한양 조씨(漢陽趙氏)는 동방의 큰 성씨이며, 유산(西山)의 한 갈래로, 또한 산남(山南)의 명문벌족이다. 문장과 행실로 이름이 높았고, 대과와 소과에 급제하여 오양(五陽)의 세상에서 더욱 성하였다. 둔암(鈍巖) 선생은 또한 백미(白眉)와 같은 뛰어난 분이다. 선생의 휘(諱)는 규양(葵陽)이고 자(字)는 향경(向卿)이며, 먼 조상은 휘(諱)가 지수(之壽)로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를 지냈다. 그 후 고려 시대에 크게 현달하여 휘(諱)가 연(涓)에 이르러 태조(太祖)를 섬겨 우상(右相)을 지냈고, 시호는 양경(良敬)이다. 연(憐)은 돈녕(敦寧)을 지냈고, 일운(日云)은 군수(郡守)를, 일종(日琮)은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이때부터 영남(嶺南)으로 이주하였다. 공의 8 세조는 휘(諱)가 명한(鳴漢)으로 진사(進士)를 지냈고, 증좌승지(贈左承旨)는 휘(諱)가 봉징(鳳徵)이며, 문과 도사(都事)는 휘(諱)가 원익(元益)이고, 수자헌(壽資憲)은 공의 3 세조이다. 어머니는 예안 이씨(禮安李氏) 기만(基晩)의 딸이다.

둔암 선생은 명종 12년(1557년) 12월 11일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기질이 강건하였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부친의 가르침은 매우 엄격하였고, 모친 또한 단호하여 교육에 있어 한 치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깊은 효성으로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이후 학문을 닦기 위해 고산(孤山) 이씨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이는 곧 성리학의 대가였던 이신당(李新塘) 선생을 통해 학문을 깊이 있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선생은 경서와 사서를 깊이 이해하였으며, 집안에서도 도덕과 예절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과거에 응시하여 생원시에 합격한 후, 문과에도 연이어 급제하였다. 이후 형제들과 함께 증광 문과에 급제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그 명성이 더욱 빛났다. 선생은 학문적 깊이가 남달랐으며,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역대 역사서를 두루 섭렵하여 정치적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문장은 마치 강물이 거침없이 흐르듯 시원하고 웅장하여, 당대의 학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직접 성리학 관련 서적을 필사하며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권의 학문서를 저술하였다.

선생은 관직에 나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명예와 부귀를 좇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벼슬길을 멀리하였다.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였고, 은거하며 학문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 항상 선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대하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데 힘썼다. 그는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학들에게 역사와 윤리를 가르쳤다. 또한,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학문적 토론을 활발히 하였으며, 문장과 논설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이상복 원과 이상서 성원이 공의 육의고를 보고 감탄하며 무릎을 쳤다. '이 글은 한 사람의 소유로만 들 수 없다'며 경도와 낙양의 과거 응시자들에게 널리 보여주어 일시적으로 과거 시험의 풍토를 크게 바꾸었다. 그가 지은 시는 마치 번개처럼 빛났고, 또한 《홍범부(洪範賦)》, 《백조편(白棗篇)》, 《상우책(尙友策)》 등의 글이 당대 문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리학 연구 에도 몰두하여 《성리감인집(性理鑑人集)》, 《오총구(五總龜)》 등의 저서를 남겼 으며, 그의 학문적 성취는 조선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여러 문인과 학자들은 선생을 깊이 존경하며 교류하기를 원했다. 조선의 명망 있는 학자였던 권만(權萬), 이기(李起), 정권(鄭權) 등이 선생을 학문의 모범으로 삼았으며, 그와 교류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조선 사회에서 명성이 높은 이들이 선생과 학문적 논의를 나누며 그의 덕행과 학문을 칭송 하였다. 선생의 성품은 강직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후손들에게는 "우물을 너무 깊이 파지 말고, 실을 바늘에 너무 깊이 꿰지 말라"고 가르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강조하였다.

말년에 이르러 풍병(중풍)을 앓았으나,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신음 소리를 내지 않으며 효성을 다하였다.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71 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처음에는 예천(醴泉) 지과동(知過洞)에 묻혔으나, 이후 같은 고장의 마명동(馬鳴洞)으로 이장되었다.

부인은 풍산 김씨(豐山金氏)이며, 아들 다섯을 낳았다. 석범(錫範), 석회(錫晦)는 문과 승지(文科承旨)를 지냈고, 석충(錫忠), 석상(錫商)은 양자로 갔으며, 석경(錫景)은 요절하여 후사가 없었다. 언백(彦伯)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았고, 딸은 손시룡(孫時龍)의 측실 자식에게 시집갔다. 석진(錫珍)은 석범의 아들 다섯과 딸 셋을 두었는데, 아들은 현담(顯談), 현장(顯漳)은 양자로 갔고, 현개(顯改)는 후사가 없으며, 현조(顯遭), 현준(顯濬)은 생원이었고, 딸은 신응요(申應堯), 이창술(李昌述), 김영습(金永習)에게 시집갔다. 석회는 아들 셋과 딸 여섯을 두었는데, 아들은 현수(顯洙)는 요절하였고, 현내(顯鼐)는 생원이었으며, 현로(顯潞)는 장태준(張泰僞), 박종신(朴宗臣), 이창근(李昌瑾), 홍최근(洪最根), 안정민(安廷敏), 이경수(李敬秀)에게 시집갔다. 석충은 아들 둘과 딸 둘을 두었는데, 아들은 현진(顯震)은 생원이었고, 딸은 권휴복(權休復), 권위도(權緯度)에게 시집갔다. 석상은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두었는데, 아들은 현휴(顯休)는 문과에 급제하였고, 딸은 이구호(李龜祐), 학현복(孝鉉福)에게 시집갔다. 석경의 양자는 현위(顯漳)이며, 석진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현발(顯潑), 현표(顯豹), 현윤(顯潤), 현복(顯福)이며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공의 후손들은 순박하고 아름다운 절개가 많았으며, 선비들은 늦게까지 빛났다. 나는 비루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공과 교유한 여러 친구들이 공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공은 여러 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침상에 기대어 대략적인 내용을 지어 묘비명으로 삼았다.

묘비명에는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내용이 담겼으며, 그가 이론 학문적 업적과 후손들에게 남긴 가르침이 찬양되었다. "재능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으며, 행동이 바른 사람은 나라에서 반드시 쓰이게 된다"는 문구를 남기며, 그의 학문과 덕행이 후대에도 길이 전해지기를 기원하였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당당한 기품, 넓은 학식과 견고한 행실을 겸비하여, 살아 생전에 반드시 온 나라에 그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하였으며, 동료 중에서는 그와 견줄 자가 거의 없었다. 오직 서로 도와 의리를 중시하는 진정한 지기들만이 그를 찾아내어 한 마음으로 따르곤 하였다. 또한, 단 한 손짓으로 문학의 거센 물결을 제압하고 흐름을 거꾸로 돌릴 줄 알 정도로 문사에 뛰어났다. 나는 그가 이제

하늘이 정해 주신 운명에 따라 가족의 본분으로 귀향하여, 온갖 인연과 도의를 다한 채 마지막을 맞이한 사실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겸허한 자택에서 부단히 자기 수양에 힘쓰며, 마치 금속을 정련하듯 인격을 단련하였고, 동시에 부모에 대한 효심과 그리움의 고통도 결코 끝나지 않았으나, 그러한 고뇌 속에서도 그의 인품은 빛을 잃지 않고 결국 본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인생을 차례대로 기록한 이 전후의 사항은, 그 빛나는 자취가 뚜렷이 드러나 있어 후대에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볼 만하며, 내가 볼 때 이 기록이야말로 그의 묘비를 기리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임을 분명히 한다.

진성(眞城) 이만규(李晩燐)가 삼가 지음



鈍巖記 둔암기

走馬之山溪水出焉曰幽溪溪雖處驛里塵喧之中水石頗奇麗上下有臺磯夾岸多幽花茂林
주마지산계수출언왈유계계수처역리진훤지중수석파기려상하유대기협안다유화무림

柳榆蓊蓊蒼藤古木樛虬相掩暎又有鶴汀鼻渚魚瀨之勝可盤旋漁游溪之中有盤石高大重
류유옹옹창등고목규규상엄영우유학정비저어뢰지승가반선어유계지중유반석고대중

甌可坐數十人爲溪水所磨盪奇劃遂坎竅其中半豁然成一小洞水乃澎湃懸流高且丈餘其
謳可坐數十人위계수소마탕기획수감규기중반하연성일소동수내팽배현류고차장여기

下演漾泓澄蘸凝寒碧水漲則飛瀑潑瀉如雪撞春喧脰聲如吼雷最為溪之奇絕處也表從兄
하연양홍징잠응한벽수창척비폭발쇄여설당용훤회성여후뢰최위계지기절차야표종형

進士漢陽趙公居于溪上距不百步而近甚愛之每風朝月夕往來徜徉於其上途命之曰鈍巖
진사한양조공거우계상거부백보이근심애지매풍조월석왕래상양어기상도명지왈둔암

因以自號焉乃問記於余余謂是石固頑滯一方不能變通而遷改則斯名也誠宜也若公非鈍
인이자호언내문기어여여위시석고완체일방부능변통이천개척사명야성의야약공비둔

滯者何以名鈍巖也公之言曰蓋凡物銳則易於毀折而虧損夫金之刀觶鍼戟着堅而折木之
체자하이명둔암야공지언왈개범물윤척역어훼절이휴손부감지도휴침극착견이절목지

杉松檜柏風撲而偃山之巔峻巍岌岌者崩壞邱原之纖頂突兀者頽圯且如物之高者危墮廉利
삼송회백풍박이언산지즉준외급자붕괴구원지섬정돌울자퇴이차여물지고자위타럼리

者虧尖斜礪确者或毀未若厚重頑堅者確實而完全也今夫人質性方峻才智敏銳者類多粗
 子후첨사교학자혹혜미약후중완전자확실이완전야금부인질성방준재지민예자류다조
 厲猛起無涵蓄寬大之意其為學務明快喜陵臘不能篤志循序積漸而進其行已處物惟剛方
 려맹기무함측관대지의기위학무명쾌희릉랍부능독지순서적점이진기행이처물유강방
 是歟脆而不安其出言作事躁妄而發露浚刻而輕爽甚者於傲佚而務逞強梁而好勝自稱善
 시여취이부안기출언작사조망이발로원각이경상심자어오일이무령강량이호승자칭선
 為權變而卒陷於譌枉非正或至有蹈禍而遭害者豈若質魯誠確者之卒有成立而無所疾患
 위권변이졸함어홀왕비정혹지유도화이조해자기약질로성확자지졸유성립이무소구환
 也哉余乃再拜而言曰嗟康公之氣質寬厚淳樸才識亦穎脫超絕言議英發而確實文辭俊逸
 야재여내재배이언왈차호공지기질관후순박재식역영탈초절언의영말이확실문사준일
 而宏博可謂兼之矣顧乃舍銳而取鈍其意蓋將體之以鈍而濟之以銳以矯其偏而就夫全也
 이굉박가위겸지의고내사에이취납기의개장체지이둔이체지이운이교기편이취부전야
 豈欲磨稜而斷方菱角而化雞頭怵迫退託依違浮沉於禍福利害之間務為鈍者之完全而巧
 기욕마릉이단방릉각이화계두출박퇴탁의위부침어화복리해지간무위둔자지완전이고
 免乎紆者之毀折而已乎在昔孔氏之門三千之徒益莫非聰明才智身通六藝與聞乎性與天
 면호홀자지혜절이이호재석공씨지문삼천지도익막비총명재지신통륙예여한호성여천
 道者而其卒傳聖人之道者惟一曾氏而止耳孔子嘗曰參也魯謂其質鈍也說者曰曾氏魯故
 도자이기졸전성인지도자유일증씨이지이공자상일참야로위기질포야설자왈증씨로고
 於聖人之道心悅而誠服學之篤守之固力行不已則確乎不移乃能終其所有成其傳諸子思
 어성인지도심열이성복학지독수지고력행부이척확호부이내능종기소유성기전제자사
 孟子者即其道也後人則不然鈍者固陋銳者陵臘固陋則滯泥而不通陵躡則錢進而不久朱
 맹자자즉기도야후인척부연둔자고루예자릉랍고루척체니이부통릉린척전진이부구주
 子言吾未見敏銳而重厚者蓋謂此也若公之所謂鈍者其意必有在也其將惡銳而好鈍乎將
 자언오미견민예이중후자개위차야약공지소위유자기의필유재야기장악예이호둔호장
 自居乎純銳之間乎抑有慕於曾氏之風者也老子曰挫其銳去其崖又曰大方無隅大直若個
 자거호순예지간호억유모어증씨지풍자야로자왈좌기에거기애우왈대방무우대직약굴
 是乃黜聰明去修為之說也公之意其不出於此歟公笑而唯唯是寫之訛年月日表從弟
 시내출총명거수위지설야공지의기부출어차여공소이유유시사지와년월일표종제

真城李世靖
 진성리세정

둔암기(鈍巖記)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흐르는 산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를 ‘유계(幽溪)’라 부른다. 이 계곡은 비록 역참(驛站) 근처의 먼지와 소란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물과 바위가 유난히 빼어나고 아름답다. 계곡의 위아래로는 넓은 바위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양쪽 기슭에는 숲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다. 버드나무와 느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청록색의 덩굴과 고목이 뒤엉켜 서로를 감싸며 빛을 가린다. 또한 이곳에는 학이 노니는 모래톱과 코처럼 돌출된 작은 섬, 그리고 물고기들이 뛰노는 여울이 있어 머물며 노닐기에 좋은 경승지다.

계곡의 중심부에는 높고 웅장한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데, 층층이 쌓인 돌들이 증기 솟처럼 겹겹이 포개져 있어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이 바위는 오랜 세월 계곡의 물살에 의해 닳고 다듬어져, 그 표면이 기묘한 무늬를 이루었으며, 곳곳에 움푹 팬 구멍이 생겨 작은 동굴을 이루고 있다. 계곡물은 그 위로 넘실거리며 흘러내리는데, 낙차가 한 장(丈) 이상 높아 물이 거세게 떨어진다. 아래로 내려가면 물은 잔잔하고 깊어지며, 맑은 연못처럼 차갑고 푸르다. 장마철이 되어 물이 불어나면 폭포수가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바위를 강하게 때리면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데, 이곳이야말로 계곡에서 가장 신비롭고 절경을 이루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종형(從兄)으로 진사인 한양 조공(漢陽 趙公)께서 이 계곡 위쪽에 살고 계신데, 불과 백 보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이다. 선생께서는 이곳을 매우 사랑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거닐며 즐기셨다. 그러던 중 이 바위를 ‘둔암(鈍巖)’이라 이름 짓고 자신의 호로 삼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곳을 기록으로 남겨 줄 것을 청하셨다.

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바위는 확고하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변하거나 옮겨가지 않으니, ‘둔암’이라는 이름이 실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공께서는 결코 어리석고 막힌 분이 아닌데, 어찌하여 스스로 ‘둔(鈍)’하다고 칭하신 것일까? 이에 대해 조공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모든 사물 중 예리한 것은 쉽게 부러지고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금속으로 된 칼이나 송곳, 바늘과 창은 단단한 것에 부딪히면 쉽게 부러지고, 나무 중에서도 삼나무나 소나무, 노송나무와 잣나무 같은 것들은 강한 바람을 맞으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또한 산이 가파르고 우뚝 솟아 있으면 쉽게 무너지고, 언덕이나 들판에 있는 가느다란 봉우리는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결국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높은 것은 위험하고, 날카로운 것은 쉽게 닳아 없어지며, 뽕족하고 기울어진 것은

파괴되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텁고 단단하며 우직한 것들은 오히려 확고하고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질이 강하고 재주가 날카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성급하고 거칠며, 지나치게 빠르게 행동하여 참을성과 너그러움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을 할 때도 깊이 연구하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단번에 명석함을 추구하며 남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들은 매사에 강직하기만 하여 유연하지 못하고, 성급하여 조급하게 행동하며, 말과 행동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심한 경우 교만하여 방자하게 행동하며, 타인을 업신여기고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화를 입어 파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리숙하고 우직해 보이는 사람들, 즉 성품이 너그럽고 신중하며 견고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걸으며, 자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공손히 두 번 절한 후, 감탄하며 말하였다. "아! 과연 그렇습니다."

공(公)의 기질은 너그럽고 순박하며, 재능과 식견 또한 예리하고 출중하였다. 그의 논변은 명쾌하면서도 확고하였으며, 문장은 뛰어나고 방대하여 학문과 문예를 겸비한 인물이라 할 만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이러한 뛰어남을 버리고 ‘둔(鈍)’을 택하였다. 그 뜻은 아마도 스스로를 ‘둔(鈍)’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고, 균형을 이루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어 둥글게 만들거나, 세상의 부침 속에서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요령껏 처신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둔(鈍)’함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고, 영리함을 통해 쉽게 부러지는 것을 피하려 한 것이었다.

예로부터 공자(孔子)의 문하에는 삼천 명의 제자가 있었으며, 이들 모두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나 육예(六藝)를 익혔다. 그러나 그중에서 오직 증자(曾子) 한 사람만이 성인의 도(道)를 온전히 계승하였다. 공자는 증자에 대해 “참(參)은 우직하도다.” 라고 하였으며, 학자들은 이를 두고 “증자가 우직한 것은 성인의 도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성실하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며, 실천함에 있어 굳건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침내 도를 완성하여 자사(子思)와 맹자(孟子)로 이어지는 학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둔한 자는 고루하여 막히고, 예리한 자는 앞서 나가지만 오래가지 못하였다. 주자(朱子)께서도 “나는 아직 재주가 예리하면서도 두터운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러한 이치를 가리킨 말이다. 그렇다면 공이 말하는 ‘둔(鈍)’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날카로움을 배척하고 우직함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날카로움과 우직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것인가? 혹은 증자의 풍모를 본받고자 하는 것인가?

노자(老子)께서는 “예리함을 꺾고, 모난 것을 없애라.” 라고 하였으며, 또한 “큰 방(方)은 모서리가 없고, 큰 곧음(直)은 마치 굽은 듯하다.” 라고 하였다. 이는 지나친 영리함을 버리고, 인위적인 꾸밈을 제거하라는 가르침이다. 공의 뜻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께서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조용히 수긍하셨다. 이에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종제(從弟) 진성(眞城) 이세정(李世靖) 기록하다.



又 우

巖在所居室之西南百餘武高丈餘其上平鋪兩邊可各坐數十人其中空洞而決其東水之自
 암재소거실지서남백여무고장여기상평포량변가각좌수십인기중공동이결기동수지자
 走馬來者皆歸之注其虛而為瀑焉俗所謂無愁巖家兄上舍公愛之是巖自少及長遊息於斯
 주마래자개귀지주기허이위폭언속소위무수암가형상사공애지시암자소급장유식어사
 一日忽卽之而心解因名巖曰鈍而立號焉夫石之性頑巖之得號以鈍固也鈍之於人非美號
 일일홀즉지이심해인명암일둔이립호언부석지성완암지득호이둔고야둔지어인비미호
 公之樂取而爲號何哉噫巖之塊處荒溪閱宇宙窮積劫而不磷不泐者以其質性鈍耳公幼穎
 공지악취이위호하재희암지괴처황계열우주궁적겁이부린부룩자이기질성돈이공유영
 悟四歲知文字八歲能屬文今年四十有餘以文藝鳴於京國夫敏與銘公之所自有而牢固堅
 오사세지문자팔세능속문금년사십유여이문예명어경국부민여명공지소자유이퇴고견
 貞確乎其不可技者是平日所慕用而自視有不足者是以因巖而立號益將顧名思義以巖之
 貞確호기부가기자시평일소모용이자시유부족자시이인암이립호익장고명사의이암지
 德而守己之操也且夫是巖之可取者非一也虛其中有容物之量分而二有辨介之義平其上
 덕이수이지조야차부시암지가취자비일야허기중유용물지량분이이유변개지의평기상

有載物之德居下而高有不屈之象夫集是巖之衆美而可保其久遠者其鈍乎苟非其鈍高者
유재물지덕거하이고유부굴지상부집시암지중미이가보기구원자기둔호구비기둔고자

不可以長高平者不可以常平分或有時乎合而虛亦有時而塞矣鈍乎鈍乎此吾兄之所以樂
부가이장고평자부가이상평분혹유시호합이허역유시이새의둔호둔호차오형지소이악

取而為號也然頑者石石之鈍無時而可開也人之純終不止於圓而至於高明之域則在吾自
취이위호야연완자석석지둔무시이가개야인지순종부지어원이지어고명지역칙재오자

勉之如何耳

면지여하이

舍弟普陽

사제보양

이어쓰는 글

이 바위는 내가 거처하는 집에서 서남쪽으로 백여 보 떨어진 곳에 있으며, 높이는 한 길 남짓하다. 그 위는 평평하게 펼쳐져 있어 양쪽에 각각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으며, 가운데는 텅 비어 뚫려 있다. 동쪽으로는 ‘주마(走馬)’에서 흘러온 물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그 빈 공간을 따라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세간에서는 이를 ‘무수암(無愁巖)’이라 부른다.

우리 형님이신 상사공(上舍公)께서는 이 바위를 무척 사랑하셨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늘 이곳에서 노닐며 휴식을 취하셨고, 어느 날 문득 올라앉으셨을 때 마음속 번뇌가 씻기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셨다. 그래서 이 바위를

‘둔암(鈍巖)’이라 부르고, 그에 따라 자신의 호도 ‘둔암(鈍巖)’이라 정하셨다.

돌은 본래 단단하고 거칠며, 바위가 ‘둔(鈍)’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그 본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둔(鈍)’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명칭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께서 이 이름을 즐겨 취하셨으니, 그 뜻이 무엇인가?

아, 이 바위는 인적이 드문 황량한 곳에 홀로 자리하고, 오랜 세월 거친 바람과 비를 맞으며 우주 속에 묻혀 있었으나 깎이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 본성이 두텁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형님께서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네 살에 글자를 깨우치고, 여덟 살에 글을 지을 줄 아셨다. 이제 마흔이 넘으신 지금, 학문과 문장으로 도성에서 이름을 떨치고 계신다.

하지만 형님께서 ‘둔(鈍)’이라는 이름을 취하신 것은, 자신이 본래 지닌 예리한 재능과 날카로운 지혜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다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능을 뽑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되새기며 바위의 덕성을 본받아 스스로의 도리를 굳게 지키려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다.

더구나 이 바위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속이 비어 있어 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포용력이 있고, 둘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분명한 경계를 지니고 있어 판단이 분명하다. 그 위가 평탄하여 만물을 품을 수 있는 덕이 있으며, 낮은 곳에 자리하면서도 굽히지 않는 기상이 있다.

이 바위가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둔(鈍)’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약 둔하지 않다면, 높은 것은 오래 높을 수 없고, 평탄한 것도 오래 평탄할 수 없다. 나뉘어 있는 것은 언젠가 합쳐질 수도 있으며, 비어 있는 것은 언젠가 막힐 수도 있다. 그러나 ‘둔(鈍)’한 것만은 그 단단함으로 인해 변함없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아, ‘둔(鈍)’이여! 이것이 바로 우리 형님께서 기꺼이 이 이름을 취하신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완고하기만 한 돌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열릴 수 없는 법이다. 사람 또한 순수한 본성에서 출발하여 결국 높은 깨달음과 밝은 지혜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 힘써 나아가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우, 보양(普陽)



鈍巖亭記 둔암정기

古之賢人君子懷材抱德得其時任經濟之責不幸而有命焉窮而在下往往就藝澤因物取化
고지현인군자회재포덕득기시임경제지책부행이유명언궁이재하왕왕취예택인물취화
以寓其志焉乃若處士純巖趙先生即其人也先生生於世德之家承請禮之訓文學詞章卓然
이우기지언내약처사순암조선생즉기인야선생생어세덕지가승청례지훈문학사장탁연
早成而性犖落不羈以家訓之嚴成就德器而廓乎不拔之氣素所畜積也蓋當時諸公風趨影
조성이성락락부기이가훈지엄성취덕기이곽호부발지기소소축적야개당시제공풍추영
從聲感氣求翺翔藝苑以嗅國家之盛以公之才之學若少俯仰焉則登高科跡顯仕如掇之也
종성감기구고상에원이후국가지성이공지재지학약소부앙언칙등고과적현사여철지야

偃蹇自守以一上舍終焉公既與世不遇退而隱於幽溪之上讀書求志以朱夫子書卻要性理
언건자수이일상사종언공기여세부우퇴이은어유계지상독서구지이주부자서각요성리

大全爲晚年究竟地有一巖隆然伏於所居之溪邊遂取而爲號曰鈍巖而其第八友軒普陽序
대전위만년구경지유일암릉언복어소거지계변수취이위호일둔암이기체팔우현보양서

之其畧曰因巖而立號蓋將顧名思義以巖之德守己之操虛其中有容物之量分而二有辨介
지기략일인암이립호개장고명사의이암지덕수이지조허기중유용물지량분이이유변개

之義平其上有載物之德居下而高有不屈之象苟非其鈍高者不可以長平者不可以常分有
지의평기상유재물지덕거하이고유부굴지상구비기둔고자부가이장평자부가이상분유

時乎合虛有時乎塞尖鈍乎鈍乎此吾兄所以樂取而爲號乎噫鈍之義盡之矣遺亭歲人爲水
시호합허유시호새침둔호둔호차오형소이악취이위호호희둔지의진지의유정세인위수

所涵乃謀移建於山東子孫環而居遺芬剩馥無間彼此而朝暮羹牆之慕愈益專劫又能幾廢
소로내모이건어산동자손환이거유분잉복무간피차이조모갱장지모유익전겁우능기폐

而重新可謂善繼述而肯堂構矣其間孫泰舜鎮河跋涉數百里來訪石室請余爲之記不佞識
이중신가위선계술이궁당구의기문손태순진하발섭수백리래방석실청여위지기부녕식

膚語綿何敢當是寄責以世分之重有不得以終辭者其堂室之制溪山之景諸公之序若文已
부어면하감당시기책이세분지중유부득이종사자기당실지체계산지경제공지서약문이

備矣罔何必畫蛇添足獨念當健陵之世先生以巖巖之像不屈之志而苟合則其義可知特以
비의령하필화사첨족독념당건릉지세선생이암암지상부굴지지이구합칙기의가지특이

其所感於心者爲之記

기소감어심자위지기

安陵後人李壽岳謹撰

안릉후인리수악근찬

둔암정 기록

옛날의 현명한 선비들은 재능과 덕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도 했으나, 불행하게도 운명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곤궁한 처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면 그들은 학문과 예술을 닦으며 자연 속에서
감화를 얻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곤 하였다.

조 선생(趙先生) 또한 그러한 인물이다. 선생은 대대로 덕을 쌓아온 가문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예법을 배우며 자랐다. 어려서부터 문학과 글재주에 뛰어나 이미
확고한 성취를 이루었으며, 성품은 호탕하고 자유로웠다. 그러나 엄격한
가정교육을 통해 도덕적 인격을 갖추었고, 확고부동한 기상을 지니게 되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좇으며 국가의 번영에 기대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하였다. 만약 선생께서 조금이라도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행동하셨다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고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스스로를 지키며 세속에 휩쓸리지 않으셨고, 평생을 상사(上舍)로서 마무리하셨다. 결국 세상과 인연을 맺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깊은 계곡에서 독서하며 뜻을 구하셨다. 특히 주자(朱子)의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읽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하셨다.

선생의 거처 가까이에는 우뚝 솟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에 감흥을 얻어 ‘둔암(鈍巖)’이라 이름 붙이고 자신의 호로 삼으셨다. 선생의 아우이신 보양(普陽)께서 이를 기록하며 말하기를,

"형님께서 이 바위에서 호를 취하신 것은, 그 이름이 가진 뜻을 깊이 새기고 바위의 덕을 본받아 스스로의 도리를 지키려 하심이라. 이 바위는 속이 비어 있어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으며, 둘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분명한 경계를 이루고 있어 판단이 명확하다. 또한 평탄한 표면은 만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덕을 지니고 있으며, 낮은 곳에 자리하면서도 굽히지 않는 기상이 있다. 높은 것이 오래 높을 수 없고, 평탄한 것이 오래 평탄할 수 없으며, 나뉜 것은 언젠가 합쳐질 수도 있고, 비어 있는 것은 언젠가 막힐 수도 있다. 그러나 ‘둔(鈍)’ 한 것만은 단단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아, 둔(鈍)이여! 이것이 형님께서 기꺼이 이 이름을 취하신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둔(鈍)’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드러났으니, 그 뜻이 깊지 않은가?

둔암정(鈍巖亭)은 오랜 세월을 지나며 물에 의해 침식되어 훼손되었고, 마침내 동쪽 산으로 옮겨 다시 세우기로 하였다. 선생의 후손들이 이곳에 모여 살면서 그분의 남긴 자취와 향기를 이어받았고, 조상에 대한 공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자가 낡아 무너지려 했으나, 후손들이 다시 세웠으니 이는 선조의 뜻을 잘 계승하고 가문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 손자인 태순(泰舜)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강과 산을 건너와 이 정자의 재건을 기념할 글을 부탁하셨다. 나는 학식이 얕아 감히 이를 맡을 수 없지만, 후손들에게 있어 이 글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기에 끝내 거절할 수 없었다.

정자의 구조와 계곡의 아름다움, 여러 선비들이 기록한 서문 등은 이미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굳이 더 보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건릉제(健陵)의

시대에 선생께서 바위처럼 굳건한 기개를 지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마음에 느낀 바를 기록할 뿐이다.

안릉(安陵) 후인(後人) 이수악(李壽岳) 삼가 짓다

祭文 제문

舍弟普陽
사제보양

粵枉丙申王考啓手今公之歿是歲而又何罪于天何厄于年心之憂矣氣盈膺填念為兄弟今
월왕병신왕고계수금공지몰시세이우하죄우천하액우년심지우의기영응전념위형제금
歲七旬孩提及老友恭愈敦出日劬書聯床同茵學于家庭口受章句恐不及時焚膏繼晷談經
세칠순해제금로우공유돈출일구서런상동인학우가정구수장구공부급시분고계귀담경
及史靡不用誠相期立揚少振家聲第愚而魯兄敏而警三餘得富五總龜炳文章早成聲譽四
급사미부용성상기립양소진가성제우이로형민이경삼여득부오총구병문장조성성예사
馳荆園戰藝所向披靡陣馬風檣雷奔電激洛中諸子若崩厥角我亦迫後躡塵接武庶幾光顯
치형위전에소향피미진마풍장뢰분전격락중제자약붕궐각아역추후섭진접무서기광현
榮我父母不幸丁巳慈氏遽終未報劬勞逢此鞠凶甲子之歲兄乃小成後式丁卯弟亦如兄嚴
영아부모부행정사자저거종미보구로봉차국홍갑자지세형내소성후식정묘제역여형엄
候康寧兄弟無故賓客競賀絲管交奏盈堂湓宇子弟獻舞慶悲不具濟然暗疾黃虬守歲來弟
후강녕형제무고빈객경하사관교주영당분우자제헌무경비부구산연암구황규수세래제
云公亾割之痛如刃中傷丙子辛卯義獻登庠一室四蓮並帶聯芳國俗重科皆謂曰慶只坐於
운공망할지통여인중상병자신묘의헌등상일실사련병대련방국속중과개위왈경지좌어
貧家不成樣各窘衣食誰日不病莊貸監河顏帖乞米知我罪我罔不是羿天猶不棄眷顧吾家
빈가부성양각군의식수일부병장대감하안첩걸미지아죄아망부시에천유부기권고오가
癸巳季春冒泰科第叔姪簪華姪則公子顧我愚陋何以得此父兄所教祖先遺德徘徊顧影恩
계이계춘모태과제숙질잠화질칙공자고아우루하이득차부형소교조선유덕배회고영은
榮忽極綠袍象笏並馬還庭未及于家先拜于兄兄時避痘寓接于榮揮扇呼新匪潛而情兄曰
영총극록포상홀병마환정미급우가선배우형형시피두우접우영휘선호신비잠이정형왈
季兮是誰之功弟曰兄兮匪我而公我家策工實自公始不獲于身遐福于嗣晦又蜚英得參召
계혜시수지공제왈형혜비아이공아가책공실자공시부획우신하복우사회우비영득참소

試金閨簪筆歷其榮矣末俗猜壤百般紙戲弟亦連蹇步步嶮巇見忤厚戒辭職歸鄉得奉甘旨
 시김규잠필마기영의말속시괴백반지희제역런건보보험희견작후계사직귀향득봉감지
 我心則強餘暇讀書庶幾文章貧窮憂憾擾亂心傷至今四歲茅塞猶舊聰明日減氣質衰朽世
 아심척강여가독서서기문장빈궁우감요란심상지금사세모새유구총명일감기질쇠후세
 眼多白寸心空丹一麾限過百口飢寒乃於此時公又長逝高屋去棟玉山摧桂一病數歲藥胡
 안다백촌심공단일휘한과백구기한내어차시공우장서고옥거동옥산쇠계일병수세약호
 無良口號嗚咽視天菰苾念公平昔大是偉人軀幹魁梧性味真淳嘻嘻之政溫溫之仁公卿間
 무량구호오인시천승필념공평석대시위인구간괴오성미진순희희지정온온지인공경간
 名出入薦章齊擬歸空薤薤可望田園晚計準擬明農擊壤堯天期食厥功伸面長嘯天多地少
 명출입천장제의귀공리주가망전원만계준의명농격양요천기식필공신면장소천다지소
 心豪意廣不嫌傍笑萬事任情肯修邊幅下土營營鴻鵠燕雀惟德有符百福斯從壽既過稀兒
 심호의광부협방소만사임정궁수변폭하사영영홍곡연작유덕유부백복사종수기과희아
 亦登龍吉事稍足至痛填管仰念親年九十少一病不定省悲恨常拊冥冥九原想不瞋目三弟
 역등룡길사초족지통전관앙념친년구십소일병부정성비한상륙명명구원상부할목삼제
 猶存敢使公岐憶在少壯起處與同及其分析地不數弓一日不見如隔三秋今茲之別千歲悠
 猶存敢使公岐憶在少壯起處與同及其分析地不數弓一日不見如隔三秋今茲之別千歲悠
 悠號之不顧問之不應諄諄德音何日丙承嶷嶷神觀何日重憑沙水在前馬山在北延津劍合
 유후지부고문지부응순순덕음하일병승의의신관하일중빙사수재전마산재북연진검합
 若堂斯築願公安此子孫千億
 약당사축원공안차자손천억

제문(祭文)

아우 보양(普陽)이 바치는 제문

회상하건대 병신년(丙申年)에 아버지께서 손수 쓴 글을 받았는데, 지금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해 또한 병신년이니, 어찌 하늘의 뜻에 죄가 있었으며 해운에 무슨
 액운이 있었겠습니까. 가슴속엔 슬픔이 가득하고, 마음은 누를 길 없는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형제된 정을 생각하면, 올해로 일흔이 되는 해에 유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고동락했던 벗이자 형님이 떠난 것입니다. 해마다 함께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며 함께 자랐고, 가정에서 형님께 배운 글과 말, 장구한 뜻을 담은 문장을 나누며, 하루라도 게을리함 없이 서로 다짐하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가문을 일으켜 이름을 떨치자고 약속했던 기억이 어제일 같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우둔하였지만, 형님은 민첩하고 총명하셨기에, 항상 앞서 나아가셨고, ‘세 겹으로 책을 읽고, 다섯 가지 재주로 등용되리라’는 뜻을 지니셨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문장으로 명성을 얻으셨고, 형님의 이름은 사방에 퍼졌습니다. 과거 응시에 나아가 능히 병법과 문장에 뛰어나 어느 시험장이든 형님 앞에서는 감히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나도 뒤를 따라 형님의 발자취를 좇으며 우리 부모님께 명예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사년(丁巳年)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아직 그 은혜를 다 갚기도 전에 초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갑자년(甲子年)에 형님은 과거에 급제하셨고, 그 이듬해인 정묘년(丁卯年)엔 나 역시 그 뒤를 따르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형제는 모두 무탈하였으며, 친척과 손님들은 다투어 축하해주었습니다. 관현악 소리가 집안에 울리고, 친지의 자녀들이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경사 속에서 나는 슬픔을 품고 마음속에 깊은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자년(丙子年)과 신묘년(辛卯年)에 우리 삼형제가 모두 향시에 급제하니, 네 형제가 연이어 명성을 날리며 ‘연꽃 네 송이와 계수나무 한 그루’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집안이라 모양새가 변변치 않았고, 의식주조차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병든 몸으로 꾸역꾸역 살아갔고, 창고는 텅 비어 빌린 곡식으로 연명하며, 시장에 나가 밥값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집을 도우셨기에, 계사년(癸巳年) 늦봄에 나는 겨우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숙부와 조카가 함께 과거에 오르니, 이는 형님 댁 아들 공자 또한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나처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아버지와 형님의 가르침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나는 초라한 모습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다짐했고,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형님을 봉양하며 뜻을 다하려 하였습니다. 틈나는 대로 글을 읽고 문장을 다듬으며, 가난하고 불우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네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집안은 여전히 풀밭과 다름없고, 총명함은 날로 흐려지며, 기질도 점점 쇠퇴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아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내 진심을 몰랐습니다. 관직 하나 얻기도 어려운 세상에, 온 식구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높은 집이 기둥을 잃고, 큰 나무가 쓰러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형님은 몇 해를 앓으시며 약도 효과를 보지 못하셨고, 가슴으로 한숨을 토하듯 천천히 생명을 놓으셨습니다. 나는 공께서 살아생전 높이 평가받던 큰 인물이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시고, 성정은 너그러우며, 상냥하면서도 인자하셨습니다.

벼슬자리에 계실 때는 공경과 장상 사이에서 문장이 오르내렸고, 조정에서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귀향 후에는 밭을 일구며, 옛 농부처럼 우아하게 살아가실 준비를 하였고, 요임금 시절처럼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일한 만큼 먹는 기쁨을 누리려 하셨습니다.

하늘이 좁고 땅이 협소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큰 뜻을 품으셨고, 남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만사를 마음 가는 대로 하셨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않으셨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분주함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공의 덕을 따르는 이가 많았고, 자손들도 출세하였습니다.

슬픔이 가슴에 가득 차올라 어머니를 생각하니, 아흔 살에 병환으로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슬픔과 원한이 뼈에 사무칩니다. 어두운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세 명의 아우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며, 감히 공을 외롭게 하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젊은 시절 함께 시작했던 모든 일들, 멀지 않은 곳에서 함께 나아갔던 나날들을 떠올리면, 하루 보지 못하는 것도 삼년 같았는데, 이번 이별은 천년이 흘러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부르나 대답이 없고, 묻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공의 덕스러운 말씀을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지요. 기품 있는 그 모습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요. 앞에는 모래와 물이 흐르고, 북쪽에는 마산이 있습니다. 연진의 검처럼 두 기운이 합쳐진 이곳에 사당을 세우고, 공의 위패를 모시니, 부디 이곳에서 자손 대대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跋 跋

國家英考正考之際風氣漓而聲病之學亦隨以畔於古矣其氣委靡其音嚆殺以眩有司之目
 國가영고정고지제풍기리이성병지학역수이반어고의기기위미기음초살이현유사지목
 而賭其得失而已乎則豈非務實之君子所以寒心者哉國子上舍鈍巖先生趙公行義著於家
 이도기득실이이호척기비무실지군자소이한심자재국자상사둔암선생조공행의저어가
 經術鳴於時抱華國之具而詭遇獲禽非所屑也僅做一庠生而止清議惜之公嘗從新塘李公
 경술명어시포화국지구이쾌우획금비소설야근주일향생이지청의석지공상종신당리공
 遊私淑孤山先生之學而已知內外輕重之別美與八友梧竹二次公聯床講劇有日月征邁之
 유사숙고산선생지학이이지내외경증지별미여팔우오죽이차공련상강마유일월정매지
 樂又與吾先子渴睡府君交最密人提以當世之雷陳則其爲裨益剖肯綮也探蘊奧也所以積
 악우여오선자갈수부군교최밀인제이당세지되진척기위비익부공계야탐온오야소이적
 諸中而措之辭者豪健典雅藹乎仁義之言也敘述之富纂輯之廣未始不汗牛充棟而如朱子
 제중이조지사자호건전아애호인의지언야서술지부찬집지광미시부한우충동이여주자
 書要抄語類抄性理鑑人集五總龜等書十分精細十分密切一理會而悉究其本末可以見善
 서요초어류초성리감인집오총구등서십분정세십분밀절일리회이실구기본말가이견선
 學之實也如始電義洪範賦白棗篇尙友策諸篇賦則燕京人爭相傳誦餘皆膾炙域中可以見
 학지실야여시전의홍범부백조편상우책제편부칙연경인쟁상전송여개회자역중가이견
 爲文之工也梧竹公所嘗手定全書未暇公諸世而間經家故瀾翻或爲人借覽而見喪或藏弃
 위문지공야오죽공소상수정전서미가공제세이간경가고란번혹위인차람이견상혹장기
 不謹而見逸無以徵其一半分影響矣豈但子孫之憾抑吾黨之所共客鬱者也後孫諸公演服
 부근이견일무이징기일반분영향의기단자손지감억오당지소공객울자야후손제공연복
 遺唾之無傳遍閱故篋蒐輯梧竹公所偶未及收者僅若干篇吁其零星哉已屬李雲圃中麟金
 유타지무전편열고협수집오죽공소우미급수자근약간편우기령성재이속리운포중린김
 古巖世洛二公爲之梳爬而姑且遷延之者欲隨得隨補待成完本也及世故波盪又懼其無傳
 고암세락이공위지소과이고차천연지자옥수득수보대성완본야급세고과탕우구기무전
 則七世孫承禧將付手民氏謬使余整其訛舛脫漏既又請書其由于卷尾雖非其人追念二祖
 칙칠세손승희장부수민씨류사여정기와천탈루기우청서기유우권미수비기인추념이조
 當日之義安敢辭諸不揆僭易謹書下方如右已丑秀夔節契家
 당일지의안감사제부규참역근서하방여우이축수요절계가

後生宣城金晦鎮 謹識
 후생선성김회진 근식

발문(跋)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고(英考)와 정고(正考)의 시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대의 학풍이 점점 퇴락하고, 공허한 명성만을 좇는 학문(聲病之學) 또한 이에 따라 고전(古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학문의 기운은 쇠퇴하고, 내용은 피폐하여, 단지 관리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시험의 득실을 다투는 도구로 전락했으니, 어찌 실질을 추구하는 군자들이 이를 개탄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자감(國子監)의 상사생(上舍生)이었던 둔암선생 조공(鈍巖先生趙公)께서는 가정에서부터 도덕적 행실을 드러내셨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당대에 명성을 떨치셨다. 그야말로 나라의 인재로 손꼽힐 만한 자질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덕스러운 운명에 의해 발탁되지 못하셨으며, 결국 향공생(庠生)에 그치고 말았으니, 이를 두고 청렴한 선비들은 안타까워하였도다.

선생께서는 한때 신당(新塘)의 이공(李公)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한 고산선생(孤山先生)의 학문을 사사(私淑)하여, 학문의 깊이를 알고 경중(輕重)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셨다. 특히 팔우(八友)와 오죽(梧竹)과 함께 학문을 논하며 해가 가고 달이 지나는 줄도 모를 정도로(征邁之樂) 학문에 정진하셨다. 또한, 나의 선친 갈수부군(渴睡府君)과도 친분이 두터우셨으며, 시대의 사상적 조류(雷陳)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학문의 요점을 정확히 짚고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데 힘쓰셨다.

그렇게 쌓아온 학문적 깊이를 문장으로 남기셨는데, 그 문장은 웅장하면서도 우아하였으며, 인의(仁義)를 담고 있었다. 서술은 풍부하고, 편집은 방대하여 그야말로 땀 흘려 실어 나를 정도(汗牛充棟)였으니, 그 정밀함과 깊이는

『주자서요(朱子書要)』, 『어류초(語類抄)』, 『성리감(性理鑑)』, 『인집(人集)』, 『오총귀(五總龜)』 등의 서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생의 학문적 실력을 가늠할 수 있도다.

또한, 선생께서 저술하신 「전의(電義)」, 「홍범부(洪範賦)」, 「백조편(白棗篇)」, 「상우책(尙友策)」 등의 작품 중 특히 부(賦, 운문)는 연경(燕京, 북경)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전해졌으며, 그밖의 저술도 문단에서 널리 회자되었다. 이를 통해 선생의 뛰어난 문장력을 알 수 있도다.

그러나, 선생께서 직접 편찬하려던 문집 전체는 끝내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작품들은 후손들에게도 남겨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선생의 남은 저술을 찾아 정리하고, 마침내 오죽공(梧竹公)이 미처 편집하지 못한 것들까지

모아 몇 권의 책으로 엮었으나, 유실된 것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단지 후손들의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우리 학문을 계승하는 이들 모두가 애석하게 여길 일이기도다.

이에 후손들이 선생의 글을 세상에 남기고자(演服遺唾之無傳), 오래된 서책들을 정리하고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隨得隨補) 완전한 문집을 편찬하려 하였으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世故波盪) 자칫 다시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칠세손(七世孫) 승희(承禧)가 이를 민간 출판사에 맡겨 편집하게 하였다.

나는 감히 그 교정과 수정 작업을 맡게 되었으며, 나아가 서문을 요청받았으나, 어찌 감히 두 선조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만 감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건한 마음으로(謹識) 후세에 남기노라.

기축년(己丑年), 후손 중 김회진(宣城 金晦鎭)이 삼가 쓰다.

-끝-